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서점물식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0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2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무소유정신 실종

출가승려는 그동안 '삼의일발(三衣一鉢)'의 청빈한 삶을 사는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스님들은 토굴이란 곳에 TV, 냉장고, 오디오 등 그야말로 웬만한 살림집 부럽지 않을 만큼 갖추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스님들의 이야기임이 분명하지만, 마치 승가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된다.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에서 읽은 일화가 새삼 되새겨진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광관. 이것 뿐이오."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청빈한 삶의 모습
사회에 모범인데…

스님들에게 욕심을 끊고 수행 정진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발우와 가사만을 남기고 일백여 덟번 울리는 열반의 종소리를 들으며 현세의 삶을 떠나라고 말하면 이슬만을 먹고 살라는 것과 같다고 핀잔을 들을지도 모른다.

종단적으로 스님들에 대한 노후대책이 전무하고 스님들이 정재를 직접 관장하는 실정에서 스님들의 탄만으로 돌리기에는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스님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버리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다니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님들이 초발심의 자세로 무소유정신을 지키면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불교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세상에서는 출가 승려들이 수행이라는 염불보다 종권이라는 잿밥에 관심을 둬 그렇다고 수군거린다. 스님들이 수행정진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종단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선결과제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회원은행 : 189-13-03929-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새공주 불교방송

"불교자주권 · 법통 수호하자"

범불교도 궐기대회 1만명 동참…"사법부 각성" 등 결의문 채택

조계종 법통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탄성 원로회의 의장)는 12일 오후2시 조계사 경내에서 탄성 도원 비룡 녹원스님 등 원로의원 11명과 22개 교구본사 주지 등 중진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만여명(스님 2천, 신도 8천)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사부대중)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법통을 수호키로 결의했다.

이날 대회는 오후 2시 명종과 명고로 시작을 알렸으며, 경과보고, 대회사, 혜암 종정 교시봉독, 원로회의 결의문 낭독, 사법부 규탄연설, 결의문 채택, 불교자주화 불교도 서명운동 선포,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다.

고산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국불교의 맑실을 죄하는 사법부에 의해 자행된 분명한 법란"이라며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법통을 짓밟은 사법부에 대해서 2천만 종도의 이름으로 그 부당성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사부대중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불교에 가해졌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립박과 편향적인 종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제도적인 종교편향정책의 결과"라며 "불교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전통 민족종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12일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궐기대회'에 참석한 1만여 사부대중은 사법부 각성과 정화회의 해산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법부 각성, 담당판사 파면 △불교 자주권 침해 방조한 문화관광부장관 각성 △정화회의 해산, 불교재산 탈진하는 월하스님 참회 △고산스님 중심으로 단결해 사태 조속히 수습 △불교자주권 수호 범불교도 서명운동 동참 △정부당국은 사찰수행환경 훼손하는 법령 개정 △이러한 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2차 궐기대회와 전국 사암 산문폐쇄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화합의 길 동참" 당부
3원 · 종회 공동담화

조계종 총무원(권한대행 원택)과 교육원(원장 알면) 포교원(원장 정련)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5일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해당자 스님들은 재심사 절차를 밟아서 종단의 안정에 화합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3원장과 종회의장은 담화문에서 "교단은 무엇보다도 차별없이 화합해야 한다"며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 제정과 △총무원장선거 실시 △조계사 출입구 개방 등 종단화합을 위한 세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해 이후 징계받은 스님들에게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원택스님은 조계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철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다음달 15일 총무원장 선거

조계종 선관위 공고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선거가 11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14일 중앙종회사무처에서 52차 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15일 총무원청사 게시판에 총무원장 선거 실시를 공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덕운스님은 회의가 끝난 후 "법원(서울지법 민사42부)의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과 고산스님의 항소포기, 144회 종회에서 개정한 총무원장선거법을 근거로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한다"며 "선거일정이 공고되면 선거인단 선출, 후보등록 등의 절차는 총무원장선거법 등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덕운스님은 또 "총무원장 출마자는 종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136회 종회에서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을 144회 종회에서 개정해 새 선거법을 마련했으므로 이 법으로 선거를 치루는 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입후보자는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 총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적 또는 공권정지 중이거나 면직의 징계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또 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종단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않은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도 출마가 제한된다.

종헌 · 종법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의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240명 등 모두 321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공고 후 당선자 발표 때까지 매주 정례적(목요일)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最古 고구려 금니불
고구려연구회 14일 공개
6세기후반 제작 추정

국내 최고(最古) 금니불로 추정되는 고구려 금니불여래입상(사진)이 (사)고구려연구회(이사장 서길수)에 의해 14일 공개됐다.

높이 13.5cm의 이 불상은 해방 전 평양 근방에서 출토된 것으로 제작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정영호 교수는 "작은 입가에 나타난 은은한 미소와 상투처럼 솟은 육계, 크고 볼록한 눈두덩등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니불은 진흙으로 빚은 불상에다 금박을 입힌 것으로 지금까지 발해시대 동경성에서 출토된 소조불상 조각(서울대 소장)과 통일신라말기로 추정되는 성주사터 출토 소조불두(동국대 소장) 등이 가장 오래된 금니불로 알려져 왔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사태 징계자 재심사

종회, 특별법 제정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 불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2일 열린 144회 임시종회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11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은 "종단의 안정을 위하여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하여 징계받은 자들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킴으로써 종단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해종특위법 및 98년 12월 29일 이후 징계받은 스님들이다. 대상자는 종단기관지 공고 후 7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재심호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개시일부터 심사 결정 때까지 징계의 효력은 유예되며, 재심사 청구자에게는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또 이날 총무원장 선거법 등을 개정했다. 종회는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총무원장선거를 30대로 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12일 '해종행위 징계자특별법'을 13일자로 공포했다. 또 이날 개정된 종헌과 총무원장선거법을 공포했다.(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공 고

총무원장선거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1.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일 : 불기2543(99)년 11월 15일 월요일 (음력 10월 8일) 오후 1시 ~ 4시까지
2. 선 거 장 소 : 조계사 대웅전(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음)
3. 총무원장입후보자 자격 : 승랍30년이상, 연령50세이상, 법계2급 이상의 비구로써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 2543(99)년 11월 5일 - 11월 7일
5. 입후보자 등록서류 : 1. 등록 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1부 (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1부
   4. 사진 (반명함판) 5매
   5. 종책집 (교계신문 게재용)
6. 입후보자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종회 사무처)
7. 선거권 자격(선거권자) : 중앙종회의원(81명) 및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선거인(240명)
8. 선거인단명부열람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중앙종회 사무처)
9. 문 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중앙종회 사무처)
   전화 02)735-5860, 팩스 02)733-8286

※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 선출기간은 불기 2543('99)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불기 2543(99)년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운

사 설

1만 사부대중의 궐기

10월 1일과 2일에 연이어 나온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지명'으로 불교계가 또다시 혼란의 와중에 휩쓸렸다.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처음에는 불교계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는 반성도 있었으나, 그런 반성은 뒤이어 터져나온 너무도 큰 분노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분노는 불자라면, 아니 양식있는 모든 사람이 느껴 마땅한 당연한 분노였다.

판사는 총무원장을 선출한 종회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총무원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버렸다. 종회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와 적대적 입장에 있던 정화회의를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최대 종교의 수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하여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안정을 찾아가던 조계종 전체가 쑥밭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리하여 불교가 회복 불가능한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고, 종교적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판결에 불교계의 분노는 이번 판결에 불교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고의적인 저의가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심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속되어 온 정부의 종교편향적인 정책에 오랜 동안 피해를 입어온 불교계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12일 열린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궐기대회'에 모인 1만불자의 성난 외침은 천만 불자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정권과 사법부는 이러한 측면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불교계는 불교계 나름대로, 불교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힘을 빌어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업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만 한다. 정권에 빌붙어 어쭙지 않게 그 환심을 삼으로써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려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떳떳치 못한 외부적인 압력에는 모든 불자들의 힘을 모아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내부의 문제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청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요, 외부적인 힘을 끌어들이려 하는 어떤 세력이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오랜 업보의 결과로 받는 이번의 사태를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

용납할수 없는 폭력

청정 승단과 관계된 분규에 쇠파이프를 든 두 집단이 유혈 난투극을 벌인다. 거기에 회색장삼이 펄럭인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텔레비전의 화면 발을 잘 받는 소재는 없다. 잘만 하면(?) 세계 곳곳에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전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몇년 동안 애써왔던 노력들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온 국민들은 "또 야?" 하는 경멸감섞인 시선을 보내게 마련이고, 이천만 불자들은 좌절감과 자괴감에 몸둘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얼마인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여태껏 끊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반복하고 있는 불교계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물론 사건의 전말은 무시한 채 선정적인 보도만을 일삼는 한국의 언론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언론을 탓하기에는 불교계에 폭력이 횡행해온 역사가 깊고, 그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 이제 이 악업을 끊어내지 않으면 불교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라는 위기의식이 모든 불자들에게 팽배해 있다. 국민들이 경멸하고, 모든 불자들이 등을 돌린다면 과연 무엇을 두고 폭력까지 동원되는 싸움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출가 승단은 모든 불자들, 나아가 모든 중생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이상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엄하고도 엄한 청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모범이어야 할 승단과 관계된 분규에 세속인들도 눈살을 찌푸릴 폭력이 횡행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이제라도 어떤 사태에서도 결단코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선언하라. 폭력에 당할지언정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는 청정 승단의 모습을 보이라. 그것만이 한국 불교가 살 길이다.

앞으로는 어느 불자도 폭력을 통해 세력을 잡으려는 집단을 귀의의 대상인 승단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다. 폭력에 직접 관여한 스님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소리없이 번지는 이천만 불자들의 소리를 부처님의 천둥같은 꾸짖음으로 들어야 할 때이다.

재가단체 "폭력 안된다"

총무원 사과-정화회의 해산 요구

12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발생한 유혈폭력사태와 관련 불자들과 재가단체들이 조계종총무원의 사과와 정화회의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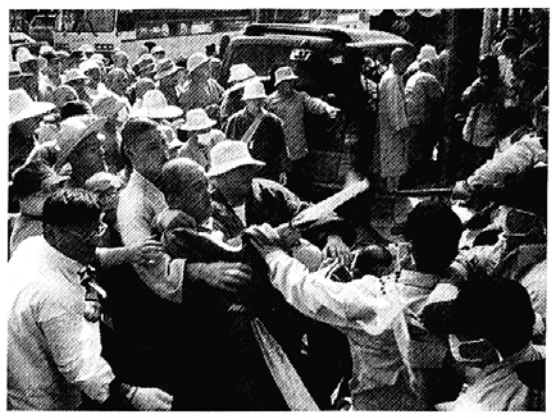
13개 재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의장 박광서)는 14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불교자주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퇴색하고 다시 한번 한국불교의 위상추락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총무원은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또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폭력의 원칙이 견지되지 않을 때 불교의 존재 의의와 종교적 가치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화회의의 해산도 촉구했다.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도 12일 "또다시 종단분규가 표면화되어 난투극이 벌어진데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한다"며 종권을 둘러싼 모든 소송과 투쟁, 폭력과 물리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은 14일 재가연대의 조계사 출입문 개방과 철조망 제거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비용역의 철수에 대해서는 청사 경비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취재1부



◇12일 오전 조계사 입구에서 총무원측(오른쪽)과 정화개혁회의측 스님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부끄러운 폭력사태

12일 조계사앞 집단 난투극 9명 부상

조계종의 내분이 또다시 폭력사태를 빚었다.

12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진입로에서 총무원측 호법단 소속 스님 및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과 정화개혁회의측 스님과 사설 경호업체 직원 100여명이 충돌, 10여분 동안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이날 충돌로 정화회의측 일공스님(43)의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등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정화회의쪽 스님 2명은 총무원측에 의해 한때 조계사에 감금됐다.

이번 충돌은 정화개혁측 스님·신도들이 오전 11시쯤 조계종 접수를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일부 용역업체 직원들이 정화회의측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충돌과정에서 소화기 10여개와 쇠파이프 등이 난무해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양측은 30여분이나 늦게 출동한 경찰의 저지로 30분만에 해산됐다.

범불교연대회의 서명운동본부 발족

범불교연대회의(상임의장 도법)는 14일 상임집행회의를 갖고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불교연대서명운동을 전개할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주체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전국순회법회를 갖고 10월 중순까지 1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조계종을 비롯하여 각 종단에 서명운동을 위한 행정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사암연합회와 교구본사와 연대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빠른시일내 '99사법부 오판사태에 대한 역사·구조적인 이해'를 주제로 대중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폭력사태 관련 주요일간지 사설

"불교계 화합의 모습 보고싶다"

12일 현 총무원측과 정화회의 측간의 유혈폭력사태가 빚어지자 조선, 중앙, 한국, 세계일보는 13일과 14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이해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 사설의 제목과 함께 내용을 요약한 것.

▩스님들, 폭력만은 제발(조선일보)

이번 폭력사태는 CNN과 AP등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보도됐으니 국제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승단에서 불교 율법이 아닌 사회법을 놓고 갈등을 노출한 것도 불상사인데, 세속법에서도 금하는 폭력을 행사했다면 당사자들은 현행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보고싶은 불교계의 화합(중앙일보)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된 세속사회를 제도하고 자비와 화합으로 감싸야 할 종교단체가 어째서 해마다 내분으로 가투(街鬪)와 폭력을 일삼을 수 있는가. 종교계 집행부 선출에 법원이 관결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절차일 수 있다.

종교계 내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법에 관결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 또한 종교계로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서로간의 앙금을 씻어내고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면서 거듭 태어나는 불교계의 화합된 모습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꼴불견 조계종 유혈분규(한국일보)

정부는 분규가 폭력사태로 장기간 고착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조계종 분규때마다 조직폭력배가 고용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경찰은 조기에 조직폭력배나 그들을 고용한 측을 엄중히 징계해서 고질화한 폭력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시대의 종교란 무엇인가(세계일보)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종교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개혁해야할 과제는 결국 세속과 다름없는 물량 혹은 물질주의 추구, 그리고 권력화에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불교건 기독교건 그 본 역할을 외면할때 시민사회로부터 철저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PC통신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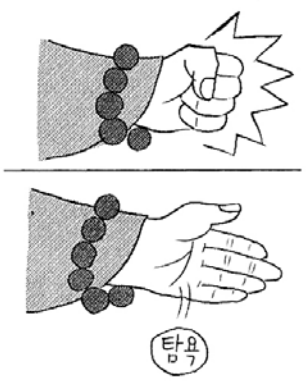
▲조계사는 폭력배들의 링인가, 왜 이러는가. 폭력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조계종 승려들. 목탁 들고 싸우는 것을 보니 부처님도 퍽이나 자비롭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인간ㅇㅇㅇ들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정말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ZPDEB217〉

▲그들을 스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구조조정, 스님들부터 하자. 저들이 무슨 성직자인가. 〈TNFFKD〉

▲감투를 떠나서 고행의 길을 떠나는 대표불자를 뽑는 자리였어도 그렇게 피터지게 싸울 것인지 묻고 싶다. 사리사욕을 위해 불교를 모독한 두 집단이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 정말 가관이다. 〈MIXDOWN〉

▲종교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편해야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가 사람을 힘들게 하니 그러려면 차라리 종교를 다 없애버려라. 〈HEECHUN〉

현대만평 박구원



가진것을 버리면…

"총무원 정통성 인정"

해외거주 외국인스님들

해외거주 외국인 스님들의 모임인 묵림회(회장 종매·화엄사 미주포교당 보광사)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 앞으로 보낸 인터넷 이 메일을 통해 "묵림회 전 회원은 만장일치로 현 집행부인 총무원측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화회의측의 반불교적인 행동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 속히 종단이 정상화되어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묵림회(www.mook-rim.org)는 한국을 비롯 미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영국 헝가리 태국 중국 일본 출신 스님들의 공동수행 및 친목을 위한 단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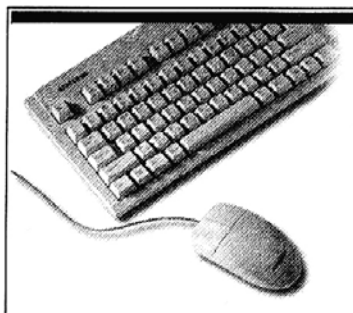
한·중·일 수행체험단 상호교류방문 합의

삼국교류위 경도회의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에 일본의 성지순례단이 한국을 방문하며, 가을경에는 한국불자들이 일본 사찰 수행체험을 한다. 또 3월에는 중국에 수행체험단을 파견한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제2차 경도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대표단(단장 홍파)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3국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순례단 및 수행단의 상호방문을 제안했으며, 일본 중국대표단이 이를 받아들였다. 내년 3차 대회는 서울에서 '세계평화와 복지 구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정성운 기자



특성화 고교지정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네트워크 디자인과 모집요항 및 교사초빙

네트워크 디자인과란?

"20세기의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신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인터넷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학 분야의 전자상거래, 산업디자인 분야의 웹 디자인, 또한 공학분야의 정보기술 부문**들의 학문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컴퓨터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디자인과" 라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교육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생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21C의 미래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정원 : 90명(남·여 공학 3학급)
◈지원자격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다.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원서접수
가. 1999. 10. 25(월) ~ 1999. 11. 2(화)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모집과 동일
◈전형일정
가. 수험생 예비소집: 1999. 11. 4 (목) 14:00
나. 면접 및 필기시험: 1999. 11. 5 (금) 09:00
다. 합격자 발표: 1999. 11. 8 (월) 10:00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다. 각종 경시대회 상장 사본 및 자격증 사본 1통
◈특전 / 졸업 후 진로
가. 현대식 생활관 운영
나. 최첨단 교육장비 도입(1학생 1PC제공)
다. 본교 재학시 공모전 참가토록 하여 특별전형으로 대학진학
라.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대기업, 방송사 및 금융기관 등에 취업
마. 국내 벤처기업과 연계, 산학협력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바. 우수학생들은 방학중 해외 순찰 연수(미국 실리콘벨리)등
사. 졸업후 창업 지원

◈교사초빙
가. 초빙분야: 웹 디자인, 웹 프로듀서, 웹 마스터, 인터넷 서버, 전자 상거래 일반, 정보통신 일반, 정보통신 실무
나. 초빙인원: 각분야 약간명
다. 응모자격: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산업체에서 각 학과 관련분야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3년이상) 하고 있는 분
라. 제출서류: 1) 이력서(경력증명서 첨부 및 전화번호, 응모분야 기재)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3) 재직증명서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999년 11월 2일 17:00까지 본교 행정실
(0333)691-8095, 9100, 7635
(우)451-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홈페이지: www.chongdam-ich.ad.kyonggi.kr

21세기 정보화를 주도하는 특성화 교육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학교법인 청담학원 설립자 이혜성
이사장 김광복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교 장 이건우 합장



▨조계종 종회 결의내용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2일 재적 종회의원 78명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144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유고시 법령 공포 권한을 종회의장이 갖기로 종헌(43조 1항)을 개정하는 한편 136회 종회 결의사항을 재결의해 이후 종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또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해 총무원장선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원장선거법**:△22조 2항: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인단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선투표 선거일만을 다시 정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98년 12월 7일 개정된 부칙4조는 삭제했다. 또 부칙 3조에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조치'를 신설해 △부칙 3조 1항:중앙선관위원장은 99. 10. 1 판결에 따른 총무원장의 부존재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항 : 제1항에 의한 총무원장 선거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로 본다.

▲**136회 임시종회 결의사항 소급 유효확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해 12월 열린 136회 임시종회에서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호계위원 선출 등 11개 안건을 결의했다.

▲**초·재심 호계위원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호계위원과 중앙선관위원은 지난 해 12월 열린 136회 임시종회에서 선출했으나,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에서 종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에 따라 당시 종회에서 선출한 호계위원과 중앙선관위원이 사표를 냈다. 이번 종회에서는 재선출 형식을 밟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심호계위원(7명):휴정 선용 성웅 종걸 원행 지홍 은성. △재심호계위원(6명):성타 혜운 종진 도영 진허 대성. 대성스님은 이번 사법부 판결과 관계없이 사임한 흥교스님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1명) :도현.

▲**비상사태와 관련한 재정집행에 대한 결의 요청 동의**:총무원 재무부장 자승스님의 "현재의 비상사태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집행된 모든 재정지출과 앞으로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재정지출은 종단 예산에서 지출하고 비상사태 종료 후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종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선출**:총무원이 추천한 원택스님을 찬성 62, 반대 4표로 선출했다. 총무원은 이날 오전 종무회의에서 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추천키로 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출에 앞서 종회는 '총무원장의 입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총무원법을 개정했다.

종회는 또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 ▲호법부장 종지스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정성운 기자

화합-안정 바라는 포용책

조계종 '징계자 특별법' 제정 의미

멸빈자까지도 재심사대상 포함
30대 총무원장 선거 동참 가능
정화회의 "분열 노림수" 평가절하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는 15일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의 제정은 이번 조계종사태 과정중에서 나온 화합과 안정이라는 명분에 걸맞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에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명분을 받아들였다. 15일 발표한 3원과 중앙종회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종단 발전이 몇 년 더디 간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화합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반대의견을 다독이는 흔적이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징계재심사 대상은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인한 징계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종헌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르면 멸빈자까지도 재심사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지난 조계종사태 징계자 96명, 일반 징계 30여명 등 1백40명에 이른다.

또 심사를 청구하면 이미 확정된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총무원장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어놓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초·재심호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 재심호계원장)는 16일 심사청구를 공고하고 22일까지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교구 선거인단 선출기간(10. 31~11. 4) 전에 심사를 마쳐 교구 선거인단 선출 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화회의에서 선거무효 소송 또는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경우를 대비한 대응입법의 성격도 있다. 징계로 인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종헌·종법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총무원측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징계자 재심사를 통한 징계의 경감, 이를 통한 화합과 안정의 길을 열어놨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정화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분열책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지난 조계종사태로 징계를 받은 이후 정화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스님들의 재심사 청구가 많을 경우 정화회의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종특위법에 의해 멸빈 또는 제적의 중징계를 받은 스님들 가운데 이번 사태에 관련되지 않은 스님도 있고, 이들을 포함해 중징계는 아니어도 중진급 스님들도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총무원장을 선출했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최소한 대사면 등의 화합을 위한 대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1월4일까지 선거인단 선출…5~7일 후보등록

총무원장선거 어떻게

총무원장 선거를 11월 15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각 교구의 선거인단 선출, 후보 등록, 선거 기간, 총무원장 선거 등의 일정이 확정됐다.

10. 15 총무원장 선거 공고
10. 22 교구종회 공동소집 공고
10. 31~11. 4 선거인단 선출
11. 5~7 후보 등록
11. 5~14 선거 기간
11. 15 총무원장 선거

선거 기간중의 선거운동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신상명세, 종책 공약 개요 등을 후보등록 마감 후 최초로 발행되는 교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금품 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행위 등 비승가적 행위, 각종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임기(4년)는 전임 총무원장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하나, 임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중앙선관위의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목어

제3의 영역

옛날에 세 도인이 있었다. 그들은 어느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이야기했다.

"나는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다 따가고나니 포도덩굴은 불품이 없었습니다. 나는 새삼 무상을 느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물가에서 어떤 부인이 그릇을 씻는 모습을 무심히 보고 있었는데, 순간 '깽그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연꽃이 만개한 연못가에 앉아 그 아름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대의 마차가 나타나 사람과 말들이 연못속에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나니 만개한 연꽃들은 간곳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깨달았습니다."

〈잡비유경〉에 있는 가르침이다.

12일, 스님들이 조계사앞 큰길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10개월전처럼 한국불교의 체면이 또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언론이 질타하고 세계가 비웃고 시민들과 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스님들을 향해 법문을 하고 있다. '상구보리·하와중생'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 차마 얼굴들고 다니기도 민망하게 됐다. 그러나 〈잡비유경〉에 나오는 세 도인처럼 사법부가 내린 판결과 도심의 난투극을 보면서 스님들이 한소식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화를 복으로 바꾸면 종권도 재물도 탐하지 않고, 세속법에 호소하는 일도, 난투극도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계가 꼭 해야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최근 NGO 서울대회가 주목을 끌었듯, 불교계에도 승단을 외호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하는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

"NGO는 정부가 잘하면 지지를 보내주고 도움도 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과 함께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 말에서 정부를 조계종단과 스님들로, 약속을 계율로 바꾸면 바로 한국불교의 '제3영역'이 해야할 일이 된다. 범불교연대회의와 재가연대가 그 역할에 나섰지만 조직을 확대·체계화하여 조계종의 강력한 '제3영역'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길 바란다. 그러면 한국불교는 21세기 희망일 수 있을까.

최 정 희(본지 편집국장)

총무원 움직임

원로회의, 정화회의 해산 결의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2일 오전11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종단 사태와 관련해 원로회의를 열고 재판부의 사죄와 정화회의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불교 자주성과 조계종의 법통을 유린한 재판부의 각성과 사죄 촉구 △지난해 11월 30일 거행된 승려대회는 조계종의 법통을 계승하는 여법한 승려대회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그 결의사항은 아직도 유효함을 선언 △정화측은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즉각 해산 △사부대중은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종단 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해 총력 매진하라고 밝혔다.

○…총무원은 13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해 항의서한을 신문사와 방송사에 전달키로 했다. 총무원은 12일 열렸던 사부대중 궐기대회보다 조계사 앞 우정국로 유혈사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폭력사태가 유발됐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법통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탄성 원로회의 의장)는 12일 조계사 경내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사부대중)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 후 총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대회를 통해 대다수 스님과 신도들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집단 정화측은 더 이상 종단내에서 아무런 입지도 없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총무원은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교구 연합호법단' 창단식을 거행했다. 2백5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호법단(단장 종지 총무원 호법부장)은 이날 창단선언문에서 "비법의 무리를 종단 밖으로 물리쳐 종단이 안정되어 화합될 때까지 위법망구의 일념으로 물러섬없이 정진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화회의 움직임

17일 통도사 대규모 규탄집회

○…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도견스님은 9일 정화개혁회의 의장 도성, 원로의원 도일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상덕스님과 정화개혁회의측 스님·신도 1백여명과 함께 조계사 입구에서 청사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후 1시간만에 자진 해산했다.

○…정화개혁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8일 법원(서울지법 민사 50부)에 '총무원장 임시대행자(통도사 방장 월하스님) 선임 신청'을 냈다.

○…정화개혁회의측 스님과 신도 80여명은 13일 낮 서울 조계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12일 오전 조계사 진입과정에서 총무원측이 도각 스님 등 3명을 강제로 끌고가 7시간동안 잡아두며 고문했고 이중 1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상태"라고 주장했다. 정화회의측은 "17일 통도사에서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고문진상을 파악, 총무원측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화개혁회의측 쿤수 스님은 13일 집단폭행을 주도한 혐의(폭력)로 조계종 前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총무원 전 총무부장 원택 스님 등 30여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등 1백여명을 폭력교사 및 행사, 납치 감금 및 특수폭행(고문), 강압에 의한 금품절취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봉인사 전문수련원

자광전 개원법회



적경스님

봉인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번지 천마산 서쪽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확한 창건연대는 옛지료가 충분치 않아 알수 없으나 봉선사 본말사지에 따르면 광해군11년(1619)에 중국으로부터 모셔온 석가 법인인 진신사리를 이듬해인 봉인사에 탑을 세워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영조 33년 (1757)에 조계선풍을 이어온 부용 영관선사의 6세 손인 풍암 취우대사께서 사리탑을 중수 하였으며 조선의 3걸로 손꼽히던 설두스님이 주석하시며 고승대덕을 배출해 낸곳이다.

승유억불의 조선조 정책 속에서도 꾸준히 부처님의 교화사업이 끊이지 않았으며 구한말 일제 치하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일본으로 밀반출되고 절이 쇠락하였으며 결국 폐사되었던 이 곳을 25년전 시절 인연이 닿아 한길로 대법사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큰 법당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어 10년전에는 일본으로부터 반출되었던 부처님의 사리와 탑을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왔다. 그 탑은 현재 중앙박물관 뜰 앞에 복원 전시 되어 있고(보물 928호) 사리는 봉인사에 안치하였다.

봉인사 중창주이신 한길로 대법사는 17세때 갑사로 출가하여 해방후에는 덕숭산 정혜사 만공스님 회상에서 오대산 월정사 한암스님 회상에서 정진하셨고 동국 역경원 역경위원을 지내시면서 운허스님을 도와 육조단경, 수능엄경, 지장경 등을 번역한 뛰어난 학승이셨으며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전시회를 갖기도 하셨다. 지난 1996년 8월에 세수 78세로 입적하시며 한길로 법사님이 남기신 "봉인사를 교화도량으로 키우라"는 유지를 받들어 전문수련장인 자광전(慈光殿)을 건립하게 되었다.

자광이란 뜻은 미래불인 자씨(慈氏)미륵에서 따온 자(慈)자와 부처님은 그대로 빛(光)이라는 의미를 뜻하며 수련하는 모든이들이 성불하여 미래불이 되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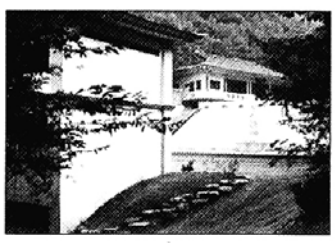
본 도량은 사찰 맨 위쪽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과 좌측으로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큰법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 맞은편에는 인자하신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으며 그곳에는 생명과 같은 늘 풍부한 샘물과 아담한 연못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

또 봉인사의 특징인 100년이 넘는 원만하고 넉넉한 살구나무가 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방문하는 불자님에게 편한함을 안겨주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계곡 맑은공기 좋은 약수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이 성지에서 수련하는 모든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련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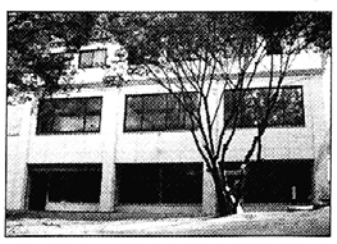
또한 현 주지이신 적경스님은 봉인사를 위파사나(여래선) 전문수련도량으로 불교를 배우고자하는 또는 선(禪) 수련회를 하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열린수련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본 사찰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수련회 또는 각종단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수련회도 환영하며 부처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수련회라면 모두 수용하여 이웃들과 수행하면서 좋은 벗(도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스님의 원력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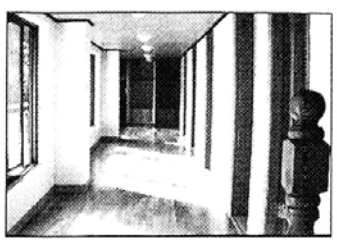
법당



수련원 및 법당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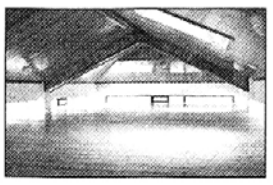
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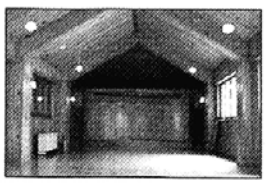
수련원 내부

■면 적 : 총건평 250평(3층규모) ■수용인원 : 300명
■서설물 : 법당수련장 큰 홀 100평 (60평, 40평)
■휴게공간 (30평) ■식당 (40평)
■숙소(방10개) 욕실과 붙박이장이 설치됨
■공사기간 : 1998년 4월 4일 첫시삽을 시작한 이래로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자광전 봉사조성비
총 불사비용은 7억이 소요 되었으며 불사비용충당은 금강경에서 밝히신 1250 나한님 성상을 화강암으로 조성하여 불사하고 있다.
나한님 한분 모시는데 50만원이며 분납도 가능하다.
또한 연로하신분들이나 조용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부처님 도량에서 기도하며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숙소도 분양중이다.

■ 개 원 법 회 : 10월 24일 오전 10시 ■



3층 좌선실



2층 행선실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는 …

현주지인 **적경스님**은 봉인사를 교화도량으로 키우라는 유지를 받들어 위빠사나(여래선) 전문수련도량인 자광전을 짓고 있으며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론 마음의 평온을 위해 일주일 또는 열흘과 한달간 수행만 할 수 있는 도량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스님의 원력이십니다.

이웃들과 수행하면서 좋은 벗(도반)이 되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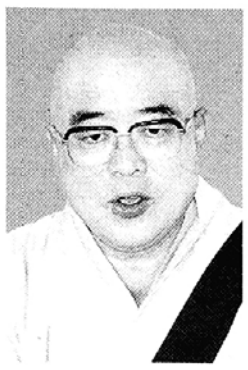
여래선(如來禪-vipassana)후원자 모집안내

■여래선 후원자의 의무와 혜택
· 가입비 1만원과 매달회비 1만원 납부
· 1년 회비(₩12만원)가 완납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련 할 수 있음.
· **수련기간**은 열흘이며 모든 비용(숙식 및 지도)은 그동안 납부한 회비로 충당
· 봉인사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 및 TAPE, CD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음.
· **수련일정**은 3일간 자비관(사마타 수행), 7일간 관법 (위빠사나 수행)
·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종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 소정의 양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0346-574-5585 / 팩스 0346-574-0808
· **후원해주실 계좌번호**
국민은행 227-25-0000-906 농협 204051-51-050551(예금주: 봉인사 한길정진원)

봉인사 주지 적경 합장 전화 0346) 574-558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2리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돼야"

노인작품 전시회 여는 각현스님



21세기 노령화시대를 준비하는 한 스님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91년 설립 이후 노인복지를 실현해 오고 있는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은 지난 1일부터 막을 올린 '노인작품 전시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벌써 서울을 시작으로 안양과 평택 용인 대구 다섯 곳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인천(22~23일)과 수원(27~28일) 두 곳에서 전시회를 갖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흐뭇한 표정을 보니 그렇게 기쁠수가 없어요. 만든 이들과 보는 이들이 모두 즐거워하니 전시회를 여는 보람을 느낍니다"

스님은 전시회 준비기간 5개월여동안 대구, 청주 등 산하 20개 시설이 있는 곳은 모두 다니며, 노인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작품제작을 함께 했다. 그렇다보니 작품의 특성이나 제작상의 애로점 등을 모두 파악해 전시회 기간동안 관람객에게 스님이 일일히 작품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전시회 덕에 저도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만 노인들의 열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구 보살선원의 어떤 노인은 한지공예작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 사는 딸을 찾아가 기술을 직접 배워오기까지 했어요. 그 열의가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이번 전시회는 노인대상 행사규모로는 국내 최대. 그러나 단순히 노인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또 다양한 세대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잔치가 되고 있다.

"전시회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각현스님은 "노인복지는 노인의 역할이 증대될 때 이뤄질 수 있으며, '효의 사회화 운동' 차원에서도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교차로

권희로씨 '대만돕기' 공동대표





삼중 자비사 주지(사진위)와 권희로씨가 10일 대만돕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이 단체는 삼중스님과 권씨가 50만원씩의 성금을 기탁하고 단체활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02)364-4469

정혜사 수계법회 법문



혜인 제주 약천사 회주는 16일 경기 산본 정혜사(주지 정혜) 개원 2주년 및 영산재 특별법회에 참석, 법문을 하고 보살계를 수계했다.

대만 불광사 스님초청



현지 송광사 주지는 97년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불광사 강원 스님 12명을 초청, 11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사찰을 참배토록 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해인승가대 정기총회



혜총 해인승가대학 동문회장 스님은 28일 오전 9시 해인사 청화당에서 상임위원회를 열, 관음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해인승가대 장학금 지급의 건과 동문 수첩 제작배포의 건을 다룬다.

진묵대사 성지 탐방



영조 증심사 주지(광주불교교육원장)는 24일 '진묵대사의 성지를 찾아서'란 주제로 완주 송광사, 위봉사등을 답사한다. (062)228-9098

청소년 상담전화 설치



우학 대구 관음사 주지(영남불교대학장)는 매주 일요일 오전 9~12시 청소년 전문 상담전화를 개설한다. (053)474-0108

한국불교통신대 7대학장에



한정섭 법사는 30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한국불교통신대학 제7대 학장에 취임한다. (02)969-2410

박철언의원 후원 한마당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 회장은 20일 오후 3시 등대구관광호텔 별관 3층에 후원한마당을 연다.

광양서 시민문화 강좌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삼성출판사 회장)은 14일 광양시 문예회관에서 '21세기 문화가 왜 중요한가' 주제로 강의했다.

서울시 문화상 수상





홍기삼 동국대 교수(국문학·사진위)와 안숙선 국립창극단장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8회 서울시문화상(문학·음악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홍기삼교수는 한국문학사와 문학평론에 대한 종래의 관점을 심화시키고 한국문학이론의 토대를 마련한점, 안숙선씨는 국악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박범훈의 음악세계 공연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18일 KBS홀에서 열린 KBS국악관현악단 제116회 정기연주회에서 '박범훈의 음악세계-흥과 신명의 노래'를 주제로 연주했다.

시화첩 '지금도…' 출판회



로천 김대규 화백(한국석불문화연구회원)은 23일 오후3시 이화여대 삼성문화원 대강당에서 시화첩 〈지금도 부르고 싶은 사랑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351)861-7799.

관현민주대상 수상



정해숙 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 열린 관현장학재단 주최 '박관현열사 17주기 추모식'에서 제4회 관현민주대상을 수상했다.

고침 지난(241)호 17면 교차로 중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02)365-4060 으로 바로잡습니다.

구산선문 참선 기행

11월 : 성주산문(성주사지)·무량사·장곡사

11월에는 무염국사(801~888)에 의해 개창된 성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오층석탑과 세 기의 삼층석탑 등만이 외로이 남아 번성했던 옛 대가람의 면모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주사지를 찾아갑니다.

인근에 있는 무량사에서는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영정을 모셔놓은 산신각과 경내 한가운데 듬직하게 앉아 있는 2층 전각인 극락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등 2개의 대웅전이 있는 장곡사도 참배합니다.

◇출 발 : 11월 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 3만5천원(중식 제공)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호소

백혈병 세살바기 치료비없어 막막



만성골수백혈병을 앓아온 3살난 아이가 수술은 했으나 수술비와 병원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민석 어린이는 지난해부터 만성골수백혈병을 앓아오다 지난 6일 삼성 서울병원서 아버지로부터 골수를 받는 수술을 받았다.

아버지 김천수씨(36)는 노점상을 하다 골수기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버니 김정임씨(34)는 간병때문에 다니던 공장일도 그만두었다.

의료보험혜택조차 받지 못함으로써 수술비 8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불자들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하다. 도움을 주실 분은 (02)809-5458(김천수씨)이나 (02)806-8345(청담사회복지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위덕대 초대박물관장 김무생 교수

"경주북부 유물발굴 힘쓸터"



"우리나라에서 유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으로서 대학주변 지역의 유적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함과 동시에 기존의 인근 대학박물관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꾸준히 박물관의 기틀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16일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초대 대학박물관장에 임명된 김무생 교수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위덕대는 지난달 16일부터 업무수행을 위해 박사 1명, 석사 1명 등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문사회과학관 4층에 연구실과 유물정리실을 두고 박물관 업무를 시작했다. 박물관 설립을 계기로 경주 인근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포항 영덕 및 경주 북부지역의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빠른 시일내에 불교 종립대학에 걸맞는 유물을 갖추고 상설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라며 "위덕대 박물관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찬불동요집 '누가 예쁠까' 낸 박동원씨

"유아위해 노래포교 나섰죠"



"새싹불자들은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중요한 재목들입니다. 이들에게 불교를 재미있고 쉽게 접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로 정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23일 오후6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회갑을 맞아 찬불동요집 〈누가 예쁠까〉 출판 기념회를 갖는 박동원씨(61). 지난해 2월 은석초등학교를 퇴직한 박씨가 30여년간 새싹불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만든 찬불동요만도 150여곡. 대부분 운문스님의 글을 받아 곡을 붙였다. 특히 81년에 작곡한 찬불동요 '감사합니다'는 전국 어린이법회에서 어린이들이 긍양전에 즐겨 부를 정도로 유명해졌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찬불동요는 많아졌지만 유치원생들을 위한 찬불동요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게 교계의 현실입니다. 남은 여생을 유아들을 위한 찬불 동요를 만드는데 바치고 싶습니다."

81년 은석초등학교 연화어린이회를 창립하기도 했던 박씨는 10월말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걸스카우트'를 창립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군법당에 위문품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김용길·사진 윗줄 왼쪽부터 첫번째) 회원들은 국군의 날을 맞아 10일 5군단 군법당인 호국금강사를 방문, 위문법회를 갖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법회를 주관한 이종인 군종법사는 참석한 회원들에게 〈마음 다스리는 글〉과 〈보현행원품〉을 전달했다.





신륵사 나옹백일장

여주 신륵사(주지 세영)는 여주교육청과 함께 1일 제2회 나옹백일장을 개최했다.

여주지역 총 4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500여명의 학생이 참가, 시·산문·그림그리기·서예분야의 종목에서 경합한 이번 백일장의 시상식은 7일 여주교육청에서 열렸다.

대한불교 관음종

봉 제5세 종정 운공 혜웅 대종사 추대식 축

대한불교 관음종 제5세 종정 운공 혜웅 대종사의 종정 추대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3년 9월 18일 (1999. 10. 26.) 화요일 오후1시
■ 장소 : 서울 장충체육관 대법단

※ 참석 스님께서는 장삼,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회

■ 고 문 : 김성각 이인봉 박삼우 안정암
■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이홍파
■ 부위원장 : 정법륜 김동령 정법성 곽운산
■ 집행위원장 : 김지섭
■ 집행위원 : 김경철 황법명 김성철 윤녹봉 이법현 유우경 홍지묵 김대홍 양고산 송법운 양종명 윤도암 곽용해 김대현 박도법 이해성 김화암 박송월 이수산 이도일 이죽산 오삼보 이석문 박태근 이종섭 한상의 강부신 이내철 양정남

봉행위원

전성공 이도인 강법천 지법정 홍경수 김경담 김경혜 김경심 김경관 송혜정 박지성 박지열 김지현 김계현 김성진 정덕장 정도연 박권선 서도현 이월담 강성오 석보리 김혜암 김법운 김철웅 구보각 김법성 양성안 조법호 구도안 정도연 천무애 엄보덕 전묘련 배보운 이혜암 이수원 최성운 김법경 임광덕 대덕화 지혜봉 정춘담 김법인 김묘법 김동운 심관철 김청종 김도명 신원봉 전지훈 추보공 박법찬 김현근 조법천 정법지 이석송 이성달 송보선 박묘련 엄해각 오혜진 임무선 정진성 엄청송 박정원 김법인 이지족 이진성 송지덕 엄무각 백무학 염혜각 노정광 서권해 이묘각심 백정명 이법룡 김혜공 김동화 전묘각 서대원심 정정혜 김법성 조수건 이시우 박보각 법명심 혜덕화 이송화 김성래 정연담 김대봉 유법성 이석봉 김원광 장영월 추청호 김청법 차예산 이법화 박혜수 양혜정 김청암 김연순 백청현 전서경 이효천 엄청헌 조우덕 황청원 서천호 정월인 정월송 김도정 서효운 허혜수 손법수 박덕성 법장화 김도각 지성회 배청정화 이화담 성혜범 지대응 석정주 이혜련 이청용 김혜월 명일심 이운천 김묘운 곽혜운 조혜숙 박혜경 체법성 배지운심 박백련화 이운룡 김청태 임지혜심 노혜련 하성원 박법성회 이혜선 하혜봉 김법성 윤보승정 조혜련 이백산 이영부 이지도 김감광 이석전 안혜총 이혜덕 조혜담 장법능 임천령 이연화심 채회종 김법화 설묘정 김원광 박고봉 고연화 권도선 안오명 신성법 이대광 고연화 김성종 정일광 김득성 김지광 김해정 이동심 이혜관 현광 현철 현산 현성 현관 이병철 윤연 윤회정 김용직 김인택 손혜산 김정은 정정혜 강법성 유보광 전혜은 이동심 강백운 임진여

대한불교 관음종 제5세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이 홍 파

탐방 경북대병원 법우회



◇경북대병원법우회는 지난 6월 청도 운문사에서 정기총회 겸 야외법회를 갖고 불심을 한데 모았다.

불우환자에 치료비 후원

회원 1백명…세미나법회 격월로 소식지 발간

종합병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문유관에 나타나 있는 인간생명의 유한성과 무상성을 어느 곳보다 잘 실감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늙은이와 병들고 다친 이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일상적으로 봄비는 경북대학병원에 불자들의 모임이 결성된 것은 지난97년 6월. '중생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라는 약사여래의 원력으로 병들고 다친 이들을 돕는 가운데 내면적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경북대학교 병원 및 의치과대학 불교법우회(경북대병원 법우회)가 탄생했다.

법우회는 매월 첫째 수요일 정기법회를 통해 불법을 공부하고 봄·가을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진다. 특히 정기법회는 회원들 스스로 불교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돼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1백여명의 회원들은 근무중에도 자투리 시간을 내 병원내에 마련된 법당에서 좌선을 하거나 기도하며 생활속의 의통을 열어가고 있다. 격월로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경대병원은 아름답고 거대한 탑공원으로 변모한다. 회원들이 2주 전부터 약 2백여개의 5색 연등으로 병원 둘레를 장식하고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에는 탑돌이를 실시해 장관을 이룬다.

법우회는 올해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보태는 일에도 나서고 있어 신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故김태완군이 입원했을때도 경대병원 법우회원들은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강병조회장(56. 정신과 과장)은 "불교가 제자리를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가신행단체들도 침묵해서는 안된다"면서 "거사림회, 구도회등 타신행단체와 연계해서 청정교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053)420-5752

이윤호 기자

"영상포교사의 자질 갖추자"

MBC 5개 계열사 불교연구회 창립

갑사 합동수련회도 가져

"불심을 통한 회원간 친목도모는 물론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정확한 전달과 정통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방송(MBC) 본사를 비롯 전국 10개 계열사 불교연구회는 9~10일 이틀간 공주 갑사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수련회를 갖고 불자 방송인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수련회는 진주·마산·여수·강릉·청주 등 5개 MBC 계열사 불교연구회의 창립법회를 겸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장영효 총무(총무부 부장)는 "다수의 대중이 모여 형식을 제대로 갖춘 창립법회를 봉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불자회 창립이 더 많은 불자 방송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뜻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창립법회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념법회 및 창립법회, 각 계열사간 상견례, 예불, 운력 등으로 진행된 수련회는



◇MBC불교연구회 회원들은 수련회 기간동안 함께 하면서 서로 불심을 독려하고 불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취지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수련회 기간 중 보인 MBC 불자 방송인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앞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만큼 불심이 충만했다. 특히 1시간 30분 동안 갑사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운력을 하는 동안 회원들은 전날 "'본래의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지식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던 장곡스님(갑사 주지)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있었다.

유희근 회장은 "이번 수련회가 MBC 불교연구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를 아끼고 남을 위해 실천할 줄 아는 불자 방송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삼천포 발전소 불자회 발족

회원 33명…회장 정일교씨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삼천포화력 반야회(회장 정일교 발전 2부장)는 경남 고성 운흥사에서 회원 33명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운흥사 주지 능륜스님은 이 자리에서 "참된 종교는 자기 자신의 마음 가짐에서 비롯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법문했다. 또 정일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첫발의 보폭은 작았지만 본회가 회원들의 활성화 노력으로 부처님 법이 일터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천포화력 반야회는 이날 법회에 이어 상견례와 토론회를 갖고 임원 선출및 회칙을 확정했다. 또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7시 정기법회를 갖고, 한해에 2번 성지순례 법회를 열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

철도청 6개 법우회 삼화사등 합동순례

철도청내 불교법우회 제1회 합동 사찰순례 법회가 열린다.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 서울 기관차 불교법우회, 제천기관차 불교법우회, 서울 전동차 불교법우회, 서울 동차 불교법우회, 성북 전동차 불교법우회 등 철도청 내 6개 불교법우회는 20일 강원도 두타산 삼화사와 관음사를 순례하는 합동 사찰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법우회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심을 다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순례법회는 앞으로 정례화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심우회장에 이청정행씨

군법당 지원 불자모임 심우회는 11일 본회 법당에서 제3대 이청정행(63)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정행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원들의 뜻을 한데 결집해 좀더 많은 곳에 부처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578-2525

부산운불회 창립11돌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20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창립 11주년 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또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도 있다. 051)627-1863

한은불자회 초청법회

한국은행불자회(회장 윤주하)는 22일 정오 본관 시청각실에서 삼장불교문서포교원 원광스님 초청 법회를 갖는다. 02)759-4545

용진신행회 인도순례

용진신행회(회장 양봉석)는 11월 28일~12월10일 12박13일의 일정으로 인도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길에서는 성지를 참배하는 것 외에도 승왕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수계식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2279-1119

천리안불동 전국모임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샵 이경재)는 23~24일 충남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전국모임을 갖는다. 011-284-0793

소쩍새 마을에 위문품 전달

반야 라이온스 클럽

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은 10일 소쩍새마을을 방문, 원생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55명의 회원들은 십시일반 몽참해 마련한 라면 15박스, 헌옷 20박스, 화장지 등을 소쩍새마을에 전달했다.

또 원생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장기자랑대회를 마련해 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 보시품을 전달한 반야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소쩍새마을을 방문, 보살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강학일 회장은 "반야라이온스클럽은 개인적인 신행과 더불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뜻을 같이한 불자들의 모임이다"며 "회원들의 작은 몸짓에 기뻐하는 원생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불국사 보살계 수계산림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성타)는 8일 보살계 수계산림법회와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신라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영산대재는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성타 종상 장주스님과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이원식 경주시장 등 2천명이 참석했다.



연천 호국보현사 낙성식

연천 △△부대 호국 보현사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식이 10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연화사 주지 도명스님, 대성사 주지 도행스님을 비롯 군불교진흥회 최혜명 부회장, 진여원 이경숙 원장, 김법철 부대장과 장병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점안식은 신라불교문화원과 도명스님의 불상, 탱화, 불단 보시로 이뤄졌다. 최우진 명예기자



경북도청불자회 회장 이·취임법회

경북도청불자회는 9일 경산 선본사 극락전에서 회장 이취임 및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선본사 총무국장 지광스님과 경불회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초대 오장홍회장(영양부군수)의 후임으로 김휘동 자치행정국장(55세)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휘동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각 시군의 불자회를 조직하고 그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부천 덕유복지관 4주년 기념식

부천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지난 9일 개관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민가요제와 덕유마을 부녀회가 마련한 알뜰바자회 및 먹거리장터도 함께 열려 지역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는 관장 영담스님을 비롯해 김정부(원미구청장) 한병환(시의원)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경

미륵성지 금산사 제1400주년 개산대재

불기 2543년 10월 28일 (음 9월 20일)

축

모시는 글

삼보님께 지심 정례하옵고,
미륵성지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정성을 기울여 마련한 여러 가지 기념불사에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나온 영욕의 1400년을 뜻깊게 재조명하여 미래 한국불교가 힘찬 새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제방에 계신 사부대중의 큰 원력을 한데 모아 미륵성지 금산사 제1400주년 개산대재를 성대히 봉행하고자 하오니 모두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99)년 10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회주 송 월 주 합장
주지 김 도 영

개산대재 안내

오전 10시 ~ 11시 권공(육법공양) 및 축원
오전 11시 ~ 12시 개산기념 대법회
오후 1시 ~ 5시 의승병, 의병, 민간인 영가천도를 위한 수륙재
오후 6시 ~ 10만등불사 회향식

10만등불 공덕으로 용화세계 밝힙시다.

◈ 동참금 1인 1등 10,000원
◈ 연락처 : 0658)548-4440~2
◈ FAX : 0658)548-1390

KBS 열린음악회(산사음악회)를 10월 22일 오후 7시에 금산사 도량에서 녹화하여 10월 31일 오후 6시 40분에 방영합니다.

중요기념불사

⊙ 학술회의
⊙ 매향의례 재현 대법회
⊙ 경로잔치
⊙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최초미륵불 기념법회 및 영호남 화합한마당
⊙ 전국사진 촬영대회
⊙ KBS 열린음악회
⊙ 사지봉헌
⊙ 성보박물관 개관

연락처 및 개산대재 차량 출발지

서울영화사 (02-444-4321) 오전 7시 출발
도선사 (02-993-3161~4) 오전 6시 6번종점 출발
봉은사 (02-545-1448) 오전 7시 출발
대전죽림정사(042-624-2599) 오전 8시 출발

'승가(samgha)'라는 말은 원래 '화합중(和合衆)'이란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제자들의 화합을 항상 역설하시며 "화합중을 파괴하는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낳은 것이 되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이룬 것이 된다"고 경고하셨다. 조계종에 다시 분규가 재연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스님들의 싸움은 불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못해 절망감까지 준다.

세상의 다툼을 잘 교화시켜 구제해야 할 스님들이 도리어 싸움과 파괴에 앞장서다니 될 말인가. 이를 경계하는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서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 다툼

"분쟁 화합시키면 해탈문 여는것"

▨늘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교단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반드시 해탈문을 여는 것이 되리라. 〈보요경〉

▨비구들이여, 그 무리중의 한 비구는 조롱하고 투쟁하고 쟁론하여 서로 구검(口劍)으로 찌르면서 산다. 비구들이여, 이를 불화합중(不和合衆)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쟁론치 않고 젖과 물처럼 잘 섞인다.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설하느니라.

〈증지부경전〉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구사라동산에 계실 때였다 그때 코살라국에 있었던 비구들은 자주 서로 싸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한다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말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 성내고 불량한 말을 퍼붓는 것, 성인의 말씀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이니라. 〈중아함경〉

▨부처님께서 발지국의 사마촌에 계실 때 어느 날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키면 원한을 맺는다. 아란아,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켜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법을 보지 못하며 계를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대중 가운데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여 싸움을 일으킨다. 그러한 싸움은 대중에게 이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한 일은 도리가 아니요, 이익되는 일도 아니며, 즐거운 일도 아니다. 그러한 싸움은 결국 천상과 인간에 지극히 심한 고통과 재앙을 일으키느니라." 〈증일아함경〉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잡보장경〉

▨욕과 비방을 늘어놓고서 우둔한 자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승리는 이를 참고 옳게 받는 이의 것이다.

〈상응부경전〉

▨이기면 원망을 낳고 지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다. 승부를 다투려는 마음만 버린다면 다툼이 없어져서 편안해질 것이다. 〈법구경〉

▨부처님이 사밧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였다. 그 무렵 마하카트야나는 바라나 마을의 한 숲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대기에 물통을 달고 다니는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다. "세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이 싸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바라문과 바라문도 다툽니다. 재산이 많은 장자거사들도 싸웁니다. 이들은 무슨 까닭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왕과 왕이 싸우고 장자거사와 장자거사가 싸우는 것은 탐욕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는 집을 나온 수행자도 있고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싸웁니다. 종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행자와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생각(見慾)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탐욕이나 견욕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의 스스인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께서는 탐욕과 견욕의 매임에서 벗어난 분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신 분이지요." 마하카트야나의 설명을 들은 바라문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다. 기원정사에 계신다고 하자 그는 그쪽을 향해 예배하고 돌아갔다. 〈잡아함경〉

열 린 마 당

범불교연대회의 토론회 '현 조계종상황 진단'

사법부의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판결은 급기야 현 총무원측과 정화개혁회의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판결 이후 불교계는 종단 내부문제가 사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체성 상실의 현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재가연대 등 교계 40여 운동단체 및 신행단체의 연합체인 범불교연대회의는 8일 조계종 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현 종단상황에 대한 불교계 제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응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와 '불교자주성 상실의 위기와 불교자주화 수호'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사법부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부대중 합의하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다. 〈편집자 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당시 긴박한 상황 배제한 판결"

현응(조계종 종회의원)



이번 판결은 95년 1월과 4월 일부 스님들이 강시 월주 총무원장 선출 무효 확인 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단체는 그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그 기구를 개폐하고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리할 수 있고 이는 스스로의 질서 규범으로써 그 자치에 맡겨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기각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종단의 법통이 세속의 법정에 의해 유린되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종단을 다시금 분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서 총무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근거로 당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136회 임시 종회가 소집 공고를 7일전에 게시하고 불교신문과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당시 총무원 청사가 정화개혁회의에 의해 강제 접수되고,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이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이와 같은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상황을 간과한 채 단순한 법의 논리로 이를 판결한 것으로 중대한 판단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조계종단은 지난 98년 폭력적 청사점거와 종헌 질서 유린행위의 와중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50여일 가까이 전개된 온갖 폭력 행위로 인해 한국불교의 위신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불교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총무원장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천주교의 추기경이나 기독교 KNCC 회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사태에 또 다른 배경이나 정치적 음모가 도사려 있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 판결의 이면에 불순한 의도와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불교도들이 힘을 다해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불교는 또다시 분규의 나락으로 떨어져 종단은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고, 총무원 청사와 전국의 사찰은 아수라장의 싸움터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결은 2천만 불자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부가 앞장서서 한국불교를 분규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법난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총무원장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착각하고 있다.

▨불교자주성 상실위기와 불교자주화 수호

"세속법 의존했던 관행 반성을"

전재성(한국불교대 교수)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거대 종단인 조계종, 나아가서는 한국불교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만듦으로써 불교계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종단의 분규를 세속적인 법으로 심판하려는 비자주적인 종단관행은 역사적으로 불타의 혜명을 잇는데 스스로 자주권을 침해당하는 부끄러운 역사로 점철되어왔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12년 선학원운동에서 용성스님이 총독부에 승려의 대처식육을 금하는 건백서를 올린 것은 불교내부의 문제를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 해결하려했던 비자주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었고 일제는 당연히 탄압에 나섰다. 또 조계종은 1954년부터 70년까지 16년간의 교단정화시대에 막대한 삼보정재를 소모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야합하고 세속적인 법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해 후유증이 컸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의 승단정화 역시 비구대처 싸움에 버금가는 종권쟁탈의 폭력적인 역사와 끝없는 소송 그리고 정치적 야합과 계엄군에 의한 10·27법난, 권승들의 종단독식으로 이끌어져 왔던 것은 단적으로 승단의 이념적 무정부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후 94년까지의 승단정화는 말로만 정화개혁이었지 사실상 문중이나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정과 총무원장 그리고 종회의 종권에 대한 갈등의 역사였다.

94년 종단개혁은 서의현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정치적 쟁점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긴 했지만 '종권의 민주화, 불교의 자주화'라는 대중적 명분에 의한 민주적인 개혁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종단내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행정 합리화의 토양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혁종단이 개혁주체세력의 양성과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98년말 소위 정화개혁회의에 의해 폭력적으로 총무원이 점거당하는 사태를 유발했으며, 사태가 진정된지 10개월만에 불교도들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렸다.

유감스럽게도 종단과 불교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화 이후 반세기가 흘러가도록 사법부와 공권력에 의존해 정통성을 확보해 온 비자주적인 경향이 급기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한 종단의 무정부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사실은 종단 자주성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종단의 자주화가 위기에 빠진 역사를 반성하고 외부에서 종단을 음해하려는 어떠한 구실도 제공하지 않도록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종단의 내부적인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만이 오늘의 개혁종단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승가화합의 선거

조계종분규가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다음 달 15일 30대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계종분규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총무원장선거를 둘러싸고 종회내 그룹과 여러 문중 사이의 세력투기와 이합집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지도 모를 불협화음을 우려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해 고산스님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고산스님은 선거와 관련해 14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었다. 그러다 급히 기자간담회로 바꿨다가 끝내 입장발표를 미뤘다. 출마 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고심이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고산스님 뜻과는 무관하게 스님주위에서 내심 단일후보 추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고산스님 출마 반대론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재판에 패함으로써 이번 사태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1월 실시 예정이었던 총무원장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스님을 포함해 몇몇 스님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론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진다.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한 조계종 종헌·종법에도 경선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마냥 경쟁의 장일 수는 없다. 분규의 한 당사자인 정화회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2일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조계종을 바라보는 불자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단순히 총무원장을 뽑는 데 그치지 말고 한차원 나아가 승가화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종헌·종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승가의 품위를 잃지 않는 여법한 선거를 치러 불교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애정의 눈길로 바꾸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적지 않음을 조계종 승단에 전하고 싶다.

독자시

'삼보예찬'

부처님 부처님 우리 부처님
부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아니오셨던들
탐 진 치 고통의 바다를
어이 건너리요.

스승님 스승님 우리 스승님
스승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니계셨던들
가슴 가슴에 불성있음을
어이 알았으리요.

도반님 도반님 우리 도반님
도반님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가슴 가슴에 불성 불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육바라밀 공덕없이는 밝혀
쓸 수 없대요.

주인공 영원하신 님이여,
당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한생에 인간의 몸 받은 은혜는
이타자비 보살행으로
보은하오리다

설정수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

성 명 서

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계종단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종단을 이끌어가는 승가단체의 하나로서, 일반국민과 불자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서로 화합하고 대자비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에 힘써야 할 이 때에 종단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어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데에 대하여 불교를 따르는 사부대중 모두가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계종단 사태에 대하여 본 새불교승가회는 정부와 언론기관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사태를 단순히 이권을 둘러싼 완력다툼으로만 보도하고 있는 점과, 지난 12일 조계사에서 진행된 '범불교도(사부대중) 궐기대회'가 불교자주화와 사부대중 화합종단 실현을 염원하며 전국 일만오천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참가한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화개혁회의와 현 총무원간의 무력충돌만을 집요하게 확대하여 보도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이다. 게다가 일부 방송사가 작년사태에 있었던 폭력장면을 다시 편집하여 이번사태에 자료화면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기관이 불교의 불화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불구경'을 즐기거나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언론기관이 진정으로 조계종단의 사태를 걱정하고 조속한 해결과 화합을 바란다면, 지금과 같은 양측의 충돌장면만을 집중보도할 것이 아니라, 양편의 이유있는 항변과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 그리고 불교를 걱정하는 일반 불자들의 목소리들을 좀더 귀 기울였으면 한다.

최근 조계종단은 특히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한층 관심이 높아진 환경문제를 주목하고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정신문화유산에 심도있는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불교가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회정화사업은 축소보도되고 '폭력승만이 난무하는 조계종'으로 비춰지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그러한 연유로 이와같은 불미스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 조계종단의 일부승려임에는 틀림없으나, 불교 내부적 혼돈을 부추기고 조장하여 대덕고승들의 숭고한 행적을 흐리게하고, 정법을 수호하고 수행과 대중포교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스님과 건전한 불교세력의 존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는 불교음해세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조계종단 사부대중의 조속한 화합을 염원하고, 이번 사태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언론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족종교로서 뿌리깊게 자리한 한국불교의 위상을 뒤흔드는 일부 불순한 무리를 우리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불교중흥과 사회화합를 위하여 몰아낼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1. 현 조계종단의 사태를 여법하게 수습하여 종단의 화합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1. 불교의 참모습보다 불미스런 장면만을 확대하여 보도하는 언론기관의 편파보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민족종교로서 깊게 자리한 불교의 위상을 뒤흔들고자하는 일부 불교음해세력은 우리 이천만 불자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불교의 분열을 꾀하여 사회의 혼란과 불화합을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참회하라.
1. 불도를 따르는 우리 사부대중은 당면한 대사회적 대인류적 역할과 책임을 각성하고 회향할 수 있도록 정진 화합하자.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2천만 불자의 연대서명운동을 통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불기 2543년 10월 14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회원일동 합장

불교복지보건대학 강좌안내

불교의식(염불)강좌

복지염불회 제2기 교육생 모집

■강의내용 : 기초의식, 장엄염불
■대 상 :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
■교육과정 : 기초, 중급과정(속성반)
■개 강 일 : 1999년 10월 27일(수요일)
■강의기간 : 1999년 10월 27일~2000년 2월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7:00~9:00

생활참선특강 전 서울대 박희선 공학박사

피라밋좌법의로
온몸으로 기가 넘치고
알파 뇌파속에 예지가 빛난다.

80세고령(30년 이상 참선수행).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람! 생활참선을 통해 지금도 30대 못지않은 건강과체력, 정신력을 과시하는 **박희선박사**가 그 비법을 직접 전수한다.

■ 일 시: 1999년 11월 11일(목요일) 2회 실시
오후반: 1:00 ~ 5:00 저녁반: 6:00~ 10:00
■ 참가비: 5만원(단, 회원은 4만원)

※ 선착순마감합니다. ※

한국최고의 침구사 **김남수 원장 침과 뜸 강좌**

「뜸사랑」동문회 주최

「침과 뜸으로 승부한다」의 저자
김남수 원장은…

침과 뜸에는 중국과 일본의 명의들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고, 복지보건 봉사활동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참인술을 베푸시는 명인이십니다.

■첫 강 좌: 99년 11월 8일
■강좌기간: 99년11월8일~2000년 11월8일
■강의시간: 월,수요일 (오전10시~오후1:00시)
■강의내용: 기본과정및 실습, 심화과정(1년)
■접수마감: 99년 11월8일(월)

불교복지보건대학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협회 빌딩 6층)
■문의전화 : 051)647-6556

"무구정경 신라 경주제작 확실"

"제3장 3행 파자 '口丿'는 '照' 측천무후의 姓 피휘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낙양제작설은 잘못됐다"

- 김성수교수 주장 -



◇김성수 교수

한·중·일 삼국 가운데 인쇄술 기원국은 어디인가?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이하 무구정경)〉의 간행국은 한국인가 중국인가? 또 〈무구정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도서로 공인될 수 있을까?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로 추정되는 〈무구정경〉을 7년간 연구하며 '인쇄술 한국기원론'을 뒷받침할 사료와 자료를 수집·연구해온 김성수 교수(청주대 문헌정보학)가 19·20일 연세대 주최 '세계인쇄문화의 기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판지싱 교수(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이시즈카 하루미치 교수(북해도대학)등 중국과 일본의 대표 학자들과 '인쇄술 기원국'을 가리는 진검 승부를 자처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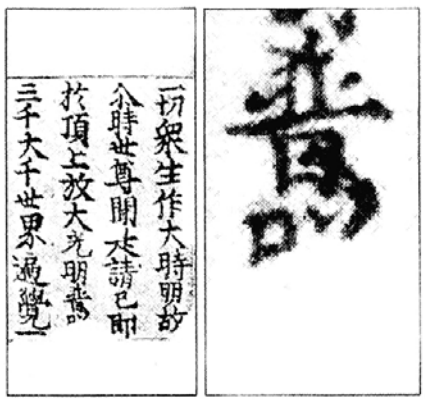
"〈무구정경〉 제3장 3행 마지막 파자(破字)인 '口丿'〈사진 참조〉는 '照'(조)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무구정경〉이 중국에서 7세기 초 제작됐다면, 여제 측천무후의 성(姓)을 사용했겠습니까"

김교수에 따르면 3행에 기록된 '大光明普口丿'는 고려대장경·초조대장경에서도 발견되는 '큰 광명을 넓게 비춘다'라는 글귀. 다시 말해 파자는 '비춘다'는 의미로, 북위시대에 사용된 '照'(조)자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예법이 기록문헌에서 황제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피휘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구정경〉이 702년 중국 낙양에서 제작된 뒤 신라로 건너갔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경〉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문헌으로,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인쇄 장소를 놓고 '경주설' '낙양설'로 대립해 왔다. 〈무구정경〉이 인쇄된 나라가 '인쇄술 기원국'일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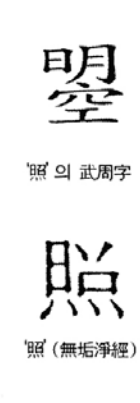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770년에 인쇄됐다는 기록이 있는 〈백만탑다라니〉가 최고(最古)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세계 서지학계에서는 〈무구정경〉 보다 시대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연세대 국학연구원(원장 남기심)은 "△제작 연대 △서체 △종이 △인쇄술 등 다각적인 논쟁이 한·중·일 학자들에 의해 진행됐지만 결국 기원국을 가리지 못했다"며 "〈무구정경〉의 파자 '口丿'로 인쇄 기원국 논쟁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3장 첫부분. 3행 하단의 口丿는 照(조)의 이체자인 '照'로 밝혀졌다.

'照'의 武周字



'照'(無垢淨經)

결국 김교수의 주장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증되면 〈무구정경〉이 7세기 초 신라 경주에서 제작됐다는게 확실해 진다.

김성수 교수는 "이 연구는 천혜봉·오옥진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배 학자들과의 공동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또 "심포지엄이 끝나는 대로 〈무구정경〉의 세계기록문화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위해 불국사, 국립박물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관학계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20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열리는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김성수교수 외에 박지선교수(용인대)가 '한국고대종이의 유물', 김수천교수(원광대)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미의식'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cou@buddhapia.com)

초의선사 추모공연 茶와 음악의 만남

24·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차(茶)와 음악의 만남. 청량한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푸른 빛의 차(茶)를 대하면 어떤 느낌일까.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라 불리는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음악회가 마련된다.

차를 주제로 다악공연을 펼치고 있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가 지난해에 이어 24·25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두번째 무대로 마련한 '그 푸른 날들의 찻잔, 초의(草衣)'(연출 홍원기)가 바로 그것. 김영동(前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씨 등 다섯명의 작곡가들이 모여 초의선사를 각기 다른 빛깔의 음악으로 연출한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차마시는 예식을 무대에서 실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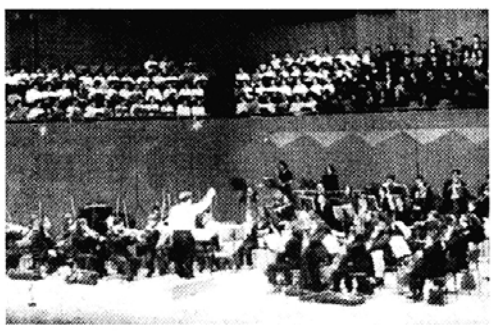
국립국악원 박일훈 연구실장이 작곡한 '동다송'을 연주할때는 초일향다회가 헌공다례를 보여주고 초의선사가 40여년간 주석했던 일지암을 조명한 '일지암'(김영동곡) 연주에서는 일지암스님인 증허스님이 출연해 차를 즐기던 초의선사의 풍모를 재현해 보여준다. 또 다악(茶樂)곡인 '일, 물, 빛'(이건용곡)과 '초당'(이종구곡) 등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차문화협회의 규방다례, 향기를 찾는 사람들의 차의 여신춤 등도 곁들여진다.



◇차향 가득한 '초일향' 다실에서 가야금 연주를 하고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초의선사와 다연을 맺었던 다산 정약용을 비롯 추사 김정희, 소치 허유 등을 되새기는 음악과 함께 헌다무, 묵화, 시낭송 등도 함께 펼쳐진다.

다악(茶樂) 공연인 '그 푸른 …'은 30일 오후7시30분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는 초의문화제 행사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02)2261-3456 김주일 기자



◇26일 미술제를 시작으로 음악제·영화제·학술제가 11월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음악제.

종교화합의 새천년 준비

제3회 종교예술제 26일부터 예술의전당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각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26일 오후5시 주요 종교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술제를 시작으로 음악제·영화제·학술제 등이 11월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미술제는 한국화를 비롯 동양화, 서양화 회화와 조각, 서예 등 110여점이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주관하는 음악제는 26일 오후7시30분부터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돔앙상블과 단국대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소프라노 이경애씨, 가야금병창 윤소인씨 등이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진도아리랑' 등을 열창하며 3백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가고파' '청산에 살리라' 등을 부른다.

매일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2차례에 걸쳐 상영하는 영화제 기간에는 불교경화인 박철수감독의 '오세암'과 임권택감독의 '개벽' 등이 한국영상자료원 시사실에서 상영된다. 학술세미나는 11월2일 오후2시 '전통사상과 한국종교' '새천년 새문화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열린다. (02)739-1830

선승이 그린 진경산수 '감상'

적산스님 첫 작품전 27일부터 공평아트센터

산행을 하며 자연과의 묵시적인 대화를 남몰래 속삭여온 선승이 그린 '진경산수'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진경의 상(像)을 옮기려는 욕심조차 버린 선승의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적산스님(인천 보각선원)이 27일부터 11월2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첫 작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산스님은 '소승폭포' '청산별곡' '상념의 뿌리' 등 100여점의 대작과 20호 크기의 30여점등 한국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산사를 소재로 그린 수묵채색화를 선보인다.

적산스님은 이들 작품을 통해 20년간 독학으로 완성해 온 원형적 조형언어로, 오랫동안 친숙해온 작품처럼 정감이 가고 시정이 솟는 진경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모두 현장에서 사생하여 완성한 진경산수들이지만 그림과 매치된 이미지나 메타포를 설정하여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명제를 붙이고 있는 것이 기발하고 흥미롭다. 특히 ㅈ의 완벽에 가까운 화면의 공간분할과 구성과 설채(設彩), 또 섬세한면서도 생생한 필선은 원숙의 경지에 가 있는 적산스님의 예술세계를 발견케 한다.



◇적산스님作 토굴.

이번 전시회에서는 달마상 그리고 서예로 완성한 병풍과 현판 10여 점도 감상할 수 있다.

적산스님은 "그림을 그리는 작화(作畵)가 바로 수도와 기도요, 자신을 완성하는 적공(積功)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02)733-9512 오종욱 기자

2000년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문화부, 5월인물에 진감국사



◇진감국사진영, 쌍계사 소장.

문화관광부는 신라 고승 진감국사(774~850)를 비롯 '2000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발표했다.

5월의 문화인물인 진감국사는 신라말 고승으로 불교음악인 범패를 최초로 도입한 스님. 전주 금마(지금의 익산)에서 774년 태어난 스님은 804년 당나라 신감대사를 만나 계를 받았다. 그후 귀국하여 지리산 옥천사에 주석하며 불법을 펼쳤고, 850년 쌍계사에서 입적했다. 스님의 부도비인 대공탑비(국보 제47호)가 쌍계사에 남아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남궁억(1월),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2월), 실학자 김육(3월), 유학자 서경덕(4월), 근대 음악가 하규일(6월), 한학자 정인보(7월), 독립운동가 김좌진(8월), 참여파 시인 김수영(9월), 국어학자 유희(10월), 궁중무용가 김창하(11월), 근대 화가 장승업(12월) 등이 각각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선정된 문화인물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인물별 선양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 문화인물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해당인물과 관련된 학회·기념사업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모행사 등 각종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신

백담사 거리시화전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 있는 만해 한용운 기념관 앞마당에서 16일~24일 '거리시화전'이 열린다.

거리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신향)가 주최하는 이 시화전에는 미당 서정주씨를 비롯해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신경림씨, 윤종혁·박남권·오정진씨 등 1백 여명의 시인이 작품을 전시한다.

거리문화제위원회는 인제에서 활동중인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발족, 시화전을 개최해왔다. (0365)461-3437

금산사서 열린음악회

개산 14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는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개산대제 사전행사로 22일 오후 7시 금산사 경내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린음악회는 KBS-TV에서 31일 오후 6시 40분 방영된다. (0658)548~4440.



청광화백 달마도(大,小)

불교카렌다전문제작업체
가야기획
서울·종로구 견지동 110-42 청송B/D201호
제작 문의 전화(02)732-2461~2
팩스(02)732-2462
카렌다 가맹점및 주문사원 모집중

365일 불심으로 생활합니다.
불심 가득한 원고와 질좋은 제품이 귀 사찰의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야불교달력
*** 품질만족 · 가격만족 · 서비스만족 ***



연화의향기 (大,小)



북한의명찰 (大,小)



심향 (大,小)



불리심 (大,小)

저희 가야기획은 불교카렌다 전문 제작업체로서 귀사찰의 이미지에 부합된 다양한 원고사용과 불자님의 취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적절한 규격등 타 제품과의 차별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높으신 안목으로 사용된 원고의 작품수준과 가야 제품의 질을 확인 하시고 선택 하십시요.



팔상도(大)



한국의마애불(大)



부처님의성지(大)



용(大)



한국의탑(小)



동자요람(小)

가까운 판매 가맹점(불교용품점)에서 주문 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견지동)길상원(02)722-4435,동일불교사 (02)722-9195,불서보급사(02)732-2829,불교서적사(02)732-8086,제일표구사(02)735-0918,연화사(02)733-7609,(강동)성인만물(02)487-8834,(강서)강서만물(02)604-7766,(구로)세운만물(02)864-1961,(답십리)대국불교전시관(02)2246-3471,(청화동)청진만물(02)661-3261,(상계동)동원만물(02)3391-4780,상계만물(02)936-0669,(제기동)경동불교(02)965-8276,(중랑)승강불교(02)496-3778,(풍납동)옹궁불교(02)474-4466■부산 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부산불교전시관(051)647-7393,동방불교(051)464-1941,반야원(051)632-1470,관음불교(051)807-6265,불광불교사(051)525-7450,종합불교사(051)816-2926,해동불교사(051)337-6386 ■인천,경기(인천)극동만물사(032)765-0413,태극만물사(032)883-1339,현대만물사(032)762-9381,(부평)부평만물사(032)512-8877,종로만물사(032)516-8434,(강화)강화만물(032)933-0647,(김포)김포만물사(0341)982-0013,(구리)구리만물(0346)563-7554,(동두천)동두천만물(0351)865-6284,(부천)부천만물(032)656-0365,아리랑만물사(032)666-2227,원미불교사(032)656-8562,(성남)중앙고려만물(0342)751-0811,민속만물(0342)722-3369,(송탄)송탄만물(0333)662-0731,팔달만물(0333)665-6627,(수원)역전만물사(0331)247-7884,(안산)민속만물(0345)495-4848,(안성)관음불교사(0334)676-4828,(안양)일심불교사(0343)447-5685,(일산)금촌만물(0348)943-1363,(의정부)삼보불교사(0351)856-1020,의정부불교사(0351)842-8671,(용인)성원불교만물(0335)336-0337,(평택)원아불교사(0333)657-2300,(하남)신장만물사(0347)793-6139 ■강원도 (강릉)동해불교(0391)643-4058,(삼척)보문불교(0397)574-3971,(속초)광영불교(0392)631-7907,(원주)성심불교사(0371)742-3745,(태백)보성만물(0395)552-5323,(홍천)마하불교사(0366)434-8446 ■충북(청주)청주만물(0431)258-4226,(음성)백호만물(0446)883-6724,(제천)제천불교(0443-)645-7517■대전,충남 도솔천불교(042)585-2278,대구승복사(042)254-8776,백제불교(042)253-9907,보문불교서점(042)257-0161,(공주)백제불교(0416)855-5621,(공천)광천만물(0451)641-2073,(논산)법탐불교(0461)735-4045,연화불교(0461)736-4163,(보령)광성만물(0452)935-5175,(부여)부여반야만물(0463)835-2733,(서산)서산만물(0455)665-5136,(온양)민속만물(0418)545-4868,(조치원)현우불교(0415)865-0549,(천안)고려불교(0417)562-5952,충남불교(0417)557-3360,(청양)연희부만물(0454)943-5968,(홍성)홍성만물(0451)633-0762 ■대구,경북 대일불교(053)426-7486,보광불기사(053)254-4496,보현불기사(053)252-7005,봉은승복사(053)421-5451,부용당(053)321-4612,보광불기사(053)254-4496,(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6)455-1068,(경주)불교서점(0561)749-1580,(김천)대산불교(0547)432-5863,(포항)만덕불교(0562)241-2402 ■경남(김해)금강불교사(0525)337-5170,일광불교사(0525)325-0780,(밀양)밀양불교사(0527)355-5742,부용불교사(0527)352-3756,(마산)마산불교전시관(0551)255-6678,(진해)진해불교사(0553)545-6320,(거제)고현불교사(0558)633-2327 ■전북 (전주)조화불교사(0652)284-4396,(군산)원각만물(0654)446-1638,(익산)이리유기(0653)855-3883 ■광주,전남 김천유기(062)363-5219,만연유기(062)226-7786,호남혼구사(062)366-4917,(순천)대원불교(0661)743-6755,(여수)이화불교사(0662)643-7533 ■제주도 불교종합전시관(064)722-4878

원효설화서 배우는 화합의 지혜

오대혁씨 '원효설화의 미학'

금석문 · 僧傳등 자료 샅샅이 뒤져 탄생-고행-오도등 서사구조로 정리

사찰을 찾을 때면 원효스님이 창건했다는 이야기와 인연담을 자주 듣게 된다. 왜 그런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국문학자 오대혁씨가 펴낸 〈원효설화의 미학〉(불교춘추사 刊)은 원효스님과 관련된 설화를 집성하고, 잃어버린 정서와 미학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살핀 책이다. 이 책은 1300년 동안 전해져 오는 원효스님의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금석문, 승전(僧傳)에서부터 사지(寺誌), 지방지, 현전 구비설화까지 기존의 연구자료에 수십편의 설화를 발굴 수록하고, 번역 · 주석까지 달았다. 이 가운데 '분황사 원효성사에 대한 제문' '용문사 용문사 전설' 등 52편의 설화를 부록으로 실어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효스님에 대해 피상적 부분적으로 접근해 왔던 여러가지 서적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하나의 특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별 설화들을 모아 탄생, 고행, 오도 등의 일정한 서사구조로 전승의 양상을 도표화하여 변천사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 고행과 오도, 파계와 해탈, 대중교화행 설화, 〈금강삼매경론〉의 찬술, 창사 · 사명유래 설화, 관음보살과의 만남, 이적(異蹟)설화, 영원한 삶과 시적(示寂) 등 여덟 유형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낱낱이 살피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높였다.

이 책은 원효스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설화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그의 행적이나 인물상을 밝히는데 안주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음직한 원효스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온 경로를 추적해 원효스님이 말하고자 했던 '일심사상' 등 스님의 불교사상을 밀도 있게 풀이하고 있다.

불교용어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일반적인 불교설화의 특성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을 준다.

저자는 원효설화의 수용의식에서 불교설화들의 형성과 변천을 사적으로 정리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집중적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란 무엇이며, 미적 특질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미적 특질이 분별과 차별의 세계를 넘어선 통일과 화합을 지향하는 실천행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원효설화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저자의 주된 요지다.

〈원효설화의 미학〉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풍성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원효설화가 지향한 진리가 차이와 차별을 지양한 통일과 화합, 그리고 부단한 실천에 있음을 잠정적 결론으로 삼았다"며 "인종 민족 환경 전쟁 등 엄존하는 차별과 분별의 세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원효설화는 우리에게 해답을 찾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교저널' 10월호



'침몰하는 불교텔레비전' '재가불교와 신도교육'과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태국 · 일본 불교' 등 국내외 불교계 주요 현안들을 심층 조명한 불교저널 10월호가 나왔다.

'침몰하는 불교텔레비전'에서는 개국 준비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더 이상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없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또 '재가불교와 신도교육'이란 주제로 목정배(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 강건기(전북대학교 철학과)교수의 대담을 통해 기존의 재가불교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교운동이 일어나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해외 불교특집으로 최근 러시아 불교계의 인터넷이 전한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인용, 러시아 불교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비중있게 싣고 있다. 이밖에도 '21세기 군포교의 나아갈 방향' '불교문화재의 수난 그 실상과 대책' '연기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라' 등이 수록돼 있다.

'불광' 300호 특집



1974년 11월 창간한 월간 〈불광〉이 10월로 300호를 발행했다.

이번 특집호에는 정련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덕스님(자비의 전화 회장), 이남덕 교수(이화여대), 김현준 원장(불교신행연구원) 등이 참석한 300호 발행 기념 특별좌담 '불교 어떻게 믿고 행할 것인가'를 수록, 실천적 보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간 불광 25주년 그 흐름을 찾아서는 김재영 법사(청보리회)가 '혼돈 속의 한 줄기 녹색 신호등'으로 불광의 역사의식과 창간 의미를 규정했다.

월간 〈불광〉은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며, 부처님 말씀과 선지식들의 사자후를 오늘의 언어로 전하고 있다.

'불교와 문화' 가을호



불서 번역의 문제를 특집으로 심도깊게 다룬 계간 〈불교와 문화〉 가을호가 나왔다.

불전 번역과 한역경전의 한글번역 문제점과 팔리어 원전 번역이 한역경전 번역보다 좀더 원전에 가깝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이번 특집은 △불전 번역과 우리의 현실-법장스님(백양사 강원 강사) △불경 번역오류의 예와 대안-조현춘 교수(경북대) △불교계 번역의 문제와 제도적 과제-김은중 강사(연세대) △〈불경〉 프로젝트 시급하다-진현종(자유기고가) 등이다.

교계 진단 코너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취약한 불교 만화영화의 현재를 '철인 사천왕'을 제작한 김혁 감독이 과감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민속학자 주강현씨의 '불교와 풍속의 사회사 걸립승 편'은 '유랑집단과 불교의 사회풍속사'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만 남회근翁 '금강경 강의'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



대만 총통의 국사를 역임한 불교계 원로 남회근씨(81)의 〈금강경 강의〉(문예 刊)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980년 대만 십방서원에서 철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 불교학자 등을 대상으로 행한 〈금강경〉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이에 맞는 옛이야기 및 문학작품의 내용까지 곁들여, 석가모니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여행다니는 기분이 들게한다. 특히 술술 풀어가는 저자 특유의 재담이 일반인들에게도 무리없이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와의 대화를 마치 연극대본처럼 실감나게 설명하고, 광범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심화시켜주고 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번뇌와 분별심을 끊음으로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대의까지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신원봉씨는 "여러차례 정독하면서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며 "〈금강경〉을 이해하는 훌륭한 지침서"라고 평했다. 값 2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2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3	불교입문	조계종출판부	조계종출판사
4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풍경	원 성	이 레
7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이 남 덕	불 광
8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9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10	육조단경	광 덕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참선하는 이는 첫째로 무상함이 덧없이 빠르고 나고 죽는 일이 큰 것임을 두려워해야 한다.(경허스님의 '진흙소의 울음' 중에서)

선사들의 짧은 법어 한마디는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단박에 중생을 깨우친다. 도서출판 솔과학이 펴낸 〈영혼은 바람처럼 삶은 강물처럼〉은 우리나라 선사들의 법문집. 경허스님의 '진흙소의 울음' 만공스님의 '유어(遺語)' 등 13선사들의 대표적인 법어 42편을 담았다.

큰스님 13인의 법문집 '영혼은 바람처럼…'

오늘과 같은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선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출판사측은 "미래나 현재나 과거나 모두 참다운 인생, 나를 찾는 인생, 바로 참 나를 깨닫는 목표를 두며 올바른 삶을 중시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사를 서로 진리와 사랑과 믿음에 초점을 맞춰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큰스님들의 법문집을 내놓게 됐다"고 출간의도를 밝혔다. 값 7천원.

詩로 적은 구도열

지공스님 시집 '그 눈에 눈물이…'

시인으로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지공스님이 시집 〈그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마음에 무지개가 없다〉(동해 刊)를 펴냈다.

스님에게 있어 '시(詩)'는 하나의 수행이며 번뇌를 끊고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통로다.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도열을 모두 98편의 시에 담았다. 값 5천원.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접수

문화관광부는 역사 종교 철학 문학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도서를 뽑는 '제32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98년 9월1일부터 99년 8월31일 발행된 책이며 접수는 30일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받는다. (02)735-2703~4



〈숲속의 방〉으로 86년 제6회 녹원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강석경씨(49)가 2년만에 신작소설 〈내 안의 깊은 계단〉(창작과 비평사 刊)을 내놓았다.

인도에서 귀국해 94

강석경씨 신작소설 '내안의 깊은 계단'

년부터 천년고도 경주에 살면서 고분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았다. 이번 소설은 삶과 죽음의 순환, 강처럼 유장한 인생 그리고 그것과 얽어지는 사랑얘기다. 30대가 어떤 정신적 방황과 사랑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느 연애소설과 달리 읽어내기가 만만찮은 이번 소설에서 작가는 인연으로 얽힌 4명의 주인공들을 통해 욕망만을 뒤쫓는 남녀관계와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그것들은' 어떻게 부대낄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소멸과 재생이 되풀이되는 윤회하는 삶의 기나긴 길을,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듯 고고학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값 7천5백원.

해외신간

▲깨달음의 경영=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터. 이곳을 경쟁보다는 이해, 반목보다는 타협이 가득한 곳으로 가꿀 수는 없을까? 여기에 해답을 찾고 싶은 불자라면 아콩 린포체의 〈깨달음의 경영(Enlightened Management:Bringing Buddhist Principles to Work)〉을 읽어봄직 하다. 이 책은 티벳불교의 명상법 가운데 일터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불자들에게 유익하다.

Inner Traditions Intl Ltd 발간 ISBN: 089281876X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라= "현대에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명상이 더 필요하다" 정숙과 침묵을 따른 기존의 명상에 반기를 든 스티브 헤리슨의 신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라(Getting to Where You Are : The Life of Meditation)〉가 美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 순간의 삶 속에서의 '존재 인식'과 '깨달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헤리슨은 "명상은 교리와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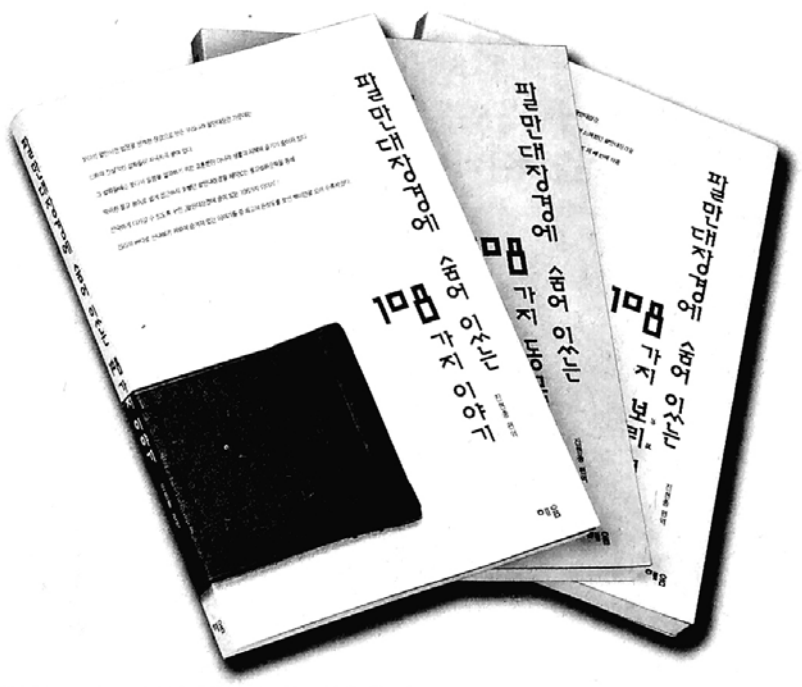
J.P Tarcher 발간 ISBN: 0874779820

▲하루 한 구절= 2천5백년동안 불자들이 애독해온 〈법구경〉을 새롭게 색인, 포켓용 경전으로 엮은 〈하루 한 귀절(Reflections of Buddha for Every Day)〉이 발간됐다. 미국에서 대중적인 명상 지도자 데이비드 크로스웰이 발간한 이 책은 법구경 내용을 분석,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마음챙김(正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전으로 영어를 익히고 싶은 국내 불자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다.

Journey Editions 발간 ISBN: 1885203861

혜움은 '생각'이라는 우리나라의 옛말입니다. (Tel 02- 322-8422)

"이솝 우화보다 쉽고,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우화 '팔만대장경'



팔만 대장경 시리즈 1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팔만 대장경 시리즈 2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동물 이야기
팔만 대장경 시리즈 3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보리 이야기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팔만대장경을
재미난 이야기 형식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팔만대장경 시리즈'

700년에 걸친 완벽한 보존의 신비를 가진 팔만대장경.
누구나 그 속에는 어려운 불경 이야기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영리한 이리, 바보 같은 사냥꾼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팔만대장경을 펼치면 바로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재미있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이제 숨겨져 있던 세상의 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현종 편역 각권 값 7,800원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도서출판 혜움 서울시마포구 성산1동 58-7 Tel 02-322-8422 Fax 02-322-8784)

"불교 행상의식 공동체 축제"
"고조선 건국신화 불교 영향"

동아시아 비교문화 국제회의 '동아시아의 불교문화'

한·중·일 학자 2백명 참가
'대장경 왕래…' 등 논문 19편 발표

한중일 세 나라의 전공학자 200여명이 참가하여 만든 국제학술모임인 동아시아비교문화국제회의의 제4회 학술회의가 '동아시아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15일~1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96년 창립이후 매해 중국 일본 등을 돌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 비교문화국제회의의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중일 고승전의 비교, 월남의 불교, 동아시아의 미륵사상, 대장경 왕래의 문화사적 의의 등 19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불교 행상의식(行像儀式)과 가두연희-강춘애 강사(동국대): 사원은 민간의 음악 및 산악백희(散樂百戱)를 불사활동에 동원했고 극장의 역할을 겸비했다. 불교는 일찍이 극장으로 불릴만큼 많은 종교행사와 함께 절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불교의 세시풍속에 음악 연극 잡기 등 민간의 연희와 함께 영신새사(迎神賽社) 활동에도 참가했다. 불상을 보거(寶車)에 태우고 도시의 거리를 순행하는 의식으로 백희연출을 곁들여 불상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며 불교사상을 형상화해 선양하고자 한 '행상의식'이 우리나라에는 육불의식으로 대치된 이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의식과 제의가 바로 연극문화의 핵을 이루고 있던 중세의 문화풍토에서 가두연희 즉 퍼레이드는 치귀문화(治鬼文化)놀이의 대변으로 관중의 신앙심과 함께 공동체적 축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또 부처님 오신날 전국사찰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가두행렬이야말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전승돼온 행상의식의 형태이다. 행상의식을 참조해 보다 많은 전통 연희와 장엄물 산거(山車)와 같은 무대의 복원 등이 재현되길 기대한다.

◇불교의 동진(東進)과 신화의 변용-동아시아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조현설 강사(동국대): 한국의 경우 불교의 영향을 받은 신화는 고조선 건국신화 뿐이다. 환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스크리트어 Sakrodevendra를 음역한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에서 온 것이어서 그 안에 이미 불교적 의미가 부여돼 있었다. 본래 고유의 천신이었을 환인의 자리가 불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격인 제석천으로 대체된 것은 고조선 건국신화의 불교적 변용의 양태다. 고조선 신화는 신라에 의한 통일 이후 형성된 삼한일통이라는 정신사적 흐름 안에서 고조선이 부각되면서 통일이 불력의 소산이라는 승려들의 이념이 투사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 위에서 고조선의 신화가 불교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무교의 천신이 불교의 제석천으로 교체돼 재구성됐다.

◇고려시대 시(詩)에 나타난 '연(蓮)'의 일고찰-박미자 교수(일본 옹본대): 고려시대 시문에 나타나는 연꽃은 백색 청색 홍색 등이지만 중국의 시문에 보이는 '백련' 같은 꽃은 없다. 다만 중국 남북조 시대의 혜원이 조직한 결사인 '백련사'를 의미하거나 혜에 청련이 자란다고 말한다든지 사원에서 화려한 홍련을 그린다는 등의 상징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꽃의 색깔에 구애받기보다 불교적 청정함의 상징인 연꽃의 본질을 중시했던 고려 문인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고려 이색 이규보 등의 문인들이 연꽃을 선심(禪心)인 청아함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선심인 연을 통해서 번거로운 속세에 있더라도 맑게 사는 것을 바라며 연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발 표 자	논 문 제 목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동아시아의 화엄신앙과 사상 형성기 교류를 중심으로
응우엔 트롱 교수(베트남 하노이대)	월남의 불교
정천구 강사(서울대)	한중일 고승전의 비교
강덕희 교수(일본 상지대)	한국사원의 벽화
장철준 교수(중국 북경사대)	산수의상의 유미성과 불교
지광스님(능인선원 주지)	한국불교의 현실과 동아시아
카타지마 유수케 교수(일본 명성대)	한중일 삼국의 '연(緣)'
고승길 교수(중앙대)	한국 시지무의 원류
공붕정 교장(대만 불광대 남화학원)	사원의 조직과 관리의 변화
山田直己 교수(일본 성성대)	동아시아의 미륵사상
山口敎史 교수(일본 구주 대곡대)	선주(善珠) 〈본원악사경 소〉에 대하여
인권환 교수(고려대)	중세 한중일 '시선일여론(詩禪一如論)' 서설
홍기삼 교수(동국대)	불교문학의 2방향
탕일개 교수(중국 북경대)	도가중현학건립에 대한 남북조불교의 의의
김양기 교수(일본 상업대)	한일의 장송의례(葬送儀禮)와 불교
조동일 교수(서울대)	대장경 왕래의 문화사적 의의

"정도전의 불교교리 비난은 인과론 제대로 몰랐기 때문"

허정희씨 '인과론에 대한 유불대론' 발표



◇종교학회 불교분과 제6차 월례발표회가 9일 승가대에서 열렸다.

"정도전은 〈불씨잡변〉에서 인과법을 부정하고 유교의 음양오행설을 설하고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인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 제6차 월례발표회에서 '인과론에 대한 유불대론-함허와 정도전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허정희 강사(동국대)는 유불사상이 대립하던 조선초 함허스님과 정도전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인과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착안, 둘의 인과론에 대한 의견을 비교분석했다. 허 강사의 비교에 의하면 업과 윤회, 내세관을 설명하는 불교의 인과론은 윤회를 통한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데 정도전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인과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윤회에 대한 정도전과 함허의 차이는 첫째 삼봉이 유교의 음양과 혼백설을 들어 정신사멸설을 주장한 반면 함허당은 불교의 진여심을 내세워 정신불멸 전개, 둘째 삼봉은 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의청탁 후발설을 가지고 심라만상의 참차부제를 설명했지만 함허당은 법신불멸과 업감을 가지고 삼세인과 죄복보응이 거짓이 아님을 설파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또 아쯔지 연구원(동양대 동양학연구소)은 '화엄의 증도의'를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진각종 제1회 논문대상 수상작 6편 선정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논문 중간 평가작업으로 제1회 진각논문대상 발표회를 14일 통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응모한 30여편의 논문 가운데 '초기불교와 요가수트라의 선정관에 대한 비교연구'(임승택), '나가르주나의 논리에 있어서 성언량의 필연성 여부에 대한 고찰'(강종원), '조선 후기에 간행된 다라니경과 진언집에 대한 연구'(남희숙), '인도불탑에 담긴 상징성에 관한 연구'(권기현), '적호의 진실강요에 나타난 세계기원론 비판'(김성관), '아비달마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강명희) 등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학술단신

24일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

낙산사(주지 지흥)와 불교춘추사는 제1회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를 24일 오전 10시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의상의 관음신앙과 낙산사'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는 의상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조명하는 첫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학술회의에는 민영규 교수(연세대)의 '의상의 생애와 선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의상전의 사상-김지견 원장(대한전통불교연구원) ▲의상의 화엄사상-정병삼 교수(숙명여대) ▲해인삼매를 통해 본 지엄의 사상-정순일 교수(원광대) ▲낙산사 홍련암과 불긍거관음전-조영록 교수(동국대) ▲법계도기 텍스트의 문제-사또(일본사학자) ▲의상대사 창건사찰에 나타난 용신앙-조용헌 강사(원광대) ▲소리로 깨닫는 의상의 관음신앙-최석환(불교춘추 발행인) ▲낙산사와 범일-최현식 법사(낙산사) ▲낙산사의 관음신앙과 보타락은 한 뿌리-게잉스님(중국 보제사 주지) 등이 발표된다.

능인불교硏 창립학술회의

능인불교연구소는 '불교 신행의 이해'를 주제로 창립 학술회의를 28일 오후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윤원철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학술회의는 '불교의 명상수련'(심재룡), '윤회'(정승석), '선과 정토사상'(신규탁) 등이 발표된다. 논평은 서정현 교수(서울대), 박경준 교수(동국대),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맡는다.

보조사상硏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3일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제23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발표회에서 조준호 박사(인도 델리대)는 '불교의 기원과 우파니샤드 철학-불교는 우파니샤드철학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미국불교계 호스피스

아미타 호스피스등 홈페이지 7개
자원봉사 훈련·에이즈 정보등 제공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한국불교계가 장묘영가천도 등으로 인간의 죽음에 다가선 반면 미국불교계는 편안한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Hospice)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미국불교계 호스피스는 총 7곳. 이중 아미타 호스피스(Amitabha Hospice Service), 선(禪)호스피스(The Zen Hospice Project)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미타 호스피스는 불교적인 관점과 방편으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샌프란시스코 불교계가 1987년 호스피스 사업을 전개하면서 만든 비영리 법인으로 자원봉사자 훈련, 유관 단체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계적인 호스피스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문헌정보'에는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뉴스레터 '패러다임(Paradigms Magazine)'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환자들의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부처의 죽음'도 미국 불교인들의 에이즈에 관련한 봉사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불자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전통에 기반을 둔 불자와 불교단체들이 에이즈 예방과 치료, 환자들에 대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이즈바이러스(HIV)와 에이즈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에이즈 환자들(PWA)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맥리건(52)은 "우리의 수행은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을 돌보는 것이며 에이즈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우리의 호스피스 활동은 일상의 수행일 뿐"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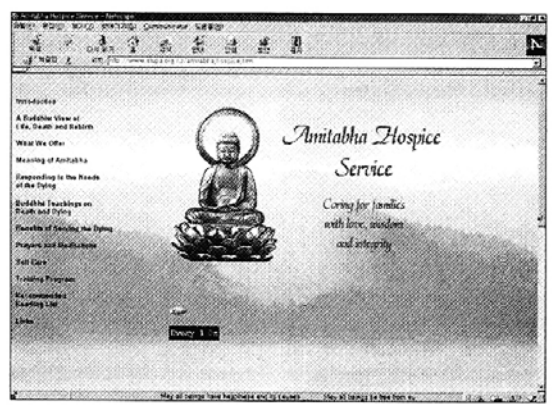
에이즈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도시빈민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어서도 정상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바로 진정한 신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뉴욕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구호하는 △The White Plum Buddhist AIDS Network, 로스앤젤레스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The Buddhist Aids Project, 뉴욕에 거주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주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Greyston Health Services, 메릴랜드의 닝마파 티벳사원에서 살고있는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의 수행·치료를 소개하는 △Kunzang Palyul Choling 등이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mitabha hospice service http://www.stupa.org.nz/amitabha.hospice.htm

△The Zen Hospice Project http://www.libertynet.org/rhd/Paradigms/Paradigms2/zen.html



일본오사카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 불교 성지순례단 모집

● 일본 오사카 소재 최대규모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 및 점안법회 봉행
● 일본 불교 유명사찰 성지순례 참배 행사 개최

"일본에서 최대규모로 조성된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법회 동참과 더불어 일본 불교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의 행지를 넓혀 가도록 정성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 시 는 글-

귀의 삼보 하옵고.
일본은 우리나라 불교와 같은 대승불교권의 불교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국가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서로 담사와 교류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일본내에 한국사찰 건립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있기에 일본 오사카에 **한국사찰 관음사(주지 : 원연)**가 한국 스님의 원력에 의해 조성되어 오는 12월 5일 성대히 낙성법회를 갖습니다.
이에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주최하고 **(주)로얄관광**에서 주관 협력하여 불교계 원로급 증명법사님을 모시고 일반 불자님들과 함께 본 법회참례와 아울러 **일본 불교 유명사찰 성지순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본 행사에 여러 불자님들을 정성껏 모시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로급 초청인사**
강석주 큰스님(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고문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이법홍 큰스님(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총재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체벽암 큰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전종정, 신원사 조실)
배일공 큰스님(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황진경 큰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박도암 큰스님(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신인왕 큰스님(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정)
오정묵 큰스님(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회장)
신묘봉 큰스님(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박지일 대법사(한국불교법사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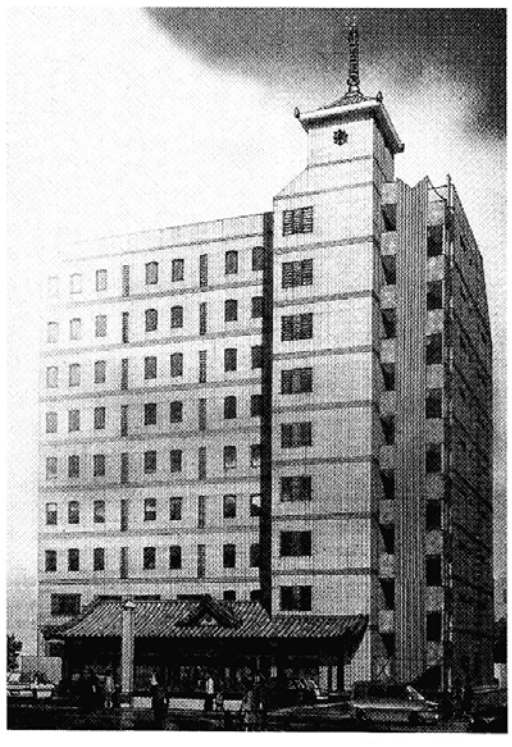
성지순례 안내

날 짜	도 시	세 부 일 정
제1일 12월 3일 (金)	서 울 오사카 교 토	김포(부산 김해)공항 출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동대사, 사슴공원, 법륭사
제2일 12월4일 (土)	교 토	금각사, 청수사, 광륭사 등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소장)
제3일 12월 5일 (日)	오사카	공식일정 오사카 관음사(낙성 및 점안법회 참석)
제4일 12월 6일 (月)	오사카 서 울	사천왕사,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서울 김포(부산 김해)공항 도착

■ 일 정 : 1999년 12월 3일 ~ 6일 (3박 4일)
■ 목 적 지 : 오사카 관음사 및 유명사찰 성지순례
■ 동 참 비 : 1인당 98만원(신청금 20만원 포함)
■ 접수마감 : 1999년 11월 10일 까지

문의 및 접수처
■ 서울 : 한국불교법사대학 ☎ (02)720-1836, 733-1959 FAX 737-5305
■ 청주 : (주)로얄관광 ☎ (0431)222-3331, FAX 222-3615
■ 원주 : 관음손 ☎ (0371)731-1617, HP 011-378-8535
■ 충주 : (주)로얄관광 ☎ (0441)848-6999, FAX 848-7010
■ 한국불교법사대학 :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 주최 : 한국불교법사대학
■ 주관 : (주)로얄관광
■ 후원 : 법사불교신문
■ 협찬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 관음사 문화회관 전경 ◆

"모든 중생 성불할 수 있다"

법화경 ①

글쓴이



이 기 운
〈동국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37

가르침 종합 '敎觀 正法' 체계 완성
육바라밀 수행 삼매체득 나타내

법화경 만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애독되어진 경전도 드물 것이다. 일찍이 삼론법상 화엄종의 학자 선사에 이르기까지 두루 이 경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내놓았고 마침내 중국에서는 천태가(天台家)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마도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이경은 기존의 경전들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화해하고 종합하여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정법체계를 완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승 대승 연각 성문 보살의 사상을 방편과 진실이라는 조화의 틀 위에 교학적으로 체계화하고, 기존의 수행법인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수행법을 선정삼매(禪定三昧) 체득의 수행으로 체계화하여 바야흐로 교관(敎觀)이 겸비된 경전이다. 그래서 역경가들은 이 경을 '정법화(정법을 설하는 경), 방등법화(방등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 묘법화(묘법을 설하는 경)'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법화경의 선정사상은 관(觀)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경에서는 삼매행으로 설하고 있는 것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이른바 깨달음이란 제법 실상이라는 우주만물의 진실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니 이는 불지를 얻어야만 체득되는 경계이므로 보통 대승의 몰록 깨닫는(대승돈각) 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상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하근기 나아가서 일체중생에게도 근기를 성숙시켜 성불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경의 특징이 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불지는 무량의처삼매속에 들어 부처의 세계 불지견을 열어보이고(開示) 그 불지견에 깨달아 들어가는(悟入) 갖가지 삼매행이 묘음보살행, 약왕보살행, 관음보살행, 보현보살행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의 선정수행은 주로 육바라밀의 선정이 설해진다. 이와같은 선정사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북제의 혜문(慧文) 혜사(慧思, 514~577)등의 선사(禪師)가 선정을 닦다가 법화경을 애독하게 되었고, 이어 천태대사(538~597)도 선정에 들어 법화삼매를 깨달아 개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설잠(雪岑, 속명 김시습 1435~1493)은 〈연경별찬〉에서 '이 경에는 선가(禪家)의 뜻이 들어 있다'고 하는 등 법화경에서는 선정의 깨달음이 크게 중시된다.

현재 유통되는 법화경은 한역본으로는 축법호(竺法護)역의 〈정법화경(正法華經)〉, 구마라집(鳩摩羅什)역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그리고 사나급다(闍那笈多)역의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의 세 본이 있는데, 이중 구마라집본의 묘법연화경이 비교적 쉬운 문장으로 법화경의 뜻을 잘 나타냈다고 평가되어 법화경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사용되어 왔다. 법화경의 범본 원전은 11세기 이전 필사본과 그밖의 단편적인 범본들이 전해오던 것을 모아 범어 원본을 복원한 범본 법화경이 있다.

법화경에서 얻는 깨달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승(성문 연각)도 성불할 수 있다는 이승작불(二乘作佛)사상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구원겁전에서 성불했다는 구원실성(久遠實成)사상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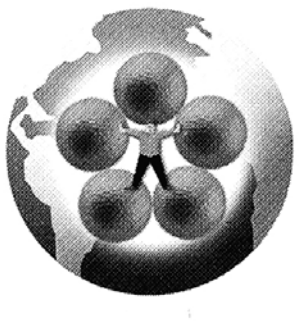
첫째, 방편품을 중심으로 한 법화경 전반부에서는 제법실상을 십여시(十如是)로 설하여 모든 중생이 동등하게 법계의 실상을 갖추고 있다는 일승 묘법이 밝혀져 있는데 이와같은 입장에서 볼때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까지 무상과 공에 집착하여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비난 받았던 이승, 여인, 악인마저도 부처님의 자비방편과 진실의 지혜에 의하여 수기받아 장차 성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한 본 뜻이 일대사인연이므로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開) 보여주어(悟)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入)한다는 법화경의 임무는 이승이건 삼승이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놀면서 모래로 불탑을 만들거나 장난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혹은 산란한 마음으로 '나무불'이라 하여도 조그마한 선심(善心)의 싹이 결국 발심하여 불도에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불도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산책

통일장 이론 ②

자연계 존재하는 모든 힘
서로 조화 이루며 작용



지난호에서 우리는 근본적 접근을 하게 되면 차별보다는 통합으로 향한다는 진리를 물리학의 성공적인 모델인 양자장 이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양자장 이론은 자연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힘과 물질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하는 통일장 이론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다섯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힘은 전기장, 자기장, 강력, 약력, 중력이다. 각 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뉴톤에 의해 정리된 중력은 거시적이고 천문학적인 규모에서 중요하다.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차별없이 작용한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 질량은 곧 에너지임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물체를 잡아당긴다. 너무나 에너지가 커서 빛 마저 강력하게 잡아당겨 빛이 빠져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맥스웰에 의해 전기력과 자기력이 통합된 전자기력은 전기를 띤 입자가 이에 반응한다. 광자(photon)에 의해 매개되는 전자기력은 원자구조와 화학 결합, 전자기 복사(빛, 전파)에 관여한다. 인체에서는 신경전달등과 같은 필수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특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인간의 신진대사가 교란되기 쉬워 건강을 해치기 쉽다. 강력은 원자 핵의 구조를 지탱하는 힘으로 근거리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그 작용범위가 핵안으로 국한되어있다. 강력은 그루온(gluon)에 의해 매개된다. 마지막으로 약한 보스 입자(weak boson)에 의해 매개되는 약력은 방사성 붕괴와 별의 에너지 생산 매커니즘에 관여한다. 모든 알려진 입자들은 페르미 입자(fermion)과 보스 입자(boson),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페르미 입자은 프랑크 상수라는 단위의 1/2의 홀수 배수 스핀(spin)을 가진 입자이다. 이 스핀 값을 갖기 때문에 페르미 입자은 파울리의 조화 법칙(Pauli Exclusion Principle)을 따른다. 파울리의 조화법칙은 파울리의 배타률이라고 하는데 어떤 두 개의 페르미 입자들도 같은 위치와 같은 시간에 같은 상태(스핀, 색전하, 각운동량 등이 모두 같은 상태)를 같이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같은 상태에 같이 놓일 수 없다는 것을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조화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상적인 물체의 많은 성질들은 바로 이 규칙을 따르는 페르미 입자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화학시간에 배운 물질의 다양성 중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내는 주기율표를 회상해보면,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었느냐에 의해 그 원자의 성질이 정해짐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분포하는 방식은 파울리의 조화법칙에 의한 것이고 이는 전자가 페르미 입자이기 때문에 일어남으로 물질의 다양성은 파울리의 조화법칙을 따르는 페르미 입자에 의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면 떠오르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모두 페르미 입자이다. 쿼크, 경입자(렙톤, lepton), 중입자(바리온, baryon), 일반적으로 더욱 기본적인 입자들은 페르미 입자이다.

이와 반대로 보스 입자이란 정수배의 스핀을 가진 입자이다. 힘의 장(force field), 전달입자(carrier particle), 모든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관여된 입자들은 보스 입자이다. 짝수개의 페르미 입자으로 되어 있는 입자들(중간자, meson)은 그 스핀이 정수배가 되므로 보스 입자이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페르미 입자 혹은 보스 입자이 될 수 있다.

조원희〈본사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와지만 18

말(馬)의 웃음 ③

윤회굴레 벗어날 수 있어
자아 · 집착 · 욕망 · 분별심 등
무명의 사슬 끊으면 해탈

어렸을 때 나는 스릴성 소설을 무척 좋아하여 불사신의 영웅들이 엮어내는 모험소설 같은 것을 정신없이 탐독해댔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대개 주인공들은 어느 장면쯤에 가면 영락없이 간악한 적의 손에 붙들려 손발이 묶인 채 극도의 궁지로 몰리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도망치고야 만다. 이때 급선무는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한쪽 손부터 빼내는 일이다. 이빨을 쓰던가, 감시자의 눈을 속여 교묘히 감추어두었던 연장을 쓰던가 하여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는 마침내 이 일을 해내고야 만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불교에서는 해탈에 이르는 길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친다. 첫 단계에 이르렀다 해도 궁극의 해탈은 아직 멀지만 일단 보장된 셈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첫째 도정의 성취' 혹은 '흐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한쪽 손을 빼내는 것에 해당된다.

결박에서 한쪽 손을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정념 수행'이다. 정념의 가장 근본적인 공덕은, 자아라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만들어주는 데에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언젠가는 '무아(anatta)'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지적 관찰이 아닌 진리의 직관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종래 자아에 관해 굴리던 고도의 지성적 사유 같은 것은 적절하게 초극해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 다다르면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불법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은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동시에 어떤 형태이든 의례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던 잠재의식도 사라져 버린다.

두 번째에 수행자는 '흐름에 들어선 자'로부터 '태어남이 한 번 남은 자'로 변모한다. 세상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이미 현저히 약화되어 다시 몸받아 태어나야 하는 일은 한 번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지나서부터는 애착과 혐오는 단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뿐으로 성가신 가치관 정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적극적인 고(苦)의 인(因)으로 발전되는 일은 없게 된다.

세 번째 도정을 성취하는 순간 감관적 욕망과 혐오가 완전히 파괴된다. 이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사물에 대해 더이상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 몸 받아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 이제 그는 '태어남이 끝난 자'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다섯 가지 족쇄에서는 풀려났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더 높은 수준의 다섯 가지 족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대단히 섬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듯한 형태로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명 역시 아직은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윤회의 주역인 분별심은 아직도 희미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궁극인 해탈은 네 번째 도정을 성취하는 순간 비로소 실현된다. 이를 성취한 사람인 아라한은 이제 더이상 닦을 것도 해야할 일도 없다. 불사(不死)는 성취된 것이다. 첫 단계부터가 말처럼 손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누구나 이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

오종욱 기자

통합불교 아미타종

창종공고

통합불교 아미타종은 불교의 대중화를 목표로 창종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종 정	釋 智 山
총무원장	釋 法 聖
종회의장	釋 錦 峰
사정원장	釋 唯 華
교육원장	釋 淨 潭
포교원장	釋 普 景
예경실장	釋 錦 海
총무부장	釋 法 眼
교무부장	釋 柱 亨
사회부장	釋 慈 光
기획부장	釋 鍍 原
재무부장	釋 眞 覺
호법부장	釋 慧 眼

불기2543년 10월 17일

통합불교 아미타종 총무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7-28 승서빌딩 3층

전화 : 541-2108-9 / 팩스 542-2108

창종발기인

서울시 송파구	약사암	보 경	서울시 도봉구	류광사	윤순옥
서울시 동작구	기원정사	유 화	서울시 중랑구	약사암	권영애
서울시 동작구	보각사	주 형	서울시 송파구	중생사	정 담
서울시 강남구	기원정사	법 안	서울시 강남구	기원정사	보 혜
서울시 성북구	천관사	경 오	서울시 강동구	금강사	도 원
서울시 광진구	관음사	진 각	서 울 (중요무형문화재 104호)	서울 새남굿 교육보조사	이상순
서울시 강북구	대원사	도 관			
서울시 광진구	연등화사	세 안	경기도 포천시	청봉사	금 봉
서울시 관악구	성불사	대 혜	경기도 동두천시	수도암	청정화
서울시 도봉구	보리사	혜 정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사	유태희
서울시 서초구	관음사	보화심	경기도 안양시	정토사	혜 안
서울시 광진구	천진암	김애경	경기도 안양시	강화사	노범순
서울시 강북구	장군암	김종임	강원도 홍천시	금강사	혜 상
서울시 성북구	천신암	엄기순	충청북도 옥천시	보현사	도 광
서울시 강북구	약사암	장향순	광주광역시	문수사	법 일
서울시 강북구	천신암	장이순	전라남도 고흥시	보각사	도 연
서울시 강북구	계룡암	이경숙	전라남도 여수시	도선암	금 해
서울시 성북구	천황사	나영운	전라남도 화순시	옥려사	원 각
서울시 강북구	천상사	예봉자			
서울시 강북구	천신암	안은숙			

탈종공고

하기 승려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에 따르지 못하기에 불기 2543년 10월 17일자로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중생사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200-11	허명선(정담)
약수사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208-8	허덕현(보경)
연화사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63	송창호(도일)
문수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496-16	기우근(법일)
도선암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038번지	이재모(금해)
옥려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오유리 121-1	원태수(원각)
관음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553-82	김말자(보화)
청룡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665번지	유태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천관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5가 252-8	고재구(경오)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희망찬 새천년을 기원하며 사부대중이 하나되어 큰 향목을 어깨에 메고 벌발으로 나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엄마 앞둔 지난 10일 미륵성지 김제 금산사에서는 '매향(埋香)' 의식이 6백년만에 처음으로 재현됐다. 향(香)이란 불가의 6법공양물중 하나로 일찍부터 모든 의례를 봉행함에 있어 가장 소중하게 생각돼 오고 신성시해온 공양물이다. 향중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침수향(沈水香)이다. 침수향은 향내가 신묘할 뿐 아니라 이를 피우고 축원하면 병이 낫는 등 신이적인 영험이 있다는 신성한 향이다. 침수향은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침향목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사리함을 만들거나 부처님을 조성하는 등 소중하게 쓰였다. 매향의식이란 바로 이 침수향을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의례이다.

매향은 산곡수(山谷水)와 해수(海水)가 만나는 지점에 향나무를 묻는 것을 말한다. 천년을 묻혀있던 향은 태울 때 그을음이 생기지 않고 향내가 은은하며, 단단해져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하여 침수향이라 한다. 침수향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온다.

"미래의 희망 미륵불 하생 염원"

6백년만에 재현한 매향의례

금산사 개산 1400주년 맞아 사부대중 5백여명 동참 심포 앞바다에 향목 묻어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매향의식이 성행하던 시기는 고려말 조선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기에는 나라가 몽고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불교내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심하여 민중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못했다. 조선왕조가 개국한 후에는 배불정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게 되었으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외구의 출현이 잦아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이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 고통과 불안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으로 미륵하생신앙과 접합된 매향의례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매향의 결과 얻어진 침향을 매개물로 하생한 미륵부처님과 만나고 미륵부처님이 주관하는 용화회상에 참여함으로써 정토세계를 이루겠다는 염원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미래의 희망으로 미륵부처님의 하생을 염원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나 고려말, 구한말 등 세상이 바뀌는 격변기에는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미륵하생신앙이 도래하곤 했다.

두달만 지나면 변화가 예상되는 2000년대이다. 물질이 정신보다 대우받고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는 불안한 이 말법사회, 국가적으로는 경제위기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남북이 갈라져 애타게 통일을 그리워하는 이때, 금산사(주지 도영)가 개산 1400주년을 맞아 선인들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즉 미륵의 하생을 염원하며 봉행하던 매향의식을 재현하는 뜻깊은 불교의식을 10일 봉행한 것이다.

이날 5백여 사부대중은 금산사 미륵전앞에서 고불법요식을 갖고 인로왕번, 농악및 사물놀이, 장엄번, 범패의전, 스님, 향목, 연, 향도, 신도순으로 김제시 신포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취타대와 35사단 군악대가 길을 열자 연에 이은 광목을 손에 잡고 향목을 머리에 올린 불자들은 황금색으로 일렁이는 김제평야를 지나 심포 앞바다까지 정진하며 행진했다..

11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자 범패와 도량게 의식을 진행한뒤 깊은 벌발에 50m가량 일렬로 선 신도들에 의해 향목이 손에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옮겨졌다. 또 스님과 거사들은 큰 향목을 함께 어깨에 걸쳐메고 벌발을 헤쳐나갔다. 향목은 진봉산 정상 서쪽(심포항 옆)으로 1천5백m지점, 8m길이로 파놓은 갯벌에 파묻혀졌다. 이날 묻은 향목은 전남 장흥에서 가져왔다. 1천2백년된, 둘레가 3m50cm인 거대 향나무가 크고 작은 향목으로 잘라졌다.

이 향목들은 지난 4월10일 금산사 미륵전앞에서 매향의식을 부처님전에 고한뒤 6개월간 미륵전에 봉안해 두었었다.〈본지 219호 참조〉

불자들은 매향의식이 끝나자 목탁소리에 맞춰 미륵정근을 했다. 미륵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인간들의 삐뚤어진 심성, 혼탁한 생활문화, 극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발원했다. 이어 망해사로 이동하여 매향의 위치와 2백50여 동참자의 서원을 기록한 매향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마침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도 20세기를 보내며 매향찾기행사를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개최하기로 발표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기원하며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신묘한 향(香)으로 승화시키는 매향의식이야말로 새 천년을 맞기에 아주 적절한, 우리 고유의 전통의례라는 것을 이번 금산사 매향의례 재현행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율해초 금강스님(미황사)이 매향찾기 행사를 벌였으나 침수향을 찾지 못했다. 이제까지 바닷가에서 우연찮게 어부가 발견해 아궁이에 넣어 불을 지피니 며칠간 향내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풍문만 전할 뿐 매향비가 있는 곳에서도 침수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글=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jkim@buddhapia.com)





◇매향의 풍속을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은 고려시대 사천매향비(왼쪽)와 지난 10일 망해사에 세운 금산사 매향비.

매향비 사천·고성 등 5곳에 산재

미륵의 용화회상에서 태어날 것을 염원하며 향을 묻은 기록을 새긴 매향비는 현재 5곳에서 발견됐다.

매향비는 1309년에 세운 고성 삼일포매향비와 1335년 정주매향비, 1387년 사천매향비, 1405년 압대도매향비, 1427년 해미매향비등이 있다.

특히 보물 제614호 사천매향비는 고려말 승려를 중심으로 4천백명이 결계한 결사비로 높이 1.6m, 너비1.3m이다. 비의 제목은 '천인결계 매향원왕문'으로 돼 있으며 "미륵불(彌勒佛)이 당래(當來)하여 용화삼회(龍華三會)하기를 기다려 대원(大願)이 이루어지기를 기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비문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향을 묻어 불보살에게 내세를 기원한다는 풍속을 적고 있어 사료적인 가치가 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문화교육연구소 진철승 연구실장은 "매향의 주도집단은 보(寶) 결계(結契) 향도(香徒)등 이었고 이들은 스님보다 일반 민중들이 중심이었다"며 "왜구의 침략이 많았던 해변지역에서 매향을 통해 불안을 치유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진봉산 정상 서쪽 1500m지점 심포항 앞바다에 매향을 하고있는 불자들. 포크레인이 항목이 묻힐 뱀발을 깊게 파놓았다.



◇금산사회주 월주스님과 주지 도영스님이 항목이 지나는 길을 정화시키기 위해 향탕수를 뿌리는 쇄수를 하고있다.



◇매향할 항목을 손에서 손으로 정성들여 옮기고 있는 불자들.



◇고려중기양식의 대표작 삼천사 마애여래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삼천사 마애여래입상

겹동무늬 광배와 한줄 신광
눈 가늘게 뜨고 입 오무린 미소

서울시 은평구 삼천사 계곡의 바위면에 얕은 감실을 파고 듬직한 입불을 완성시킨 이 불상은 고려시대 불상중 대표적인 작품중 하나이다. 겹동무늬로 머리광배를 새겼으나 신광은 한줄로 새겼다. 눈은 가늘게 하고 입은 오무려 파격적인 미소를 띠게 한 것은 고려불상의 한 특징으로서 곡 인상적이다. 신체는 비교적 장신이지만 안정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각형모양의 상체는 통견의 불의를 입었는데 불의를 다소 두껍게 나타내고 있어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옷속에 나타낸 신체는 부드러우면서도 평판적인 모습을 그린듯이 묘사하고 있으며 통견의를 입은 옷은 신체에 비해서 다소 두껍게 나타내었지만 띠모양의 승각기(僧脚崎 가사 아래에 걸쳐 가슴 겨드랑이를 덮는 작은 옷) 표현과 나비리본형태의 띠매듭 등은 불상형태와 함께 고려중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애불이다. 보물 657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행운을 간직하는 달마도의 대가
매헌(梅軒) 윤종우 선생 작품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달마도 전신) ◀뒷면(반야심경)

한국 G &C는 수능시험을 대비하여 신비의 달마도 순금카드를 적절 공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달마는 佛을 대표하는 인물로 매달음을 상징하며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296호) 했다. 지갑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인 순금(999%)카드는 앞면에 달마도, 뒷면에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합착코팅함으로서 찢어지거나 구김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게 됐다.
달마도 순금카드는 개인소지용으로 사업가, 수험생, 운전자, 종교인 등 선물용으로 최적상품이며 가격은 대형(5×7.5cm) 20,000원과 소형(3×5cm) 15,000원 등 크기는 두가지가 있고 대소셋트 구매시 35,000원을 특별보급가격인 20% 할인된 2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순금판 열쇠고리는 순금판 상반신달마도 열쇠고리 1개 1만원, 3개 셋트에 2만원에 판매한다.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 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명함 등 어떠한 문신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또한 최초 출시품으로 매헌 윤종우 선생님의 친필원본 작품도 한정판 매한다.
본 제품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였으므로 더욱더 간직함에 달마의 힘이 된다.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3일내 우편배달 가능함.(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원 :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 02)922-4804~5
◆전국판매영업점 모집 (전문 딜러shop 운영가능)
업체 판촉물로 최적상품(보험사, 자동차대리점, 고급음식점, 특수영업, 증권단체 등 다수)

★ '시방세계' 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⑬

質直無僞 視聽尋常 則絶一塵而作對
질직무위 시청심상 즉절일진이작대
何勞遣蕩之功無
하로견탕지공무
一念而生情 不假忘緣之力
일념이생정 불가망연지력

또한 순박 솔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보고 들음에 무심하여 한 티끌도 상대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한 생각의 망령된 감정도 일어남이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필요도 없다.

然障濃習重 觀劣心浮 無明之力大
연장농습중 관열심부 무명지력대
般若之力小 於善惡境界
반야지력소 어선악경계
未免被動靜互換 心不恬淡者 不無忘
미면피동정호환 심불염담자 불무망
緣遣蕩功夫矣 如云六根攝境
연견탕공부의 여운육근섭경
心不隨緣 謂之定 心境俱空
심불수령 위지정 심경구공
照鑑無惑 謂之慧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행(觀行)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동요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禪定)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합께 공해서 미혹됨이 없음을 비추어 아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것은 비록 수상문(隨相門:경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의 선정과 지혜이고, 점문(漸門)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만약 망상이 들끓거든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계합하게 하며,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이젠 지혜로써 법에 따라 공(空)함을 관조하여 미혹됨이 없음을 비추어서 본래의 앎에 계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으로써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써 멍청함(無記)을 다스려서 동요함도 고요함도 서로 없어지고,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도 없으지면, 경계에 대하여 생각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마음이 도에 계합하는 등 마음대로 안팎을 닦아나가야 비로소 걸림없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한 말과 같다."

선악의 경계에서 동요하는 이는
반연을 잊고 없애는 공부하라

조감무혹 위지혜
此雖隨相門定慧漸
차수수상문정혜점
門劣機所行也 對治門中 不可無也
문열기소행야 대치문중 불가무야
若掉擧熾盛 則先以定門 稱理攝散
약도거치성 즉선이정문 칭리섭산
心不隨緣 契乎本寂 若昏
심불수연 계호본연 약혼
沈尤多 則次以慧門 擇法觀空
침우다 즉차이혜문 택법관공
照鑑無惑 契乎本知 以定治乎亂想
조감무혹 계호본지 이정치호난상
以慧治乎無記 動靜相亡 對治
이혜치호무기 동정상망 대치
功終 則對境而念念歸宗 遇緣而心心
공종 즉대경이염염귀종 우연이심심
契道 任運雙修 方爲無事人
계도 임운쌍수 방위무사인
若如是則眞可謂定慧等持 明見
약여시즉진가위정혜등지 명견
佛性者也
불성자야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행(觀行)은 약하고 마음요함도 서로 없어지고,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도 없으지면, 경계에 대하여 생각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마음이 도에 계합하는 등 마음대로 안팎을 닦아나가야 비로소 걸림없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한 말과 같다."

問據汝所判 悟後修門中
문거여소판 오후수문중
定慧等持之義 有二種
정혜등지지의 유이종
一自性定慧 二隨相定慧
일자성정혜 이수상정혜

물었다. "스님의 말씀대로, 깨친 뒤에 닦는 방법을 보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상(相)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모든 사물 영원한 것처럼

운문스님 〈운문사 주지〉



약력
- 1928년 전남 장성 生
- 44년 망월사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 53년 해인사 전문강원수료
- 56년 여수 흥국사 주지
- 63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7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 66년 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 64년 불교동요집 발간
- 87년 제1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 90년 2월11일 제3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 현 서울 구기동 운문사 주석

새싹불자 포교는 미래불사
'부처님 가르침 노래로 전하자'
45년동안 찬불가 만들기 매진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아침 저녁으로 실감합니다. 제법 날씨도 쌀쌀해 졌고 가끔가다 쳐다보는 하늘이 한없이 높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날씨 탓인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락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45년된 나의 찬불가 포교생활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불교 음악인들이 열어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제자가 되겠다고 출가한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달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45년동안 살아왔지만 그 발원을 잘 실천했는지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기만 합니다.

내가 찬불가를 만들며 어린이 포교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28세때 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5년경으로 불교 정화직후였지요. 해인사선원과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종단에서 속가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가 포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 도반스님들 4명과 함께 목포로 내려 갔습니다. 선방에만 있다 막상 목포 정혜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신도들을 접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극단적으로 절에서 불교를 하는게 아니란 생각이 든 겁니다. 모두들 정법과는 동떨어진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여간 고민 거리가 아니었지요. 신도들을 보내놓고 방에 앉아 곰곰히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중에서 배운 불교는 이런게 아니다 싶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시엔 노보살들이 신도의 주류를 이뤘던 때라 젊은이들은 거의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생각이 굳어져서 힘들고 앞으로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들인 어린이 새싹불자들부터 정법 포교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찬불가 포교에 나선 계기입니다.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속에는 불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아직 잘 다듬어 지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있는 불성을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5조 홍인(弘忍)대사도 어릴때부터 깨달음속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더도말고 30년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좀더 보완하며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는 틈날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찬불가 이외에 공(空)에 대한 얘기를 예화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성인불자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지만 어릴때부터 자꾸 듣다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깨우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지요. 불교에서 공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상의 이치를 깨닫치 못하는 사람이 불자들중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만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實體)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공의 기본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모임으로 태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다가 마침내 인연의 모임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인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을 잘못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허무는 공에 대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한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물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비극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선 잠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버리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찬불가 포교를 하기로 마음먹게 된 또 하나의 발단은 선방에서 참선과 공부를 하면서 부터입니다. 출가자가 불국토를 만들고 성불하기 위해선 참선과 염불을 하며 용맹정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불교를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인간에게도 모두 묻혀 있는 깨달음의 씨앗 즉 불성은 기도와 참선 또 감로법문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찬불가를 들고 부르는 일 또한 사찰에 나가 법문을 듣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신행 생활이지요. 찬불가는 다른 노래처럼 단지 멜로디가 좋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는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말씀이 녹아 흐르기 때문에 흥에 겨워 듣고 부르다 보면 어느새 법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불가를 열심히 만든 이유도 간단합니다. 목포 정혜사 인근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법회를 하는데 어린이들을 지도하려니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가사를 쓰고 작곡가를 찾아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이법회라는 말이 생소했던 시절이라 처음에는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게임도 했지요. 또 경전에 나온 내용을 각색해 동화로 만들어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모이더군요. 인원이 많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포교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격식을 갖춘 찬불 노래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교수기법 상담기법 話術
오는 21C에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기법회를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성격이 좋고 화술이 능숙해야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 연 수 안 내 ■
본원에서는 위 연수과정을 원하시는 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회원관리 : 정회원(매월 1회 모임) ※발표회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外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
· 회 원 모 집 ·
도시가 갑갑하고
삶에 짜증스러움이 가득할때
청년불자산악회를 찾아 주십시오
청산에 들고 싶고
할배 돌부처의 말없는 미소를
만나고 싶으신분은
청년불자산악회를 찾아오십시오
청년불자산악회는
푸르른 산을 향해 갑니다.
청년불자산악회는
성불의 인연을 향해 갑니다
묵묵히 오르는 산행이
오롯이 가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땀방울로
삼천배의 수행을 대신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에
부처님의 향기를 만납니다
무심히 발자욱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을 닮아 있습니다
어느새 부처님이 저기 계십니다
부산청년불자 산악회 창립 1주년 기념전치
▶일 시 : 불기 2543년 10월 21일 오후 7시30분
▶장 소 : 새마당예식장 2층
♣ 부산청년불자산악회 가입문의 ☎051)464-2020
♣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 회원모집
붓다의 가르침, 진리의 추구, 삶의 행복
법회 매주(화) 저녁7시 ☎ 051)816-2241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 · 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 과 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게,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 남 불 교 대 학
053)474-8228
(http://www. cyberbuddha.or.kr)

스님께서 군종법사가 되고자 희망하십니까?
군승단은 장병을 사랑하고 포교에 원력이 크신 이 시대의 원광법사의 후예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선발일시 ●
원서 교부 및 접수 | 99.10.25 ~ 10.28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99.10.29(금) 14:00
면 접 장 소 | 육해공군 군승단
모 집 인 원 | 00명
신검 및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문 의 처 |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 또는 군승단 (02)749-8646
● 응시자격 ●
■ 조계종 스님으로서,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2년 경과한 자
■ 조계종 스님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학사 이상)을 졸업한 자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관당시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자
불기 2543('99)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정 련
육 · 해 · 공군 군승단장 이희용

큰스님 수행한담

집착하는데서 비극 시작”



◇ 1972년 9월23일 남산 대원회관에서 열린 조계사 연화학생회 11주년 기념법회때 대중들과 함께한 운문스님(맨 오른쪽). 그 왼쪽 옆이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스님.

“아무리 많은 공양·예불 올려도 중생교화 서원 실천 못하면 부처님께 큰 빚 지는 일”

“익혀온 지식·경험 내던져야 본마음 찾아”

“찬불가 듣고 부르는것 기도 못잖은 신행”

가 없던 시절이라 가사는 내가 쓰고 목포시내 음악교사인 김제민씨에게 곡만 붙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내가 최초로 만든 찬불가이자 스님으로서는 처음 가사를 쓴 것으로 기록된 ‘경배하세’입니다. 이 곡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학교 교가를 즉석에서 모아 가사만 찬불가로 바꿔 부르곤 했습니다. 나도 초창기에는 노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작곡에 대한 인식이 없어 교회 곡중에서 오래되고 안 쓰는 것을 골라 약간 수정해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시절 교회 성가곡들은 일본곡을 표절한 것이 많아 엄격히 따지면 초기의 찬불가는 일본 성향의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요즘 작사자들처럼 내 작품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널리 보급해야겠다는 마음 뿐이었지요.

나는 가사를 짓는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잘 옮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랫말을 짓기전에 경전과 게송을 갖다 놓고 뒤져 봅니다. 조사스님 게송을 인용해 지은 곡들도 몇곡 됩니다. 찬불가를 통한 어린이 포교가 보람은 있었지만 어려운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해인사에서 어린이법회를 했었는데 당시 학인들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극락전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중단한 일입니다. 또 61년경 대각사에서도 어린이 법회를 하다가 선방스님의 반대로 못하게 된적도 있지요. 어린이 포교가 생소했던 시절이라 당시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찰들이 거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나는 가사가 안 써지거나 마음이 안잡힐 때면 화두인 ‘이뭣고’를 잡고 참선을 합니다. 화두는 바로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지요. 스님이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할 때만 던지는 물음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문제라든가, 과학문제, 또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단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이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두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불교의 화두는 인생의 본질, 즉 마음을 해결하는 문제 제기로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을 내던짐으로써, 지식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자신의 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은 마음이 앞장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본 마음자리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동안 어린이 포교의 벽에 부딪혀 실의에 빠져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은 청소년연합회 결성의 산파 역할을 했던 안병호거사였습니다. 초대 문교부장관도 지내셨던 안병호씨는 서울 개운사에서 어린이 법회도 지도했어요. 그때 서울지역에 20개 어린이 법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안거사와 함께 열심히 했지요. 결국 20개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청소년교화연합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당시 마포 석불사, 청룡사, 약수암 등 10여개 사찰이 모여 어린이연합회로 창립했습니다.

그 때 나는 ‘사찰에 피아노가 흔할 정도가 되면 찬불가를 마음놓고 부르는 시대가 올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골 사찰에도 피아노가 없는 곳이 거의 없으니 내 예견이 맞아 떨어진 셈이지요. 요즘도 불교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음악교재로 사용할테니 찬불가교재 보내달라고 할 때라든가 골목이나 사찰에서 흥겹게 내가 지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할때면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그렇게 기쁠수가 없어요.

예전보다 불교가 훨씬 젊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룸비니학생회 이외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사찰에 어린이법회나 청소년법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니 말입니다.

45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처음 출가할 때보다 승풍과 승가의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나의 출가는 먼저 스님이 되신 형님덕분에 이뤄졌습니다. 남장스님이라고 동화사 주지를 지내셨는데 일제말기에 금강산에서 무풍스님을 만나 출가하신 분입니다. 어느날 그 형님이 스님이 돼 집에 오셨는데 그때 형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이야기를 아주 감명깊게 들었지요. 그 길로 형님을 따라서 중이 되었습니다. 전생으로부터의 인연인가 봅니다.

열여섯살에 출가해 고창 선운사와 문수사 내원암 등지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나주 다보사에서 은사인 인곡스님을 만났습니다. 은사스님은 6.25 전쟁 전후에 해인사주지를 잠시 하셨는데 무뚝뚝하지만 공부하기 좋아하는 대선객이셨지요. 큰 수좌가 되길 바라셨을 스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나는 은사 스님한테 불효를 많이 한 셈입니다. 스님께서는 뵐 때 마다 내게 출가를 했으면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해야지 노래가 다 뭐냐 하고 꾸짖으셨거든요.

찬불가 포교도 열심히 해왔지만 50여년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와 예불을 통한 정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자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은사스님의 경책을 늘 생각하며 본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왔지요. 또 교학엔 밝지 않지만 강원에서 공부한 것도 4백여곡의 찬불가를 만드는 소중한 밑천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보배의 탑을 가득히 쌓고, 불전에 많은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세우신 큰 서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대 감각에 알맞는 포교방안을 수립해 젊은 청소년을 교화 육성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스님이 평생 법문 하는 것만큼 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보현보살행’임을 명심하고 불자들도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한성룡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하〉

법흥사에서 7일동안 정근기도 가피체험… “늘 갈고 닦자” 다짐

법흥사 도착한 첫날 이불도 없는 빈 방에 지친 몸을 내던졌다. 법흥사에는 기도객들이 많았지만 속인은 나 혼자였다. 몸은 부처님 품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폐광 직전의 탄광, 빛독촉의 아우성이 여전히 떠나질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온갖 잡념으로 고뇌하고 있을 때 주지스님이 오셔서 잠이 오면 앉아서 잘지 언정 눕지말고, 묵언하고, 기도시간 철저히 지킬 것 등의 기도수칙을 일러주셨다.

기도는 새벽 3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이어졌다. 예불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화엄성중’ ‘석가모니불’ 정근기도를 해야 했고, 밤에도 혼자 정진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처음에는 스님들을 따라서 할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색함도, 쑥쓰러움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탄광일이 생각나면 더 큰 목소리로 독송했고, 그래도 안되면 절을 했다.



기도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였다. 빈 방에 홀로 앉아 몰려오는 수마와 싸우다 비몽사몽에 빠져드는 찰나,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런 산중에 저렇게 예쁜 미인이 다 있을까.” 유혹에 빠져들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정근이 터져나왔다. 여인을 물리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한참을 정근하다 정신이 들었다. 꿈이였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새벽 예불시간직전 곧바로 해종스님을 찾아갔다. 꿈속의 상황을 이야기하려하는 순간 스님은 내 입을 틀어 막았다. 묵언이란 기도수칙을 잊었던 것이다. 예불시간 내내 ‘그 여인은 누굴까, 왜 나를 찾아왔을까’ 곰곰히 생각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기도실에서 ‘화엄성중’ 정근을 하며 절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솟아졌다. 참으려 애쓰면 더욱 울음이 북받쳤다. 결국 부끄러워 기도할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런데 등산객 30여 명이 기도실쪽으로 다가 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기도실 옆 토굴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고 지나온 삶이 필름처럼 휙 돌아갔다. 이제는 등산객들이 지나갔겠지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점심공양시간 공양주보살에게 꿈이야기와 기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등산객들이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후기도를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오전에 봤던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공양주보살은 기도영험을 봤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사실 그 때부터 나의 언행은 완전히 바뀌었고 신심도 났다.

7일기도 회향날 기도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때야 검은 옷 입은 여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사자산 법흥사를 지키는 신장이라는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상황은 반전돼 있었다. 후원자도 나타났고, 인부들까지도 탄광을 일으키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내가 나타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탄광은 다시 가동됐다. 한달이 지날 무렵 검은 옷 입은 여인이 또다시 꿈속에 나타났다. 그 여인은 다름아닌 탄맥을 상징하는 것이었나보다. 결국 탄광에서 1급 탄이 나왔고 탄광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나는 법흥사 기도를 통해 불연을 헛되게 하지 않고 늘 갈고 닦아야 한다는 신행의 기본 진리를 터득하게 됐다. 지금은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 부처님 일을 하고 있다. 내 안에 깊이 잔재해 있는 번뇌를 소멸하고 불자들의 안락한 안식처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원력이다. 〈끝〉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한백 지음 300쪽/전3권 값7,5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구선스님 수행기

소설 觀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의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의 비밀과 윤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봉성기획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구선스님 지음
460쪽/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觀

연기조사 도닦던 띠집에는…

백두대간 속으로

〈3〉

지리산 ②

지리산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깨달음의 산' 이니 '어머니 산' 이니 하는 말들도 턱없이 작은 조각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보면 볼수록 '모를 뿐' 이라는 성글기 짝이없는 표현이 야말로 지리산의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설사 빼어난 문장가가 뭇사람들이 탄복할 근사한 표현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진 '허공꽃' 이요 순간의 느낌일 뿐이다.

하여 나는, '열리고 닫힘이 참으로 자재로운 산' 이라는 말로 지리산이 드리운 그림자 하나를 붙잡아 본다.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지리산의 실체인 까닭이다. 벽공으로 우뚝 솟으면 솟은 대로, 구름에 갇히면 갇힌 대로, 어둠에 묻히면 묻힌 그대로 지리산일 따름이다. 이 모습이 더 좋고, 저 모습은 덜 좋다는 생각은 오로지 나그네의 심사일 뿐이다.

지리산의 심장은 반야봉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산새와 다람쥐와 이웃하고 사는 한 반야 행자가 살고 있는 토굴이 있다. 묘향대가 바로 그곳이다.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 조사가 띠집을 짓고 도를 닦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가 본 곳 중 가장 아늑하고 깊은 곳이었다. 만약 지리산이 한 그루 나무라면 그 나이테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스님—" 하고 조금은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도 신기해서였다. 그러나 스님은 힐끔 돌아보기조차 않았다. 산을 넘다 지친 구름 한 조각쯤으로 생각한 걸까?

땔감으로 쓸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이미 반 쯤은 썩은 나무였다. 이것저것 귀동냥이나 할 셈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한 토막 거들었다고 하자, 무심히 돌을 건넬 뿐 또 아무런 말이 없다. 한참의 시간이 톱밥으로 쌓인 다음, 나 또한 무심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혼자 사십니까?"

참 한심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답이 돌아온다.

"여럿이 함께 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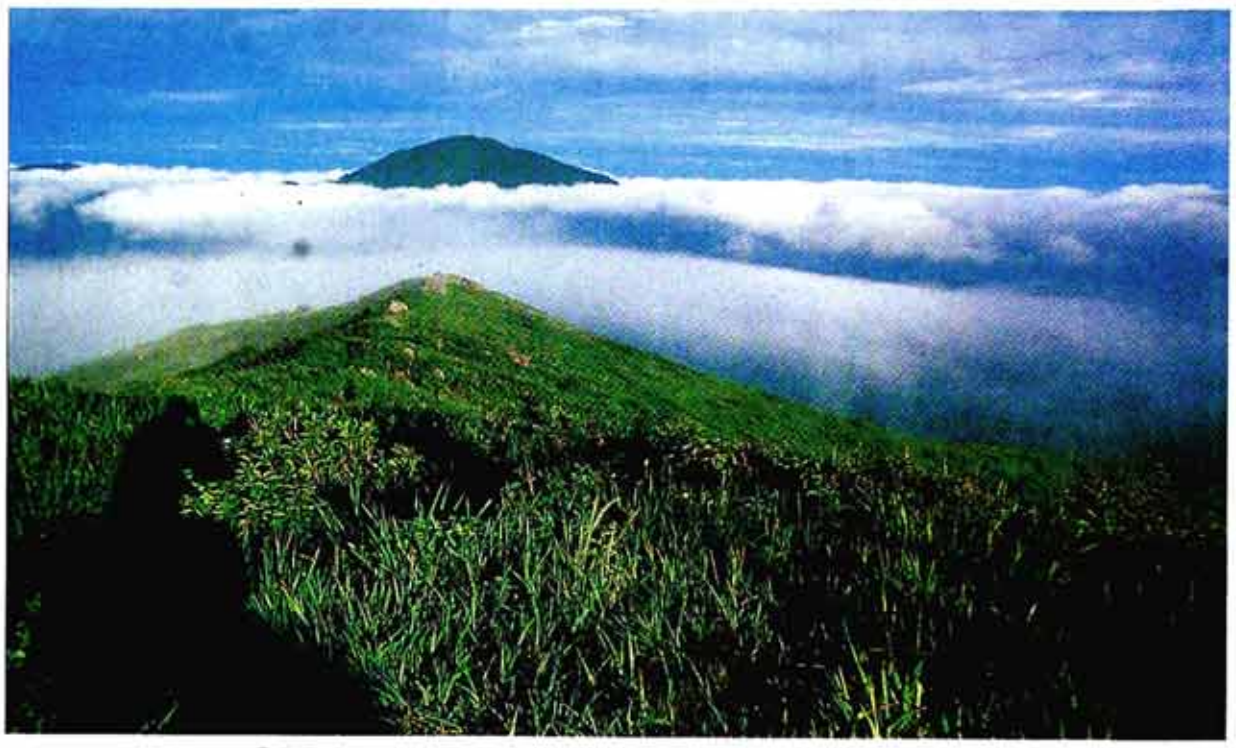
"예?"

"새도 함께 살고 다람쥐도 드나드니 제법 많은 식구인 셈이지요."

"아, 예."

"언제부터 사셨나요?"

"글쎄요. 잊어버렸네요."



◇운해에 빠진 반야봉.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를 일러준다.

묘향대 토굴 스님은 세월 잊어버리고
반야봉은 진공묘유·평등 도리 일깨워

순간, 아찔한 느낌과 함께 한 생각이 스친다. '그래, 바로 이런 것이 수행자의 삶이요,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최고의 법문이었다. 새삼 정색을 하고 얼굴을 바라보았다. 20대 초반? 아니, 40대 중반?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다.

끈땀 먹지 않으면 묘향대를 가기는 힘들다. 구경 삼아 갈 양이면 삼가고 삼갈 일이다. 수행을 방해함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꼭 가야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걸림 될 게 없다. 화개재를 지나 노고단쪽을 향하다 반야봉으로 올라서는 갈림길에서 반야봉의 동북쪽 기슭에 몸을 맡기면 된다.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라 길은 아주 희미하다. 수풀을 헤집으며 돌짐승들의 발길을 좇을 일이다.

묘향대를 뒤로 하고 쉬엄쉬엄 올라도 한 시간이면 반야봉에 오를 수 있다. 지리산의 봉우리 중 전망이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사방이 탁 틔어 있어, 천왕봉 노고단은 물론 백두대간의 지리산 구간 북쪽 끝머리인 만복대까지 눈길로 쓰다듬을 수 있다. 이곳에 서서 하늘에 머리를 담그면, 제아무리 굳은살 같은 감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하늘빛으로 투명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아쉽게도 반야봉은 지리산의 주봉에서 살짝 비껴나 있다. 지리산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삿갓이 물러나 있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마루금이 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반야의 참뜻을 배웠다. 어디에고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도리와, 나아감과 물러섬이 둘 아닌 도리를 배웠다. 나와 너의 있음이 서로로부터 비롯되고 서로에 속해 있음을 배웠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느 하나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의 그 평등한 도리를 반야봉은 말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진공묘유(眞空妙有). 텅 비어 있음! 우주의 존재 방식이다. 반야봉도 그렇게 존재한다. 그 높음은 결코 낮음을 상대한 높음이 아니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모습은 세계의 실상이 공(空)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리하여 색(色)이니 곧 묘유(妙有)다.

반야봉에서 노고단까지의 발걸음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 천왕봉을 오를 때와 같은 가팔진 곳도 없다. 이 몸이 곧 작은 우주임을 느끼며 천천히 걷기만 하면 저기, 노고단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 운해를 만난다면, 그 또한 지리산이 내린 축복이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풍덩 몸을 던질 일이다.

글=윤제학(본사 여시아문 출판부장)
사진=손재식(사진가)



◇연기조사가 도닦던 곳으로 지리산에서 가장 깊고 아늑한 곳 묘향대의 토굴. 반야봉 아래에 있다.

지리산의 사찰들

사 찰	창건주	창건연도	문 화 재
법계사	연기 조사	544년	법계사삼층석탑(보물 제 473호)
대원사	아도	503년(무녕왕3년)	극락전(전남 유형문화재 제87호) 태극국사부도(전남 유형문화재 제35호)
백송사		신라말 ~ 고려초로 추정	삼층석탑(보물 제474호)
실상사	홍척	828년(흥덕왕3년)	백장암3층석탑(국보 제10호) 실상사부도(보물 제36호) 석등(보물 제35호) 절제여래좌상(보물 제41호)
천은사	덕운(인도 승려)	828년(흥덕왕3년)	나옹화상원불(전남 유형문화재 제29호)
화엄사	연기 조사	통일신라시대	각황전앞 석등(국보 제12호) 화엄사 4사자석탑(국보 제35호) 각황전(국보 제67호) 화엄사 대웅전(보물 제299호) 오층석탑(동·서, 보물 제132, 133호)
연곡사	연기 조사	통일신라시대	동부도(국보 제153호) 서부도(보물 제154호) 북부도(국보 제54호) 현각선사탑비(보물 제152호)
쌍계사	삼법(三法)	723년(성덕왕 23년)	진감국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진감국사부도(보물 제380호)

잘못사
①신라 신문왕 때 지리산 옥부선인이 부는 피리소리를 들은 일곱 명의 왕자가 입산하여 6년 만에 도를 깨닫고 창건했다는 설과 ②103년(파사왕24년) 8월 보름에 가락국 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옥보 선사를 따라 출가하여 6년 만에 깨달아 창건했다는 설이 전한다.

傳統黃土房

지정황토침대

●특허출원 제99-11447호●

"지정황토침대"
한 물자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황토침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황토침대의 효능그 가치를 평가 하십시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황토 천연적으로 만든 지정황토침대에서 흙의 기(氣)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지정황토침대는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찜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순수황토와 쑥, 느릅나무액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건강은 물론 자연의 향이 더없이 상쾌함을 주며 황토매트에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 잘 수 있는 특성과 전자파와 수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지정황토산업에서 시공한 국내최초 황토군법당 27사단 설법전 현판식 1999.9.19



지정SILVER황토침대 싱글 ★규격 190×96×33



침대에 왕골돗자리를 매치하여 더욱 시원한 모습의 지정황토침대
★규격 190×131×33

주요생산품목
- 황토주택건설
- 황토타일
- 황토침대
- 황토벽돌
- 방바닥 및 벽마감시공 (등록업체)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동의보감참조)
(주)지정산업에서 개발한 황토방이나 황토침대는 열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순수황토에 식물성을 첨가하여 자연적으로 만든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체에 유익함은 물론 독특한 향기까지 맛볼 수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여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

자연과 인간+흙과 인간=건강한 내일

(주)지정황토산업

전국대리점 및 영업사원모집

사무실 : (032)427-7898~9, 427-8080
공 장 : (032)697-2365~6
팩스 (032)427-7997 / PCS (016)360-223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만법 마음의 근본이 운영합니다

남편 폭력이 심합니다

문 귀의 삼보 하옵고, 한마음 두루하여 모자람 없는 대자비심으로 유·무형의 생명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대행스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40세의 가정주부로서 남편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스님! 자비하심으로 올바른 가르침 간구하옵니다. 제 남편은 인륜도 도덕도 없는 인간성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성질을 무섭게 내며 상대를 비난하고 10여년이 넘게 저에게 폭언과 구타를 일삼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여자라는 둥 배운 학식이 적다고 무식하다는 둥, 심지어 도구를 사용한 폭력으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 저를 여러 번 실망시켰으며, 요즈음에는 저와 아이들도 구타하여 집밖으로 쫓아내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 주위의 사람 모두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는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하여 아이들이나 저는 깊은 병에 들 것 같습니다. 스님 이 깜깜한 칠흑의 어둠에서 저와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답 어느 사람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아무거나 괭개치고 마누라를 죽일 듯이 때려 아주 그게 습관이 돼서 술만 마셨다 하면 자기 세상이란 말입니다. 또 그분인가요. 농사를 짓느라고 소를 기르는 데도 그냥 우악해서 소도 질색을 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 성질을 부렸다 하면은 소 몸뚱이가 꼭, 뭐 쳐놓은 거 같애요. 멍이 들어서. 저녁에 돌아와서 그 아내가 소죽을 쑤어주면서 보면 그 멍이 가시질 않는 거죠.

자기도 너무나 똑같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아픔을 겪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겪는 걸 보면서 소하고 마음이 항상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더러 하는 소리가 '너나 나나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맞아야만 할꼬! 이렇게 울어야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 하면서, 소죽을 쑤어주면서 같이 운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재해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죽어서 저절로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은 저절로 여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소는 그 집의 아들이 되고요. 그러니 횡포를 부리던 남자는 이생에서 아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잘 맞는데 어머니하고는 도대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자에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면서 자기의 생각, 잠재의식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파서 울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의식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 도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알았다면은 그것조차 지워버릴 것을, 또다시 인연을 짓지 않을 것을, 안 그렇겠습니까?

> **모두 자기 참 주인공에 맡겨놓고**
> **믿고 물러서지 않고 관한다면**
> **참 생명수의 근원이 나에게…**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맞아야 하고, 밥 세 끼니 얻어먹는 건 마찬가지건만 하루종일 일을 하고도 주정을 받아야 하고 맞아야 하고 애한테도 꼼짝 못 하고 사는 이런 인생은 살아 뭣 하나!' 하고 양잿물을 갖다 놓고 몇 번 죽으려고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뭉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들어오면 "아버지, 오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고선 둘이는 아주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부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냥 이런 게 치밀고, 때에 따라서는 그 남편이 들어와서 막 그냥 때리고 그러거든? 그리고 아들도 들어오면 괜히 갖다주는 것도 투정을 하고 괜히 심통을 부리고 괭개치고 그냥 나가고, 그렇게 어머니를 못살게 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하도 힘이 들어서 절에 갔어요, 이 부인이. 절에 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스님께 좍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것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려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자부처를 찾으면서 '모든 것은 내 탓이오니 그저 모든 것을 당신께서 알아서, 제가 열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으니 열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하고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은 자부처, 지금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주인공에 다 맡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들이 그러더라도 맡기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탓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한 번 때리면 더 때려달라는 식으로 그저 존경하고 섬겨라. 그런다면은 세 번 죽어서 다시 인연이 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을 당대에 없앨 수 백분지 일도 받질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세 번을 다시 죽었다 또 태어나야 다 갚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했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소릴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 번의 인연을 또 맺지 않고 그 고생을 안 합니까?" 하면서 스님 말씀을 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려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자부처를 찾으면서 '모든 것은 내 탓이오니 그저 모든 것을 당신께서 알아서, 제가 열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으니 열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하고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은 자부처, 지금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주인공에 다 맡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들이 그러더라도 맡기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탓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한 번 때리면 더 때려달라는 식으로 그저 존경하고 섬겨라. 그런다면은 세 번 죽어서 다시 인연이 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을 당대에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당대에 없어질 수도 있으나 자꾸 그렇게 해서 네 스스로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면서, 때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맞고, 아들이 그냥 괭개치고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염원을 하고 먹을 걸 갖다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나가서 사먹고 들어와도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년이 다 못 가고 석 달이 다 못 가서 아, 그 아들과 남편이 차츰차츰 착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그렇게 때린 업이 녹느라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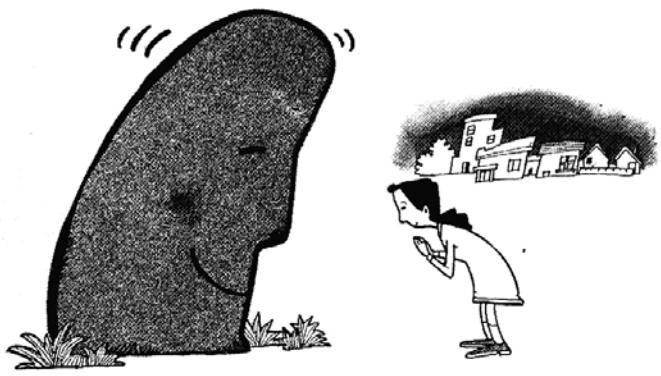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 생각과 행동 누가 하나 지켜보도록**
> **모든 것을 놓고 쉬면 여여하게 돌아가요**

그러니 모두 각자에게 있는 그것은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아가지도 못합니다. 당신네들이 지어놓은 것들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가 말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그 인연을 어떻게 끊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그렇게 끝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고 맡길 곳은 한 곳, 자기 근본 주인공 밖에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맞아서 아파 울 때도 주인공을 불들고 울고, 내 삶이 서럽고 비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주인공을 부여잡고 우십시오. 그 길만이 이 생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남편과의 인연을 녹이는 길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세요. 보살님이 지극하게만 주인공을 불 아니게 찾으신다면 일체제불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시는 거니까….

주인공 생각 횟수 세도 되나

문 ①저는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 또는 술을 마시는 도중에 '주인공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해도 그 자리이고, 안 해도 그 자리라는 것은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지극하고 간절하다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인공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는 한 방법으로 주인공에 대한 생각을 횟수로 나타내어 하루 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지, 그대로인지, 적어지는지로 점검하는 것도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그러다 믿음이 더욱 지극해지고 횟수가 많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끊어지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살다보면 가령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길을 걷다가 남과 팔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과 부딪힐 때는 사소하게 넘기는데 죽을 뻔했던 일은 오래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소한 일로 사람들은 생각하나 저의 견해로는 두 상황은 모양만 달랐지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것으로, 단지 육심 많은 사람들의 분별심에서 하나는 심각했던 상황이고, 하나는 사소한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침 주십시오.

답 ①보배는 바로 여러분 마음 주인공에 있습니다. 이름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 주인공! 하면 주인공 안에 일체만법이 다 들어 있고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의 섭리까지도 주인공! 하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 무슨 묘법입니까?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불가사의한 그런 뜻이 거기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하고 불렀을 때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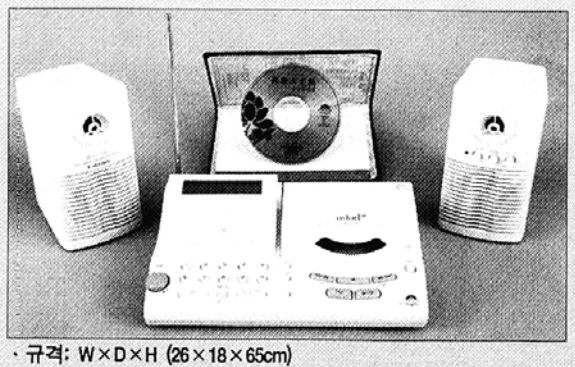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절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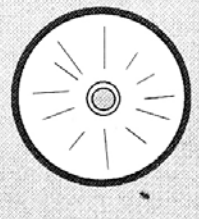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집착 떼려고 방편으로 주인공 세워

☞ 15면에서 계속

말로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뜻으로써 '주인공!' 한다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형성을 시켜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화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장본인, 뿌리인 당신을 바로 삼천대천세계가 공생으로써 공용으로써 공체로써 돌아가는 이치를 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일컬은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형성시켰으니까 안 되는 것도 당신이 할 수 밖에 없다' 하고 그 진실하게 믿는 마음을 거기다가 일임시키고, 또 잘 되는 것도 감사하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 믿고 일임시킬 때는 진정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도 "주인공! 나 좀 낫게 해 줘" 이런다면은 벌써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길을 가려해도 돌아서 가는 격이 되죠.

공을 칠 때에는 가서 탁 맞아야 그 공의 힘을 100% 쓸 수가 있는 거지, 공을 쳤는데 비껴서 맞는다면은 절대로 공 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둘로 보지 마시고 직속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끌고다니고 수만억겁을 끌고다녔고 현재에도 끌고 다니니까 바로 당신이 할 수 밖엔 없지 않은가!" 하고 믿고 맡겼을 때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도 바로 네가 이끌고 다니는 거지, 몸뚱이가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것 아니겠는가!

그 뿌리는 심봉과 같아서 바로 에너지와 같고, 비행기 프로펠라가 돌아가는 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천지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모든 일체만법을 운영하고 행을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입니다. 이 마음의 근본, 여러분이 이 묘한 마음의 근본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스님은 그것을 잘 하시지만 우리같은 중생들이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형상도 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마음 하나가 즉 말하자면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자기를, 전자의 자기 낳기 이전을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라는 말을 듣게끔 돼 있죠. 이것 저것 따지거나 생각하지 말고 진실히 믿고 놓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②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공한 자체도 공했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마저도 공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놓으면 아주 편안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이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거든.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은행에서 차압을 당해서 이제는 음짝없이 다 뺏기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애들하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귓속에다 들이대고 얘기해줬죠. "당신만 알고, 당신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럼 될 거야"그랬어요.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입자가 나가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 한생각에 천백억 보살이 나가서 응신이 돼 주느니라. 그것을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니까 부처님 원자 안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제각기 다 자기 소임을 해 준단 얘기죠. 그걸 거짓으로 생각을 해선 안돼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계로 들어가니까 심성을 꼭 넣어야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중용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심성 과학이라면 어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도, 내 집을 지키려면은 내 집에 주인을 둬야 내 집을 지키죠. 집을 비우고서 그냥 어디 나가려면은 집 지키는 사람을 꼭 하나라도 놔두고 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인공! 너 집 좀 지켜줘' 하고선 나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디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냥 있더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개개인 집이 한 몸의 집인데, 이 집 주인이 있어야 세균성·영계성·인과성·업보성 이거를 다 막죠. 이걸 대치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면 대치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자기 나무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고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그 믿음을 진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산이라 해도 되나요

문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제가 스님께 질문 할 것은 남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럴것 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이나 물건같은 것은 다 제각기 이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산은 꼭 산이어야만 하나요? 물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을 산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스님 저는 산을 왜 산이라고 해야되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답 우리가 살고 돌아가려니까 모든 것을, 돈이라고도 이름을 지어 놨고 또는 물건에도 이름을 붙여 놓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으니까, 어린 애를 낳아도 이름을 붙여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이름이 사실은 진실, 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그 이름이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거고 저거고 다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마음 나오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 나오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이 나오면 좋은 행위를 할 것이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나쁘게 행을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은 자기 참주인공에 맡겨놓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관하면은, 그저 닥치는 대로 거기다 관해서 의정이 나면 놓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놓고 알면 아는 대로 놓았을 때 비로소 참 생명수의 근원이 나에게 알려질 수 있는, 홀연히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도 자기의 참 주인공이 있음을 알고 믿어서 관해 보세요. 그리고 산을 물이라 해도 돼고 물을 산이라 해도 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하도록 모두 약속을 해서 이름지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바래요.

'지켜본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안녕하신지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가지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큰 고민은 제 피부가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전에도 한번 큰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답답한 마음과 함께 여러가지 상념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이런 의문들이 떠올랐으나 지금도 그 답에는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것 같아 갑갑하고 슬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보고 '피부 문제는 별 것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라고 스스로 위안도 삼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나를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이 좋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이 나오는 자리를 지켜보라는 가르침을 책을 통해 읽었는데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지켜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늘 가르침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또 큰스님의 마음을 청합니다.

답 모든 걸 주인공에 일임을 시키고 주인공이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자로서 내 생리적인 작용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지켜보고만 나가세요. 계획을 세운다 궐 어쩐다, 이러는 것도 다 주인공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현재의식으로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은 체가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동생이 됐다가, 형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나툼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소. 우리가 생각나기 이전을 찾아라 찾아라 하기 이전에, 찾을 것도 없는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지켜 볼 수 있다면 그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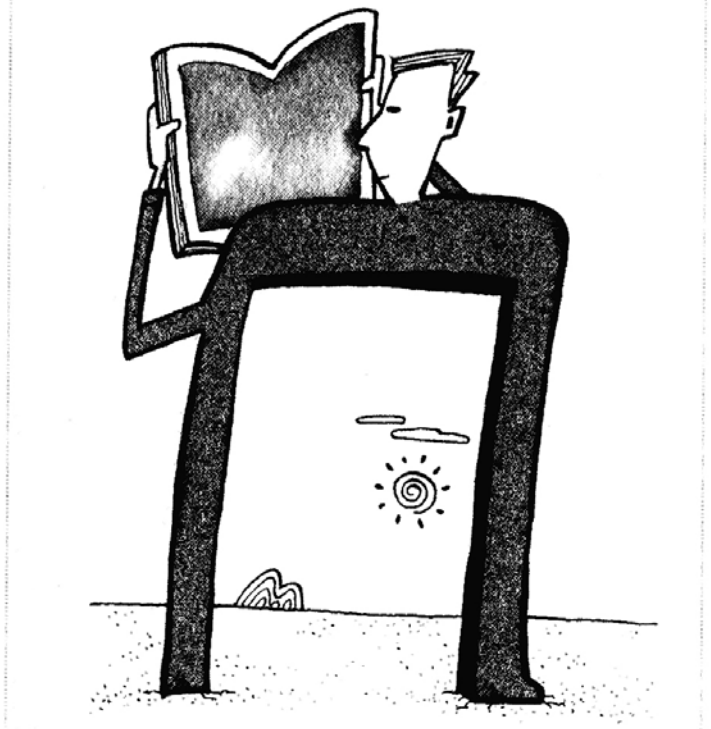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타의에서 구하고 이름으로 찾으니 방황
얽히고 설킨 인연 마음으로 녹여야죠

무슨 부처님이 어디 타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타의에서 구하려고 애를 쓰고, 이름을 보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말을 듣고 마음이 방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선 그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이, 모두 전자에서부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당 칠성각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사람의 인체는 하나고 마음도 하나인데 수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타의에서 찾는, 그런 집착성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인공이니 심주니 했던 거예요. 안으로 자기가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잘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나의 신을 믿으라, 타의의 신을 믿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느니라." 한 예수님의 말. 그래서 자신(自神)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신(自神)이 하는 것이니 '자(子)는 지켜보라, 부(父)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끔 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이렇게도 나투고 저렇게도 나투면서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보라' 이런 말이죠. 그 무겁게 짐진 모든 걸 놔 버려라, 네 마음으로 짐을 지워놓고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놔버리고 쉬어라. 그대로 돌아가면서 여여하니라." 이런 말 뜻을 우리가 새겨서 거름으로 알고 주춧돌로 알고 기둥으로 알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걸음 한걸음 걸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바로 이 생활이 종교요, 종교가 생활이라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병시식을 하라 하는데…

문 매주 현대불교 지면을 통해 스님 말씀을 읽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어떤 인연으로 스님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고 스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 현대불교 신문을 구독해 "길을 묻는 이에게"를 쭉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후덕한 부모님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결혼 후 남편 사업이 잘 돼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학업에도 별 문제없이 대학 진학도 무난히 한 편입니다. 저희 부부도

한생각이 보배입니다
한생각에 따라 인생의 주인되고
팔자운명에 휘말리기도 하죠

되도록이면 남에게 보탬이 될 지언정 해를 입히는 일 없이 살려고 노력해 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회사를 정리하고 지금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 권유로 운명을 잘 봐 준다는 어떤 스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저에게 친정 쪽 조상들 영혼이 붙어 그렇다며 구병제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족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조상님들 영혼이라면 후손에게 해롭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 하나만 당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 눈앞이 캄캄하고 심란합니다. 스님 구병제란 무엇인지요? 스님 말씀대로 빈집에 도둑 들듯이 제가 부족하고 중심이 잡히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하고 열심히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려 합니다만 방법도 잘 모르겠고 마음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님.

답 구병시식을 한다고 해서 영을 좇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본래 좇을 게 없고 본래 나한테 마구니가 든 게 없고 본래 고가 없고 본래 그렇게 아주 평화롭고 좋은 것인데, 일부러 지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신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붙을 게 없다는 것을 이해를 조금 시키고선 "오늘부터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무조건 맡겨 놔라"라고 항상 말씀해드립니다.

우리 지금 선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명상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도 많구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은 모두 타의에서 구하거든요.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일임할 수 있어야 도를 이루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싹이 딴 데를 보고서, '아이고! 나 좀 통하게 해주시오! 나 뭘 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연방 틀어끼고 앉아가지고 상대를 믿고 돌아가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고선 툭하면 조상이 잘못돼서 그러느니 업이 많아서 그러느니 팔자니 운명이니 하며 야단들을 하죠.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배웠든 내가 지금 한발짝 한발짝 걸어다니는 게 어떤 놈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다니는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한 생각 한 생각하는 게 금입니다. 금! 보배고요, 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팔자운명에 휘말려 사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 4, 3 사건이 난 뒤에 일입니다. 큰 구렁이가 뜰뜰 틀고선 집 앞에 와서, 항상 앞에 와서 앉아서 계란을 하나씩 갖다가 툭툭 깨뜨려 먹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놈의 구렁이가 왜 우리 귀한, 예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계란이 귀했습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도 못 먹는 계란을 이 구렁이가 갖다가 먹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알미웠던지 죽여야지 하고 별렀답니다. 그러고는 밤에 잠을 자려니까, 이건 어느 스님의 말씀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아마 삼매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턱 일어서는데 보니까 자기 친척집 할아버지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그 4, 3 사건이 났을 때에 그만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그래, 네가 얼른 내 이 옷을 좀 벗겨다오"이러시더랍니다. "내가 옷 벗기 위해서 네 눈에 이렇게 뵈고 있지 않니?"하더랍니다. "제발 좀 이 옷을 벗어야 할텐데 내 자유로서 옷을 벗을 수는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죽이려다가 마음이 여려서 못 죽이고, 사흘을 내리 그러다가 그때는 돌을 가지고 그냥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죽이던 날 저녁에 꿈에 할아버지가"내 모습을 이렇게 벗겨줘서 나는 이제 환생을 하느니라"하면서 그냥 그 공중으로 사인교를 타고 가시더랍니다. 이러한 일도 있듯이, 이렇게 꿈과 생시도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꿈도 그렇게 꾸어지고, 꿈에 생각을 하는 것이 생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꿈이나 생시나 '아, 주인공은 바로 내 뿌리야. 한마음이 뭉쳐진 이 뿌리는 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뿌리만이 해결 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거는 다 원자에서 분자가 나가고 입자가 돼서 화하듯이 그리고 또 나가서 원자가 되듯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법을 열심히 배우셔서 실천을 해 보실 때에 바로 체험도 하시고 일도 성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행스님과 한자리 되는 이치

문 대행스님을 만나는 비결은 무엇이고, 대행스님 자리하고 내 자리가 한자리가 되는 이치를 글이 아닌 글로 전해 주십시오.

답 여러분, 제 삼자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없든지 있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내내, 세세생생에 이끌어 갈 수 있는 너야, 이끌어 온 것도 너니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한데 맡겨 놓으면,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난 누가 뭐래도 편안하게 삽니다. 싱긋이 한번 더 웃음이 나면 덜 늙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나를 알게 될 겁니다. 어디 가서 살고 있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내가 여기만 있는지, 아니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만 살고 있는지 어디 또 다른곳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요. 그래야 나와 한자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잠을 통 못 주무시는 분
▶이유없이 몸 아프신 분
▶종일 온몸이 나른하신 분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노약자, 사업이 부진하신 분
▶기타 운세의 호전을 원하시는 분
02)734-2118
011)239-6817

神 문제 神 환자
역학 · 신통
대전 (042)
672-2243
016)
495-2243
法 惠

수삼 도소 매매 (參)
금산수삼센터
017)
242-4765
〈불자님만 공급함〉

체질식 =무병장수
100%
체질분류비법
(난치병 상담)
미타암
0552)
582-6013

강좌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무게부피有
2.견성: 불래야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 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역학수강생 모집
■ 명리학(사주 수명)
■ 주역(매화역수법 육효점법)
6개월과정 주3회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02)389-9946

사주 명리학 배우실 분
◐개강 : 10월 25일부터 주3회
(월수금) 4개월간
◐강의: 기초부터 간명 실습까지
책임완성
◐수강료 : 월 15만원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장소: 마포구 망원동 474-15
02)323-4050/4480
선주포교원

남녀 철학원생 모집
◆인생의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관달마포교원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구인

스님지망생,법사구함
본사찰은 유치원, 학원을
운영하며 도심포교의
진력하는 포교도량으로,
주지스님도와 포교에 매진하며 공부
할 젊은 인재를 구함.
군필한 30세 미만 고졸이상 성실한자.
(인천소재)
017)321-4883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458)337-3841
011)428-826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82)533-2133

공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기도도량 청강사
0599)932-5706

공양주 보살 구함
정토사
0338)
771-8209,8210

구 인
약간씩의 힘을 하쳐 불교신앙촌(공동사찰)을 창건, 생활하면서 정법불교공부와 법회, 봉사활동등 으로 보람있고 칭찬받는 여생을 보내고 싶은 연세지긋한 사부대중 불자님과 의견교환하고 싶습니다.
0563)336-4480
박청산 처사 합장

사찰을 지을 땅 보시하실 분 찾습니다.
사찰지을 재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1)9027-827

법당보살님(처사) 구합니다.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화사
0414)742-2057

무료기초교리 · 천수경강좌
저희 사찰은 재가불자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로 위 강의를 무료로 개설하였으니 많은 불자들의 참여바랍니다.
● 개강 : 2개월 과정, 주 1회 150분 강의
- 기초교리반(10월 5일 오후 2시)
- 천수경반(10월 8일 오후 2시)
● 강의 : 심준보 법사(동대 박사 수료)
● 수시 접수 가능
백화도량 수미정사 부설 재가불자교육원
동대문구 용두2동 118-87(동대문 구청 300M)

암 환자 임상연구 대상모집
말기 암 환자라도 완치에 도전합니다.
현대인술의 한계를 극복한 미래의 바른 인술을 임상연구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 상: 암 환자 및 어떤 병이든 중환자
▶모집인원: 00명(신심깊은 불자님 우선)
▶비 용: 무료
02)355-5523 원장 정공 합장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기타

건강에의 신비! 춘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복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어린 학생들과 군불자들이 다니는 삼보의 성전을 살려 주십시오.
시가 2억 7천원하는 사찰이 군법당과 법당 개축도중 부도로 업자가 행방불명된 후 은행빚으로 경매에 낙찰되어 이제 10월 30일안으로 너무나도 억울한 값 1억 2천오백만원을 부동산 업자에게 넘어가 절이 없어집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고마우니 불자님들의 십시 일반으로 어린 꼬마보살들에게 부처님의 원력을 보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일억 5천만원이 되면 채무변제되고 경매 취하되면 은행의 융자받아 起死回生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우신 분께 금전 갚을 수 있습니다.
독지가 불자님이 계시면 등기 이전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518402-01-023529 주택은행 함 영 운
1999년 10월 10일 (02)802-9239 휴대폰 011-349-3707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8-3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주지 직인 무효 공고
■소 속: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사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2
1999년 10월 13일 이후 사용한 약사사 주지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불기 2543(1999)년 10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사 주지** 장영하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법당 : 20평
◇요사 : 50평
◇부지 : 100평
◇가액 : 2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충북 ◇법당: 35평(칠포집)
◇부지: 400평 ◇요사: 4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위치: 서울 ◇법당: 15평
◇부지: 만평 ◇요사: 25평
◇가액 : 15억
02)723-4082 **광진불사**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토굴 안내
◆위치 : 광양시 진월면 부근
◆대지 : 137평(건평40평)
◆가액 : 3천 5백
◆천연안반수, 방3, 주방, 큰창고 (법당가능)
◆조용한시골 (바닷가 차편 10분거리)
0667)772-6968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
(댐부근 경관좋은도량)
◆부지 : 1100평 ◆법당:33평
◆요사 : 40평 ◆기타 19평
◆특징 : 산속바위틈에서 나오는 일급 생수 무한량 중공사면 당시소유된 공사금에 3억6천만원 급한사정으로 답사후 최저가격절충 시설비 일체 무상기증
0599)933-8599

천탑 천불 조성하는데 같이 투자하여 창건주로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청정수행도량 **천탑사**
◆6만도량내에 사찰부지 1,800평 · 기외단층, · 요사채 50평 · 임시법당 외 방10칸 · 천탑조성하고 있는 중
◆도량경치는 아주 좋음
◆가격은 인수하실 분이 답사한 후 결정함
0373)378-4777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에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포교원 안내
◆위치 : 방이동
올림픽 아파트 사거리
◆평수 : 30평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775-8200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도청앞
삼성생명 빌딩옆
◆최신시설 완비, 3층 50평
◆가액 : 전세 3천(월세가능)
권리금 3천만원(절충가능)
석 림 사
011)209-1016
042)221-1071~3

토굴 터 암자 안내
◆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지 : 60평 ◆밭 : 120평
◆시골집건물 1채
◆가격 : 2천만원
0581)555-5084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지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431)223-0377/011)430-9051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진역 부로 대로변
◆평수 : 3층 건물 22평
시장상가 밀집지역
◆가액 : 보증금 3백(월 25만원)
시설비 있음
011)563-4454

사찰 안내
◆위치: 대구시 수성구 파동 445-1
◆부지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 용왕당 · 방6칸
시유휴부지 사용 可
◆가액: 1억 8천만원(절충可)
053)768-5788

大사찰지 안내
◆현재 허가사찰물 : 석굴암,요사채, 산신각, 법당, 5층탑, 아미타불, 간음보살, 불상
◆신규미륵성지조성분 500평, 법당 · 요사채 신축지 500평, 1500평 허가지가 2억 5천, 2천 5백평 신규시설지 3억5천
충주댐 진입로접도 사찰 불암사 1만평 중 분할가
충주 0441)848-1766
야간 불암사 853-2896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부근
◆대지 450평, 건평80평
◆황토방1, 방1, 거실1, 창고1
◆조경 · 주차시설완비 · 계곡흐름
◆가액 : 9500만원 (절충가능)
011)9601-4228
0596)973-520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입구
◆대지 : 303평 야전임 160평
◆건평 : 법당 15평
요사채 33평(방5개)
◆계곡 전망 좋음, 식수풍부
주차시설완비
◆가액: 1억 7천 5백만원
0596)973-5201
011)570-334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입구
(지리산)
◆ 대지 : 300평(총토지 2000평정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
◆ 벌장토굴최적지
◆ 가액 : 6.500만원(절충가능)
011)9601-4228
0596)973-5201

절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
- 서울에서 1시간
- 음성톨게이트에서 3분거리)
◆평수 임야 5,500평
◆가액: 평당 15,000평 (절충가능)
02)521-3389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토굴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부근
◆임법당 및 황토방, 산세 좋음
◆가액 : 전세 1,500만원
매매 5,000만원
◆조건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황토방 안내
◆태백산 적송으로 지은 황토방2칸
◆규격: 열자방 다락과 벽장완비
◆자격: 부처님을 믿는 선남선녀 및 노후와 극락왕생을 준비하는 분
◆1인 1칸 이천만원 · 2인 1칸 삼천만원
◆법당 30평 대중칸 40평
◆대지 1300평 숲 300만평활용
◆자세한 내용 본 절에 상의바람
◆위치: 경남 고성군 배가면
연지리 902번지 **관음정사**
011-839-4862/019-556-5036

사찰 안내
서울 · 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 · 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시
◆부지 10,000평
◆법당 30평(목조 주삼포)
◆산새 좋음
◆가액 : 4억 7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함양읍내
◆부지 : 3천 5백평
◆법당 : 40평(목조, 주삼포)
◆요사채 30평
◆산새 계곡 절경임
◆국도에서 5분거리임
◆가액 : 7억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법륜사**
서울 수색과 경기 화전 10분거리
◆서울 일산 포교에 적합
◆평수 총 26평(법당)
◆시설외 일체 인수
◆가격 : 1억(시설비 없음)절충가능
◆전화상담요망
02)3158-3448/018)382-3448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1억(가격 절충)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절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
- 서울에서 1시간
- 음성톨게이트에서 3분거리)
◆평수 임야 5,500평
◆가액: 평당 15,000원 (절충가능)
02)521-3389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금정구
◆경치좋고 교통편리
◆대지400평, 법당15평, 방2
욕실 화장실
◆보증금 500 월 2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851-0115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병원 특진제 없앤다

생활 병원 '특진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되고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되 진료비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선택진료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봉투 두꺼워진다

생활 서울 시내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두꺼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봉투가 너무 얇아 잘 찢어진다는 시민 불만이 커 두께를 현재의 0.02mm에서 0.025mm로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두꺼워진 종량제 봉투가 보급될 예정이다.

열차 정기승차권도 좌석지정

교통 철도청은 11일부터 통학생·통근자 등 열차 정기승차권 이용 승객도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법정 공휴일과 설·추석 특별수송 기간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승차구간 요금의 10%를 더 내고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 대출상품 잇달아

금융 결혼자금으로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여신전문기관들의 대출상품이 나왔다. 삼성캐피탈은 25세 이상 35세 이하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한다. 초과금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보증이 있으면 된다.(02-772-6411) LG캐피탈도 500만원까지 무보증이고 보증의 경우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02-3420-7000)

철거민용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 서울시는 철거민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아파트 특별공급 정보시스템'을 개발, 이달 하순께 각 구청에 설치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낡은 시민아파트의 철거,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들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신청, 입주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2~3개월에서 1개월로 줄게 된다.

요구르트 항암효과 있다

건강 '요구르트를 마시면 방광암과 결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유산균과 건강'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요구르트 등 유산균제품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은 서울의대 교수는 유산균제품에 포함된 카제이 유산균이 방광암을 예방해 준다고 밝혔다.

"미래 시민사회 이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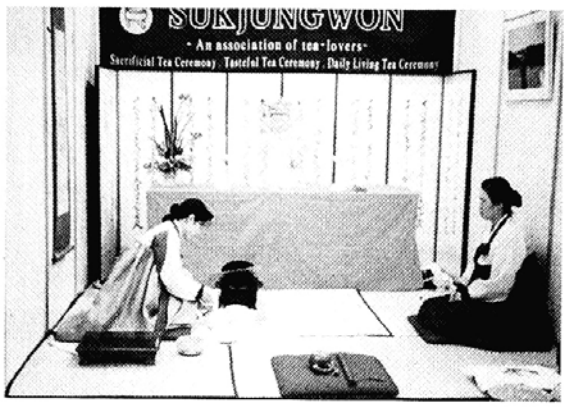
'99서울 NGO세계대회 1천115개 단체 7천6백명 참가
교계 10여단체 동참 21세기 불교NGO 방향 등 모색

국내외 1천115개 단체 7천600명이 참가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던 '99서울 NGO 세계대회는 20세기 마지막 대회이자 사상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서울대회는 NGO들이 '제5의 권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21세기가 NGO시대가 될 것임을 예견하는 한마당이었다. 15일에는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자'는 내용의 NGO 서울선언문도 발표됐다.

이번 대회는 ▲20세기의 회고 ▲21세기의 전망 ▲인류문명의 평가▲NGO의 활성화 ▲미래의 진로 등 5차례의 전체회의와 주제별 종합회의 및 분과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전 세계의 NGO들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세기의 역할과 활동을 다시 규정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한국 NGO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GO의 힘은 무엇보다 그 전문성과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잘 구축된 현지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보수집 능력과 민첩한 행동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NGO가 실제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재야세력이 활동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종합적 성격의 NGO로 성장하고 있다.



◇ 불교계 NGO들도 이번 서울대회에 적극 참여, 21세기 운동방향을 모색했다. 사진은 석정원 차회가 헌공다례법을 시연하는 장면.

불교계도 21세기 NGO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번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좋은벗들과 불교환경교육원, 한국JTS 등이 아시아의 난민실태 및 소비주의 극복, 북한의 식량위기 등을 주제로 각각 분과토론을 주관했으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와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차회, 좋은벗들, 한국JTS 등이 각각 부스를 마련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불련, 전불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가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참가해 21세기 불교 NGO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NGO 자신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GO의 성공여부는 민주적 참여와 전문성의 확립, 재정적 취약성 극복,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헌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권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은 NGO 시대를 맞아 곰곰이 되씹어 볼만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사상은 NGO의 이론적 토대"

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불교가 21세기 사상을 주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NGO들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목표에는 대부분 불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불교사상은 분명 NGO의 이론적 토대로 손색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직까지 불교 NGO의 활동은 미약한 편이지만 국내 NGO들은 물론 국제적인 연대의 틀을 모색한다면 불교도 이론과 조직을 겸비한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각국 NGO들의 활동과 경험을 적극 수용해 불교사회운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작년 18초당 1건 범죄 발생

범죄발생 평균시간을 나타내는 '범죄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광원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 백서를 분석한 것에 따른 것으로, 96년 22초당 1건의 범죄가 발생했던데 비해 지난해에는 18초당 1건의 범죄가 발생해 2년 사이에 '범죄시계'가 4초나 빨라졌다.

지난해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부문별 '범죄시계'를 보면 △살인 9시간5분 △강도 1시간35분 △강간 1시간28분 △절도 5분49초 △폭력은 2분19초마다 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96년 '범죄시계'에 비해 △살인 3시간49초 △강도 48분 △강간 6분 △절도 1분41초 △폭력 23초씩 각각 빨라졌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올해 8월말까지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 평균시간이 19.7초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7초 늦어진 것을 비롯해 강도(27분)와 절도(1분11초)는 늦어지고 살인(1분) 강간(4분) 폭력(20초)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허영심 부추기는 일요일 '가짜마켓'

서울 등 대도시에 청소년 대상 대형 쇼핑센터에서 일요일마다 '가짜 마켓'이 형성돼 국내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흉내낸 가방 핸드백 신발 옷 등이 날개돋힌 듯이 팔리고 있다.

주고객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젊은층. 일요일에는 '진짜같은' 가짜 제품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들이 즐겨 매장을 찾는다.

소비자단체들은 "진짜 같은 가짜를 싸게 사놓고 실속차린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위험천만"이라며 "가짜 마켓의 번성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론

가슴 답답한 일



김재성 〈대한매일 편집국 부국장〉

"힘자랑·재판놀음 머리깎지 않아도 할수 있을텐데…"

10월 12일 오전 7시 2분(한국시간) 세계인구 60억 돌파를 의미하는 60억명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20세기의 업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새 가족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아가야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오늘 태어난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완벽한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실패한다 해도 최소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 줄 수는 있을 거야. 두려워 말아라. 아가야. 우리는 널 기다리고 있다."(에이리얼 도프먼·칠레의 반체제 작가)

"나는 너를 가난과 층알과 폭력과 에이즈로부터, 침묵과 어리석음과 부패한 인간들로부터 지킬거야"(안트예 크록·반인종차별 시인)

유엔은 이 메시지들을 모아 '60억번째 세계시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한 권의 책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 책에 수록된 편지들은 60억번째 지구촌 가족이 맞을 새 천년을 20세기 인류가 지은 업, 전쟁, 기아, 에이즈, 환경파괴 자연고갈, 그리고 종족, 민족 개인간의 갈등과 증오 등 아기가 감당해야 할 짐을 걱정했다. 그리고 이 책 기획 편집을 맡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단순한 숫자상의 의미뿐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난 총장은 "이 아이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천사"라고 했다.

사내아이라고 했던가. 12일 0시 2분(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 현지시간) 이 아이가 터트린 힘찬 울음을 깨인 지성들은 몽매한 인류에게 던진 큰스님의 할(喝)로 들었다. 그 고고의 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문명이라는 이름의 무명의 껍질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속에 갇혀 살아야 할 인류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었다.

바로 그 날, 한 핏덩이가 터트린 울음소리에 인류가 잠시 숙연해진 날 우리의 스님들은 또 한번 난투극을 보여 주었다. 이 민망한 장면을 글쟁이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잿밥 싸움'으로만 매도할 생각은 없다. 아니 그래서도 안된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늑대는 아랑곳없이 뿔싸움에만 열중인 염소들도 그 나름의 까닭이 있으리라. 하물며 스님들이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우는데야 분명히 가려야 할 옳고 그름이 왜 없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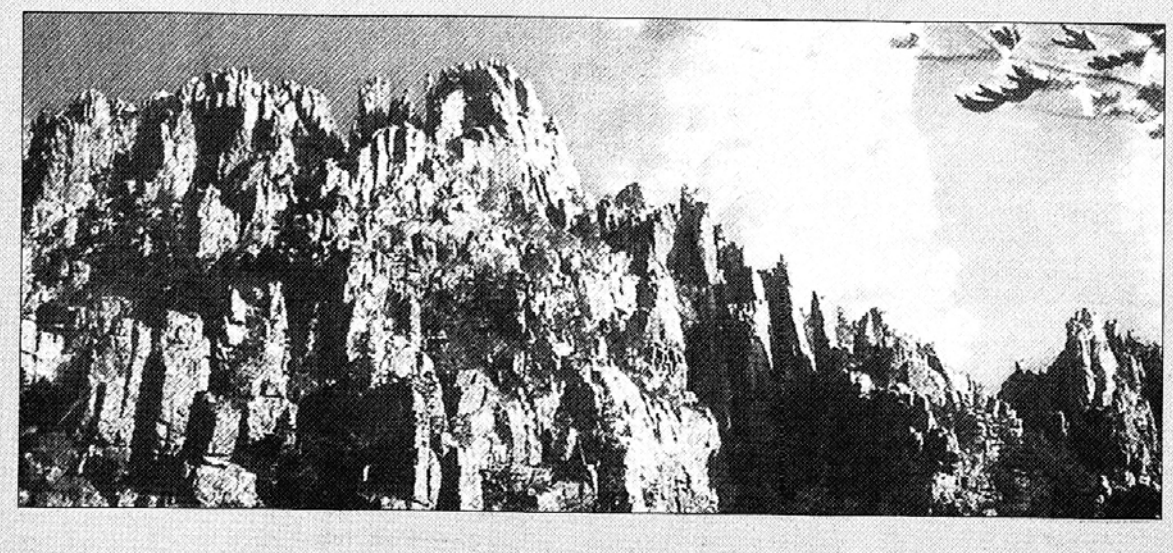
이미 대중공사가 끝난 마당에 그래도 내 주장을 기어이 관철해야겠다는 아집도 수긍이 간다. 그 쇠고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언어도단의 화두 하나 붙들고 평생을 씨름할 수 있겠는가? 스님들이 시비에 유난한 것도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저자거리 사람들에 비해 스님들은 사리를 분별하는 센서가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 섬세함이 세속에서 같으면 좋은 것이 좋은 식으로 넘어갈 일도 목숨을 건 시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스님들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승가세계를 아는 사람이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대목이다. 다만 궁금한 것은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초발심이 과연 달팽이 뿔 위에서의 놀음같은 그 짓 하기 위함이었던가 그것을 묻고 싶다.

힘 자랑 재판놀음 같은 것은 머리깎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뱃짱 그런 지모로 세속에서 싸우면 더 성공할 수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먹물옷 입고 그 짓을 할까. 불자들은 그 점을 못내 궁금해 한다.

하화중생은 아예 얘기하지도 말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분들에게 대중교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듯 싶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구월심 상구보리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중생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요, 더없는 교화가 아닐까.

싸우는 스님들에게 60억명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관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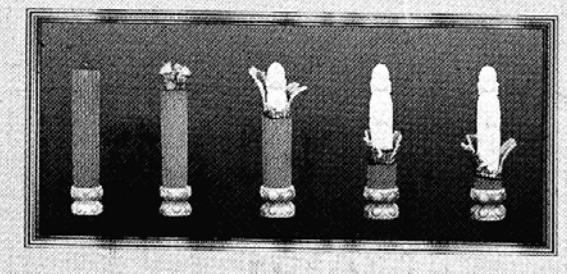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9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88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6 · 속초 : 광영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인터넷 통해 N세대와 가까워졌으면"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21세기 주역 청소년 21명의 '내가 바라는 불교'

톡톡 튀는 신세대들.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불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본지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새 밀레니엄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의 주역 청소년불자 21명에게 그들이 원하는 21세기 한국 불교의 모습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그림 · 최정근

사찰을 청소년의 쉼터로

서창우(전남고1) 중학교 1학년 처음 절에 갔을 때에는 스님의 삭발한 모습이 낯설었고 합장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절이라는 곳은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차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절에서의 모든 생활이 즐거움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나처럼 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찾아와 고민도 털어놓고, 좋은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었으면 한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산희(광주송원여고1) 우리 나라 사찰들은 청소년을 위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법회와 방학때 열리는 수련회가 고작이다. 그리고 법문도 늘 딱딱하게만 느껴진다. 일반 청소년도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특히 현재의 어른들 위주로 돼 있는 사찰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찰을 찾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분위기 쇄신

오동준(제주제일고2) 많은 청소년들이 불교 하면 구식이고 할머니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다. 나 또한 룸비니학생회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보다는 막연히 종교적인 면만을 강조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청소년들이 결국엔 실망만을 안고 돌아가곤 한다. 기존의 찬란한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발맞추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절마다 청소년시설 확충

고상언(제주일고2) 타종교의 경우는 지역 곳곳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어, 청소년들이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 불자 청소년들은 절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찾아갈 곳이 별로 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도 함께 이야기하고, 불교적 관심사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찰학생회 활성화 돼야

남지원(서울서문여중3) 나는 요즘 우리는선우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참 좋다. 선우같은 단체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기독교 같은 경우 신도도 많고, 단체도 많고, 그에따른 조직도 탄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아직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단체, 그런 프로그램을 갖춘 사찰학생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 불서' 발행 늘려야

이창건(서울숭문고2) 불교에 대해 알고싶어도 딱딱한 책 일쑤고 한문도 너무 많고, 풀이도 난해하다. 한글세대인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경전과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지니고 읽으면서 생활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우리또래 청소년불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남녀노소 모두 찾는 불교

강현미(서울 명성여고1) 불교 단체나 사찰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 중심이다. 우리같은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현재 학교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교에 관심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사실 어떻게 불교를 접해야 하는 지 모르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에만 반짝하는 불교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안는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캐릭터로 친근한 상 심어

김경미(경북영양여고2) 캐릭터를 잘 활용하면 불교가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다. 캐릭터로 인형을 만들거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컴퓨터 게임 주인공으로 쓰거나 불교잡지 등에 마스코트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실현된다면 불교는 친숙한 종교가 될 것이다.

신세대가 호감갖는 불교

김아롱(서울명성여고2) 불교종립학교를 다니는게 인연이 돼서 불교를 알게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 종교조사를 할 때 보면 불교신자인 친구들은 손도 잘 안들고 소극적이다. 여전히 불교는 우리 신세대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 불교계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 많은 청소년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불교교리 체계있게 교육

김수경(서울명덕여고2)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있을 때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들 묻곤 한다. "불교가 뭐니? 기독교는 뭐야?"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때 가장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이들이 바로 불자들이다. 엄마따라서 절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자기가 믿는 불교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어려서 부터 불교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었으면 한다.

인생목표 밝혀주는 종교

이연희(대구경명여고2) 佛은 영원한 생명, 즉 진리이고, 敎는 그런 진리를 설해 놓은 가르침의 말씀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듯 진리가 여여하게 돌아가 생활의 근본이 됨도 당연하기에 21세기에는 불교가 종교로서가 아닌 진리의 차원에서 그 도리를 찾아가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알려주는 근본이 되기를 발원한다.

대중매체 포교활동 강화

정은경(대구경북여고1) 불교가 생활속에서 쉽고, 재미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대중 매체에서 불교홍보를 많이 했으면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라디오, 텔레비젼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에서의 퀴즈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연등행사, 사경대회, 찬불가 경연 등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계획해 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면 참 좋겠다.

인터넷 · PC통신등 활용

이지훈(대구능인고1) 불교는 너무 어렵다. 내 친구들도 고작 아는 거라고는 부처님오신날 정도지 이상의 것은 잘 알지 못한다.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는 것이 따분할 정도로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통신에 불교에 대한 정보를 좀더 많이 접하도록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불교로 다시 탄생할 것이다.

사회 봉사활동 널리 펴야

김휘(대구능인고1) 생활 속의 불교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보수적 분위기에서 벗어 났으면 한다. 그동안 사찰이 주로 산에 있어서인지 보수적이고 은거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많이 펴는 종교가 되기를 바란다. TV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종교인들로서 불자들이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절하고 자상한 상담을

문영주(부산성물여고1) 뚝같은 이야기라도 스님들이 하시면 더 마음에 속속 스며든다. 스님들이 우리같은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 주시고 상담도 잘 받아 주셨으면 한다. 스님을 자주 만나 좋은 말씀을 듣고 불교를 배울수 있으면 불교가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다. 또한 〈금강경〉이나 기초교리등의 과정을 청소년들에게 맞게 재미있게 바꿔 교육해 주었으면 한다.

스님들 제발 안싸웠으면

이지은(부산학장여중3) 지난해 TV를 통해 스님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상했다. 자비와 보살행을 가르치시는 스님들이 왜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지 이해되지 않았다. 제발 스님들이 싸우지 마시고 수행에만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또 신도 누구에게나 반말을 하는 스님들을 보았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신도에게도 반말을 하는 스님들이 있다. 스님들이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부드럽게 부처님처럼 대해주셨으면 한다.

정신세계 이끌어주도록

노경민(부산해동중1) 나는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폭넓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할 것인데 너무 물질적인 과학문명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깨닫게 하는 정신적 분야가 함께 발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접근하는 불교, 재미있고 쉬운 불교로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그 한분야가 컴퓨터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불교자료를 찾아보고 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찬불가 창작 많아졌으면

박주경(부산외국어고1) 청소년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찬불가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축하는 보편적인 명절로 자리잡았듯 부처님오신날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청소년법회, 수련회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었으면 한다.

부끄러운 불교모습 청산

남기용(서울세화고2) 기복적 신앙만으로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고 본다. 세상에 모범이 되기위해서는 우선 불교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청산해야 한다. 지난해 일어났던 조계종 사태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그렇게 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21세기의 진정한 종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게임 · 교리 사이트등 개발

민영태(인천부평고2) 매일 인터넷에 접속해 이곳 저곳을 찾아 가보지만 불교정보도 한정돼 있고, 신속성이나 아이디어면에서도 뒤쳐지는 것 같다. 특히 불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나 교리공부 등의 사이트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불교가 발전해 가길 원한다.

청소년 유행흐름도 이해

신형민(의정부고1) 사찰에 가면 스님이나 지도법사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최근 유행이나 성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다.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힙합바지를 입고, 귀걸이등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나쁜 아이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될 때가 있다.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변화를 편견없이 지켜봐줄수 있는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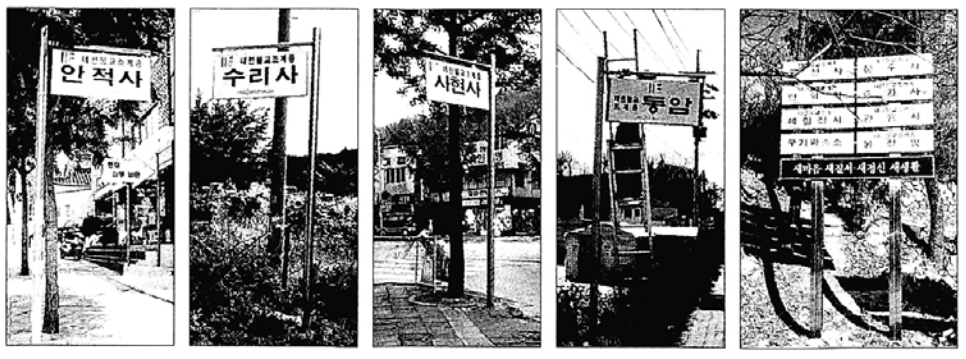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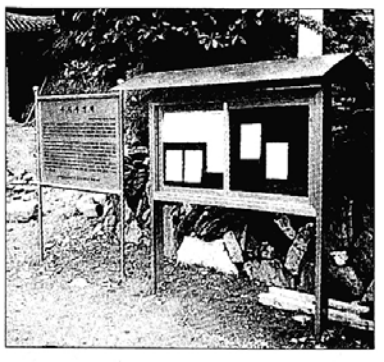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신제품

걸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觀世音菩薩의 慈心으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우체국	013805-0068619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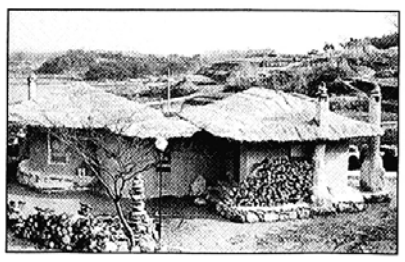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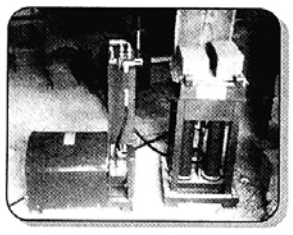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 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氣天門 活命法 전수학교

기천 '활명지도사' 특반과정 안내

우리민족 '氣' 문화의 정수인 '氣天'의 심신 수련법을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전하고, 21세기 새천년에 세계인류의 건강을 이끌어갈 **'활명지도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① 일반인(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② 한 . 양방 의료인 및 해당학과 학생
③ 기천 수련경력 2년 이상인 자(일반 무예수련 3년이상)

2. 모집일정

- 신청기간 : 1999년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 교육기간 : 1999년 11월21일부터 2000년 5월 21일까지
(주1회 일요일 / 주2회 토·일요일)

3. 강좌안내

활명육법, 심법, 예법, 내공, 외공, 단수, 도인법,
단신호흡, 음파공 등, 기천 활명법 전반

4. 교육장소 기천문 도곡수련원, 문막 산중수련원

5. 졸업후 특전

기천 활명지도자 자격증 부여, 추가교육후 기천 활명수련원 개원자격부여(사회단체 법불 제33조 및 본 협회 정관에 의거함. 특허등록 제 03318호에 의한 혜택 공유)

6. 접수장소 및 문의전화

접수 장소 : 서초기천본문 02-523-0075, 도곡기천수련원 02-577-1993
문의 전화 : 역곡 수련원 032-348-3404, 명가 한의원 032-651-7823

기천문 대표 활명학교 교장 이 상 원

기천 활명법이란?

산중에서 비전 되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 단련법이다.
기천은 자신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스스로 치유한다.
단 전호흡과 역근법, 그리고 수승화강법을 통하여 다스크 순환장애 당뇨 고혈압, 고질적 건선 비만등의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기천의 초대문주 대양진인은 '기천활명법을 시행하면 기운이 단전에 쌓이고 순환이 원활해져 질병이 침범하지 못해 천강의 건강체가 된다'고 하였다.

신개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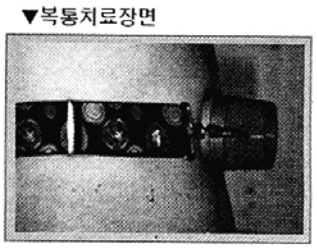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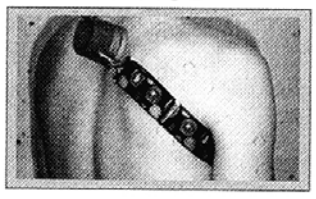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컨택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 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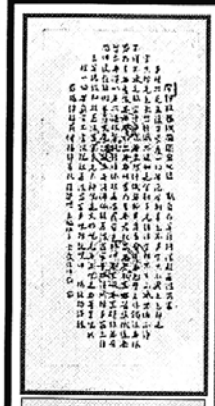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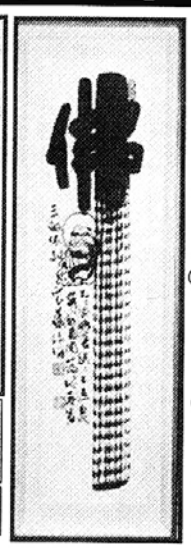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籠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잘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佛字체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金剛經 五家解 講座

日時 : 每週 水 午後 七時

元曉思想研究所
法師 沈載烈 所長

문의 02) 3672-9097

보조국사가 보현보살의 후신이라고 추앙한
이통현 장자의

약석 신화엄경론

화엄경의 방대한 조직체계를 요약하여
수행의 차제를 핵심적으로 밝혀놓은 책

화엄경의 세계는 거대하기도 하고 미세하기도 하여 일반인은 물론 전문 수행자라 할지라도 고인의 논소를 의지하지 않고서 화엄의 문에 올바로 들어가기는 심히 어렵다. 이 책을 통해 화엄의 세계를 총괄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화엄경에 들어간다면, 비록 화엄의 바다가 광대하고 무변하다고 할지라도 헤매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의 해설은 다른 역해본들과 달리 역해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하기보다 대가들의 논소에 의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즉 이통현 장자의 대론과 청량국사의 화엄경소, 계환선사의 화엄요해와 덕청선사의 화엄강요를 인용하고 있어, 이는 다른 대가들을 만나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선지식의 법문을 중점적으로 요약한 「약석 신화엄경 수행차제 결의론」,
십이인연법을 근간으로 삼아 열가지 문을 세워서 밝힌 「해미현지성비 십명론」,
화엄경 80권의 대의를 간략하게 서술한 「대방광불화엄경중 권권대의 약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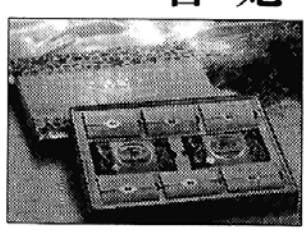


이통현 장자 저, 효산스님 역해/사륙배판 양장/496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법회안내

인천 보리회 법회



원광스님(삼장불교문서포교원)은 24일 오후 2시 인천불교보리회 법회. 032)866-6969

연기법 주제법문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27일 오후 7시30분 서울불청 만해교육원에서 '연기법'을 주제로 법문. 02)730-9108

금강정사 일요법회

지명스님(인천 능인사)은 24일 오전 10시30분 금강정사 일요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 02)893-2700

한국 불교사상 강의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23일 오후3시30분 한국불교연구원 구도법당에서 '한국불교사상'에 대해 강의. 02)3411-6167

반야심경 사경법회

이운장 법사(한국불교예술문화원 지도법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2시 〈반야심경〉 사경법회.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0월20일 (수)

■ '아나바다' 대바자회=정토법당 승만회는 오후1시~5시 서초동 정토법당 앞마당에서 '아나바다'를 위한 바자회를 연다. 바자회에서는 의류, 식기류, 신발, 고추가루, 장신구 등과 먹거리 등의 품목이 다뤄진다. 02)587-8993

■ 월정사 성지순례=강남포교원은 천년고찰의 장엄함과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 위한 강원도 월정사 성지순례를 개최한다. 출발은 오전7시, 한서병원 앞. 02)539-2631



◇전국의 산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면서 산사를 찾는 발길이 분주해졌다.

■ 송광사, 불일암, 대원사 3사 순례=길상사 보현회는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오전 9시 길상사에서 모여 송광사, 불일암, 대원사, 소쇄원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11-9753-3934

10월21일 (목)

■ 위빠사나, 사마타법회=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은 개원 기념으로 23일까지 3일간 오전 11시~오후4시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겸한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수행실수는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02)928-2844

10월22일 (금)

■ 이현주목사 초청 강연=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자발적인 청빈, 주체적인 가난의 즐거움'을 주제로 이현주 목사(예수살기모임 대표)의 강연을 마련한다. 02)587-8997

■ 무의탁 어르신과 재가장애인 가을나들이=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국민관광지에서 무의탁 어르신과 재가장애인 가을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02)817-8052

10월23일 (토)

■ 가을 봉정사-안동 고건축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무박2일로 가을 봉정사, 영산암과 병산서원, 하회마을, 안동 민속박물관 등 안동 고건축을 찾아 나선다. 참가비는 5만원. 02)725-1284

■ 우리는선우 가을 정기수련회=우리는 선우는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가을 정기수련회를 갖는다. 회원·비회원 누구나 참석 가능한 수련회는 1박2일 동안 기도정진과 등산, 선우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2278-8672

10월24일 (일)

■ 관악산 매립쓰레기 캐내기=맑고향기롭게는 오전 10부터 관악산에서 생태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립쓰레기 캐내기 운동을 실시한다. 토양 및 계곡 물의 오염과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찾아내 건강한 숲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02)741-4696

■ 장두석회장 초청 민족의학 강좌=정토회는 오전 11시 정토법당에서 민족생활의학회 장두석 회장을 초청, '민족의학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해 듣는다. 02)587-8993

■ 탑사·송광사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서울지하철법우회는 마이산 탑사와 전주 송광사 참배길에 오른다. 방생법회도 있을 예정. 02)412-0108

10월25일 (월)

■ 유재현씨 초청 환경운동 강좌=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유재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초청, '세계환경정책의 흐름과 국제NGO의 운동'에 대한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02)587-8997

게 시 판

알림

▲선재어린이 전래놀이대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31일 오전 9시~오후5시 강남 봉은사에서 서울·경기지역 어린이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선재 어린이 전래놀이 대회를 개최한다. 051)868-6622

▲연극 '철안붓다' 개막=극단 유시어터는 성수대교 북단 확장공사 현장 특설무대에서 연극 '철안붓다'를 공연한다. 02)3444-0651

▲뮤지컬 '팔만대장경'=극단 현대극장은 11월8일에서 14일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팔만대장경'을 선보인다. 02)762-6194

▲전통사찰음식 시식회=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30일까지 매일 1백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사찰음식 시식회를 마련한다. 0396)672-2448

▲동국대 부속중고교학연구발표회=동국대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는 22일 중학교 교학수업 특별실과 고등학교 법당에서 '불교 코스웨어 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교학연구발교회를 갖는다. 중학교 02)2242-3918 고등학교 02)2217-9696

▲무료도배서비스=자양사회복지관은 노인, 아동, 장애인, 실직자 등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무료 도배서비스를 실시한다. 02)458-1664

▲중앙승가대 16기 정기 총회=중앙승가대학교 16기(94학번) 졸업생 정기총회가 29일 오후 2시 승가대 비구수행관 법당에서 열린다. 032)937-6959

강좌

▲머리미용 자격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야간 2부제로 머리미용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수강료는 3만7천원이며, 4개월 과정이다. 02)817-8052

▲가정폭력·자아발견 강좌=한국여성상담센터는 1박2일간 숭실대 사회봉사관 3층 관악산 회의실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관한 세미나 및 자아발견 강좌를 연다. 02)443-3997

▲심리극을 통한 자녀이해=양정청소년회관은 22일 오후 3시30분 신경정신과 전문의 최헌진씨를 초청 '심리극을 통한 자녀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대상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 2백명이다. 무료. 051)868-0750

모집

▲법화사 합창단원=제주 법화사는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단원을 모집한다. 합창단은 전 한라전문대학 생활음악과 권영희 교수의 지도로 주1회 저녁7시30분~9시 연습하게 된다. 064)738-5225

▲스포츠댄스 수강생=양정청소년회관은 11월 첫째주 개강하는 스포츠댄스 건강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868-0750

▲디지털 대장경 후원금=고려대장경연구소는 미래 사이버공간 속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팔만대장경을 위한 전산화 불사에 후원자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02)3785-0632

▲무료 세탁서비스 대상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무료 세탁서비스를 실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02)385-1351

▲노인자원봉사자=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거동불편한 노인들의 손발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미술활동 지도보조자 1명, 차량운행시 보조자 1명 등이다. 02)806-1375

▲차량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노인들의 밑반찬 배달 및 병원동행, 결식청소년 도시락 배달을 도와줄 차량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02)2282-1100

▲밀교신문 1기 금강취재단=진각종 밀교신문은 31일까지 1기 금강취재단을 추가 모집한다. 02)913-0136

▲한마음 체육교실 참가 희망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마음 체육교실을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실시키로 하고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농구, 줄넘기, 훌라후프등이 가능한 정신지체인 5명. 02)989-4215

화촉

불교 대구방송 관리부 박치민씨는 24일 오후2시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전 대한불교신문 기자 정은영씨를 맞아 화촉을 밝힌다. 053)427-5114

종단소식

조계종

성철스님추모 철일기도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천제)는 21일부터 28일까지 해인사 대적광전과 백련암 고심원에서 추모재와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제로 철일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는다. 이와함께 27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성철스님 사리탑 앞에서 3천배 참회기도를 갖는다. 추모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해인사 대적광전. (02)744~1541.

법흥사 중흥불사 1돌 법회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28일 오전 9시30분 중흥불사 1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신도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법흥사는 신라구산선문의 옛 위용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불사를 전개하고 있다. (0373)374-9178

태고종

태고스님 탄신 698돌 다례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 탄신 698주년 다례법요식이 29일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봉행된다. 태고 보우 국사 부도앞에서 봉행될 이번 다례식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원로스님 등 종도 5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전국 교임협 사무실 현판

전국교임협의회(회장 박대각화)는 태고종 서울 종무처 2층에 교임협 사무실을 마련하고 6일 현판식을 가졌다.

천태종

서광사 낙성 3053불 점안

통영 서광사(주지 덕궁)는 30일 오전 11시 경남 통영시 미수2동 280-26 현지에서 서광사 낙성 및 3053존 옥불 봉안식을 거행한다. 서광사는 연건평 1천5백여평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대법당, 각 신도회 사무실, 소강당,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0557)648-9700

거제 장흥사 법당 기공

거제 장흥사(주지 진철)는 늘어나는 신도를 수용하기 위해 법당부지를 새로이 확보하고 31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갖는다. 전통양식으로 지어질 장흥사 신축 법당건물에는 기도실 요사채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진각종

신교도 금강원 순례

통리원(원장 성초)은 신교도들을 대상으로 26~28일 울릉도 금강원 성지순례법회를 갖는다. 자격은 각 심인당 대표와 만65세 이하로 희망자 1인. (02)913-0753

관음종

26일 혜웅종정 추대법회



총무원(원장 홍파)은 제5세 종정 운공 혜웅 대종사〈사진〉 추대법회를 26일(화) 오후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봉행한다. (02)763-3345

여래종

명안종무원장 취임법회

총무원은 27일 오전 11시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21세기 불국정토기원 제5회 관정수기 대법회와 여래종 창종 32주년 및 제6대 명안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호법원장·포교원장 취임법회도 함께 갖는다. (0475)731-2261.

일승종

29일 혜정총무원장 취임



남북통일기원 및 제11대 혜정 총무원장〈사진〉 취임법회가 29일 오전 11시 총본산 삼봉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0346)562-2751.

무량종

섬진강서 방생법회

총무원장 지은스님(부산 은암정사 주지·사진)은 24일 섬진강에서 제60차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051)292-4586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신 간

육바라밀이 어렵다고요 ?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4×6판 / 186면 / 3,500원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
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
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
이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엮은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160면 / 값 3,5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조형물은 어느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국판 / 320면 / 7,000원

이야기로 푼 '오분향 예불문'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어,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240면 /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육지장사 새시대 새도량 조성

3백명 수용 청소년회관 갖춰 내년 개원
6만 지장상 봉안 · 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육지장사는 감각적이며 동적인 젊은세대들이 서서 종을 치며 지장기도할 수 있는 108개의 소범종을 완성했다. 10일 신도들이 타종하는 모습.

새천년을 맞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21세기형 종합전법도량이 생긴다.

안(眼) 이(耳) 비(卑) 설(舌) 신(身) 의(意), 육근(六根)으로 직접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도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육지장사(주지 지원, 삼보사주지)는 10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 노천 지장전 불사현장에서 열린 108소범종을 타종식에는 불자 5백여명이 참가하여 범종치며 지장기도하는 장엄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1m50cm높이에 50cm크기의 소범종을 매달아 동적인 젊은 세대들이 서서 종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성게 놀이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법성게관도 준비했다.

현재 6천평부지에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백평규모의 청소년회관과 3백평의 요사채를 건립하고 있는 육지장사는 내년봄 개원과 함께 청소년 산중음악회와 락음악회, 2박3일 프로그램의 청소년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찰입구에서부터 정비돼 있는 산책로에는 한국의 야생화를 심고 한국의 대표시인 1백여명의 시비를 세워 문화공간으로 꾸민다. 내년초 1차적으로 5인의 시비를 완성한다는 방침.

육지장사는 앞으로 6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6만지장보살상을 봉안하고 온가족이 함께 찾아와 신행과 심신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 놀이공간 탁구장 PC방 오락실 테니스장등을 다양하게 건립할 계획이다. 또 육지장사를 방문하는 일반인과 타종교인, 불자들에게 지장수 지장전단을 선물로 주고 점심공양도 365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이와함께 부처님의 법문과 명상을 들으며 산행하며 산림욕을 할 수 있는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산행코스를 만들고 5시간 관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주지 지원스님은 "21세기는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 필요한 시대"라며 "육지장사에 오면 누구나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월정사 50년 중흥불사 회향

무량수전 · 종각 · 해탈문 · 박물관등 건립

내달 한암 · 탄허스님비 제막

월정사(주지 현해)는 13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중흥불사회향 및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흥불사를 통해 월정사는 무량수전 삼성각 진부유치원 종각 진영당 범종루 금강루 해탈문 호지각 보장각(성보박물관)등의 불사를 마무리하여 교구본사로서의 위용과 한국불교 성지로 거듭나게 됐다.

월정사는 6·25전쟁을 거치며 사찰이 전소되어 명맥만 유지하다 50년전 탄허, 만화스님이 제1기 월정사 중창불사를 발원하며 터를 닦았으며, 현해스님이 제2기 중창불사를 일으키며 8년간 도량을 완비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열린 법회에서 주지 현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월정사는 통일시대와 21세기를 향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비젼의 교육불사를 이루는 3차 중창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정사는 금강계단에서 보살계수계식을 갖고 48계를 지켜 불법을 수호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월정사는 중흥불사를 발원한지 50년만에 불사를 완료하여 한국불교 성지로 거듭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룡(월정사 조실)스님을 비롯하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법등(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현해, 현각, 정념, 도완(종회의원) 원행(삼화사 주지)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기수의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토선원 다섯부처님 봉안

염불선원도량 광주 정토선원(주지 도성)은 7일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토세상 만들기를 발원하며 지역 최초로 다섯부처님을 봉안하는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봉안된 다섯부처님은 중앙 석가여래불, 동방 약사여래불, 서방 아미타불, 남방 보생불, 북방 불공성취불이다.

"경남 합천 영암사지는 통일신라때 세운 사찰"

동아대박물관 조사단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황매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영암사지(영암사지.사적 131호)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말까지 있었고, 현재 유일하게 가람의 배치 흔적이 가장 정교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영암사지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아대박물관 조사단(단장 심봉근)은 9일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동아대 이동규교수는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영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뒤 고려말까지 존속된 사찰로 추정된다"며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사찰로서 건물터의 흔적이 완벽하게 남은 곳은 영암사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광주 망월동서 10만 관등법회

28일 태고종 민주영령 천도

5·18 민주영령 고혼천도및 제2건국을 위한 10만관등 대법회가 28일 오전 11시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종무원장 금명)주최로 광주 망월동 신묘역에서 열린다.

전통불교의식으로 열리는 이날 법회는 광주·전남영산회(법천스님외 15명)가 신중작법과 함께 천도재를 올리며 박완일법사의 강연과 함께 10만관등대법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종무원장 금명스님은 "5·18 민주영령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여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세기를 맞기위해 이 번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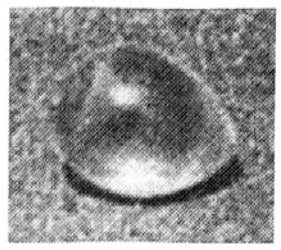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이며 신라불교 초전성지(初轉聖地)인 태조산(太祖山) 도리사(桃李寺). 도리사는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이곳에 불법혜명(佛法慧命)을 전파하기 위해 개산한 민족불교의 성지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봉안된 적멸보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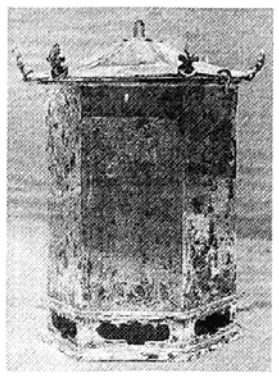
그러나 도리사는 1977년 4월18일 서울 승가사 주지 상륜스님에 의해 오색 영롱한 진신사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역사의 망각지대로서 묻혀 있었다.

사리탑 복원중 불사리 발견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2〉

도리사 진신사리 발견 〈상륜스님〉







◇도리사 진신사리를 발견한 상륜스님(왼쪽). 오른쪽 위사진은 지름 2㎝인 사리를 확대한 모습. 아래사진은 사리함..

도리사는 79년 7월 사리탑 준공과 1983년 4월 적멸보궁 건립 이후 한국불교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전국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참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륜스님(승가사 주지)이 도리사 진신사리를 발견하게 된 것은 간절한 구도심에서 기인했다. 71년 7월 승가사 주지로 부임한 뒤 향곡 선사의 "선객이면 도리사는 가봐야지"하는 말에 몇 년 뒤 무작정 입승 스님과 신도와 함께 고행길을 떠나, 새벽 2시 경북 구미시 태조산 아래 위치한 도리사에 도착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도화상이 좌선하던 좌선대를 참배하러 새벽 길을 걷던 중 칠성각 동북쪽 돌담 곁에 초라하게 쓰러져 있는 사리탑을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석종부도(石鐘浮屠) 형태로 조성된 사리탑에는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쓰여있었다.

상륜스님은 놀라서 같이 길을 걷던 도리사 주지 법성스님에게 "왜 사리탑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으세요?" 하니, 법성스님이 "가난한 절이라 불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스님이 복원해 주실래요"라고 답했다. 이에 상륜스님이 무심코 "그럼 제가 부처님 제자된 도리로 불사를 해보지요"라고 말한 것이 사리탑 복원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는 북한산 승가사도 퇴락하여 곧 무너질 것처럼 어려운 때였지만 상륜스님은 부처님과 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 된장과 고추장을 판 값으로 불사금을 마련하는 등 어렵게 공사에 착수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된 것은 착공 후 1년이 지나 상륜스님과 신도들이 탑대(塔臺)를 복원하던 중의 일이었다.

"무너진 탑을 해체하다가 보니 낡은 사리함과 오색이 영롱한 진신사리가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도리사 사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부처님 사리와 달리 크기도 제일이며, 타원형 투명체로서,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고 부처님의 심지(心地)를 도리사에 심기 위해 모셔 온 진신사리임이 확실하다고 고증학자들은 밝혔다.

아도화상 좌선대 참배가다 쓰러진 석종부도 불사발원

부처님 진신사리와 인연이 깊었던 상륜스님은 승가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오직 기도와 참선에 진력, 서울의 대표적 기도도량으로 일구었다. 1백여평의 선방, 자주 방광을 하는 마애석불로 오르는 108돌계단, 국내 최대규모의 73척 '민족통일기원 호국보탑'은 후손에 길이 남길만한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탑은 인도 기원정사 복원을 발원한 인도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기증받아 봉안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엄청난 불사를 무리없이 회향해 온 스님의 원력은 모두 '부처님 진신사리를 두 번이나 직접 모신데에서 나온 환희심의 발현'이란 게 주변인들의 말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이 책이 서울대 선정도서
나관중의 '원본 삼국지'다
원작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삼국지! 범우비평판세계문학 41-① '99 新개정판
원본 三國志
나관중/중국문학가 황병국 옮김



원작의 광대함과 박진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은 편역하거나 윤문한 삼국지가 아니라 중국 삼민서국과 문원서국판을 대본으로 하여 원전에 가장 충실하게 옮긴 '원본 삼국지'입니다. 한시(漢詩) 원문, 주요전도(戰圖), 출사표(出師表) 등 각종 부록을 대거 수록한 99년 신개정판.

• 작품 해설 : 장기근(서울대 명예교수, 한문학 박사)
* 전5권/각 500쪽 내외 크라운변형판/각권 값 9,000원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주소 http://www.bumwoosa.co.kr

〈무소유〉 발간 25주년 기념 개정판
25년 전 〈무소유〉 초판본(76. 4 15일자 법정본)을 보내주신 분께는 개정판(양장본)을 보내드립니다

무소유
법정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 김수환 추기경

교보 ·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신 4×6판 양장본 값 6,000원

갠지스 강가의 모래알 數의
갠지스 강들에 가득찬 모래알만큼의
七寶 공덕이 못 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名言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지혜.
— 도올 김용옥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겠다.
—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팩스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영 박물관 신화 시리즈 출간



아즈텍과 마야 신화
칼 토베 / 이응균 · 천경효 공역
신국판 / 180면 · 값 7,000원



이집트 신화
조지 하트 / 이응균 · 천경효 공역
신국판 / 186면 · 값 7,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
헨리에타 맥컬 / 임 웅 옮김
신국판 / 184면 · 값 7,000원



로마 신화
제인 F. 가드너 / 이경희 옮김
신국판 / 186면 · 값 7,000원
* 전국 주요서점 판매중



그리스 신화
루실라 번 / 이경희 옮김
* 근간 예정임

(대영박물관과의 저작권 계약으로 위 도서들의 한국어판 간행은 범우사에서 합니다.)

범우사 TEL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www.bumwoosa.co.kr



◇여의도 시범아파트내 10가족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집을 돌아가며 가정법회를 연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10가족 '신행 한마음'

"기도 법회 봉사 함께"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요즘 세태 속에서 한 아파트에 사는 10가족 42명이 신행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 흐뭇한 화제가 되고 있다. 10가족 42명이 마치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복지단체와 독거노인을 돕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

여의도 63빌딩 건너편 시범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시범아파트 가족불자회(이하 가족불자회)'라 부르고 있다. 91년부터 김영애(41), 서금하(55), 정명오(57), 서두자(56) 보살 등 10명의 주부불자들이 매일 아침 삼삼오오 짝지어 조계사 새벽기도를 다니며 돈독한 친분을 쌓았던게 이 모임의 단초가 됐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 아내들을 조계사까지 태워주었던 남편들도 처음에는 아내를 절 앞에 내려주고 예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게 고작이었지만, 차츰 새벽기도에 동참하면서 불자가 됐고 아이들까지 가세하게 됐다.

가족불자회는 매월 넷째 금요일, 집을 돌아가며 가정법회를 열고 〈금강경〉을 한목소리로 독송한다. 서두자 보살은 "혼자서 금강경을 읽으려면 잘 안읽어지는데 이렇게 같이 독송하다보면 독송삼매에 빠져 독송이 재밌습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인천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즐거운 집'과 원주 소쩍새마을, 경기도 일산 홀트아동복지관 등을 번갈아 방문한다. 엄마들은 장애인들을 씻기고 빨래를 해주고, 아빠들은 여기저기 더러운 곳을 치우고 손볼 곳이 없나 살핀다. 아이들은 사람이 그리운 장애인들과 놀이를 하거나 식사도우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 방문할 때마다 쌀과 과일등을 푸짐하게 가져가는데, 쌀은 아파트 상가에서 '대우화장품'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애 보살이 상가 상인들에게 보시받은 것. 내색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불자회의 보살행이 인근에 알려져 아파트상가 상인들의 도움을 받게된 것이다.

신행으로 뚤뚤 뭉쳐진 불자 가족회의 유대와 단결은 널리 소문나 이들의 경조사는 회원들만의 참석으로도 항상 풍성해 핵가족시대를 사는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서금하 보살은 "가정부터 불국토로 만드는 일이 이 사회가 불국토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며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족이 되는 것이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소개한다.

가족불자회는 2년째 시범아파트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내 무의탁 노인들에게 밑반찬 및 빨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원봉사 반경을 넓힐 계획이다. 시범아파트 가족불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처님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타행을 공동으로 결쳐나가겠다고 밝힌다.

오종욱 기자

국립공원내 사찰 72% 오·폐수 계곡에 방류

환경부 자료…"정부 시설지원 절실"

국립공원내 3백여곳의 사찰 대부분이 오폐수등을 계곡에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과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찰에서 하루평균 1천546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50개 사찰에서 28%인 429톤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수발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찰을 관광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년 총 4백18만6천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월 이용객수가 1천명을 넘는 해인사 내장사등 국립공원지역내 대형사찰 32곳중 오수시설을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상태이며 가야산 오대산 소백산 변산반도 월악산 주왕산등 9개 국립공원은 오폐수를 모두 계곡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용석의원은 "국립공원안에 위치한 모든사찰의 오수시설설치가 시급하다"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1백23개 사찰중 32개 사찰만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91개 사찰은 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계종은 9월15일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립공원내 위치한 사찰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둔사 청신암 탱화 4점 도난

10일 새벽 3시께 전남 해남군 해남읍 대둔사 경내 암자 청신암에서 탱화 4점을 도난당한 것을 이 절 주지 경호스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호스님에 따르면 이날 예불을 드리기 위해 청신암에 들어가보니 좌측 벽면에 나란히 걸려있던 각 세로 1m, 가로 60㎝크기의 탱화 4점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도난당한 탱화는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성보다. 경찰은 9일 밤 늦게까지 이들 탱화가 걸려있었다는 절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10일 새벽1시에서 3시사이에 범인이 부엌을 통해 안으로 침입, 탱화를 훔쳐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동국대 불교병원 '첫삽'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및 축하공연이 14일 고양시 식사동 병원건립부지에서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탄성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석주스님(집보사 조실)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현성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강지연 기자



불교캐릭터상품 개발

어린이포교연합회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회장 법전스님)가 불교캐릭터 '뿌따(BBUDDA·사진)'를 개발, 캐릭터 마켓팅사업을 전개한다.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는 지난 3월부터 전문캐릭터개발업체인 삼우커뮤티케이션과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 동자승을 모델로한 메인 케릭터인 뿌따와 뿌따의 부모 무무와 무라, 그리고 친구인 아미와 아라의 작업을 마쳤다. 현재 CI를 바탕으로 각종 불교용품을 비롯 신세대가 즐겨찾는 시계, 핸드폰줄, 스티커, 티셔츠, 마우스패드 등 문구와 관련 시상품 25종을 개발했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합동득도 수계산림

행자 209명 교육

태고종 제23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이 11일 오후 3시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4주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남행자 166명 여행자 43명 등 총 209명의 행자가 참가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해의 2배로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11일 열린 입재식에서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위로는 스스로의 보리를 증득하고 아래로는 못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며 "행자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사회를 제도하고 이끌어나갈 수행자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정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득도수계 참가 행자들은 4주동안 매일 새벽예불및 정근, 강의,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1천배 참회정진 등의 교육내용으로 수련을 쌓는다.

이경숙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 수행지도 : 유마선원장 적연 이제열 법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 통 편 :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의 : 0344-967-9122

"전신회-중신회 통합하자"

전국신도회 대의원회의서 조건등 제시

'10만불자 정토결사' 결의도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의 하나인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가 종단의 공식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의 통합조건을 처음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12일 서울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중앙신도회와의 통합건은 통합특별기구 설치를 대전제로 하고 '전국신도회' 명칭이 고수되고 신도 자율권이 보장될 때 대의원대회의 승인으로 이룩된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오는 30~31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10만 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 추진을 위한 규약12조를 통과시키고, 2002년 월드컵 불교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한강변 연등대법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의는 또 전국신도회가 주최가 되어 봉화산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법회'의 주최가 되기로 하고, 종단의 분규와 관련 "종권을 둘러싼 모든 소송과 투쟁, 폭력과 물리력 행사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등 '현종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4개항을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백령도 심청각 준공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종교 편향사건이 발생했던 백령도내 심청각이 2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문을 연다. 인천시 옹진군과 가천문화재단은 이날 심청각 개관식과 함께 심청환생 동상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국악인 성창순씨가 효녀 심청을 기리는 판소리 '인당수-연꽃환생'을 공연하며 시낭송과 심청 배뱅이굿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김재경 기자

자민련불자회 호국법회

자유민주연합불자회(회장 박철언)는 국군의 달을 맞아 26일 오후2시 중앙당 강당에서 호국대법회를 봉행한다. 3개월에 한번 여는 정기법회를 대신해 마련한 이날 법회에서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이 법문하고, 변웅전 자민련 불자회 부회장이 발원문을 낭독한다. 박철언 회장은 "동티모르에 파견된 군장병들의 무사귀환과 불교계 안정을 기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동화사청년회 창립법회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10일 동화사 봉서루에서 동화사창건이후 처음으로 동화사청년회를 결성했다. 동화사 청년회는 이날 초대회장에 김태홍씨(32)를, 지도법사에 동화사교무국장 해월스님을 각각 추대하고 산하에 교리연구신행·편집홍보·정보통신·문화유적답사·전등놀이문화보급·팔공산환경지킴이등 6개의 실천모임을 구성키로 했다.

이윤호 기자

대광맹인불자회 8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8일 자체법당인 대광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교무국장 해월스님,대승사주지 만권스님,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회 심업대구지부장 등 사부대중1백여명이 참석했다.

불자회는 이날 만권스님과 이재달前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것을 비롯 모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표창과와 감사패등을 수여했다.

이윤호 기자

연화복지학원 하루찻집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은 20일과 24일 지체장애인 세상 나들이와 청각장애인 운전교습기금 마련 하루찻집 행사를 연다. 지체장애인들에게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를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의 세상나들이 행사는 20일 용주사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하루찻집은 청각장애인 무료운전교습용 차량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24일 송파구 프로젝 커피숍에서 열린다.

한명우 기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종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이신 **혜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한지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동양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봉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일 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혜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혜인큰스님

11시 영가천도재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판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하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다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칼대신 무"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등접수 - 일만원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반야여행사 02-730-0020
- 부산 우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통편 문의처) 080-996-9999, 011-699-3348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慧印 주지 性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 팩스 738-5022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공연
무료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선물추첨(CD, TAPE) 100명
▸기념촬영(추첨)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선문은 간데없고 대나무만 무성"

구산선문 참선기행

10월 – 봉림산문



◇봉림사를 창건한 진경스님부도(보물 362호) 봉림사지에 있던 것을 1919년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겼다.



◇장유사 장유화상사리탑(경남도 유형문화재 31호).



◇장유사 대웅전에서 '한마음'을 화두로 좌선삼매에 들어간 기행단.

석축 추정 돌무더기 밖에 없지만 '일심이 근본' 선사설법 들리는듯

신라 말~고려 초 경남지역에 선풍을 진작시켰던 봉림산문의 근본도량이었던 봉림사지. 경남 창원시 봉림동 봉림산. 마을에서 산길로 접어들어 7백m 정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2천여 평의 논이 펼쳐진다. 북서쪽 중턱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둥근 터에 석축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돌들이 흩어져 있다.

세월의 무게에 지워져 지금은 기록으로만 당시 드높았던 선풍의 자취를 더듬을 수밖에 없다. 〈동국여지승람〉에 '봉림사재봉림산유신라집사시랑최인곤찬승진경탑비'(鳳林寺在鳳林山有新羅執事侍郎崔仁滾撰僧眞鑑塔碑)라는 기록이 있다.

비문에 따르면, 진경대사는 854년(신라 문성왕 16년)에 출생하여 923년(경명왕 7년)에 70세로 입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출가 후 명산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국왕들을 불교에 귀의케 한 행적이 적혀 있다. 탑비는 그의 분도들에 의해 이듬 해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봉림사는 원감 현욱(圓鑑 玄昱)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하나 역사상 밝히기가 어려우며 진경 심희(眞鏡 審希) 스님이 효공왕 때 창건하여 그의 스승인 현욱스님을 개산조로 추앙한 것으로 보인다. 봉림사지 인근의 불곡사도 진경스님 창건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당시 경남지역에 미친 진경스님의 영향은 매우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진경스님과 그의 제자인 찬유스님의 문하에 각각 5백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러나 봉림사의 폐사된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봉림사지 석축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가 보인다.

기행단의 첫 번째 순례지는 김해 장유사. 봉림산문의 근본도량인 봉림사가 폐사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폐사지로 남아있지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가르침의 면면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진성(眞性)이 일심이며, 일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봉림산문 개창조 진경스님의 뒤를 이어 선맥을 이은 찬유스님은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한마음'을 강조했다. 한마음은 무엇이고, 왜 한마음인가. 낮게 내려앉았던 구름이 걷히고, 새벽 햇살을 받아 대웅전 연화문 창살이 붉게 물들었다.

이어 장유사에서 버스로 3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봉림사지를 찾았다. 이곳이 사지였다는 표지판 하나 없다. 진경스님 부도(보물 362호)와 탑비(보물 363호)는 1919년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겨져 그나마 있었던 봉림사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대웅전 뒷편에 대나무를 배치하는 경남지역 사찰의 특징에 따라 논 주위 산등성이 서너군데에 야생 대밭이 있는 곳을 대웅전으로 짐작해 당시의 가람을 상상으로 그려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선문의 모습이 없다고 어찌 선문이 아니겠는가. 옛 사람들은 "행주좌와에 눈으로 보고 인연을 만나는 것이 모두 부처의 묘용이리. 즐겁고 상쾌하여 걱정이 없으니, 그래서 부처라 이름하는 것이다"고 했다. 옛절은 지금 논이 되어 중생의 육신을 지탱케 하니 봉림산문은 중생의 피와 살로 화해 중생 속으로 들어와 수백년을 이어오고 있다.

폐사된 이유와 관련, 이곳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시대 전기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이언적 선생의 후손이 이곳이 명당임을 알고 묘를 썼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묘를 쓴 이후 봉림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이씨 가문 역시 망했다고 한다. 단지 묘를 썼기 때문에 폐사가 됐다고 이해되기보다는 당시 왕실의 숭유억불정책과 유림의 세가 유난히 강했던 경상도 지방의 지역적 특색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apia.com)

개산조 진경 심희스님

제자 5백여명 배출

9세에 현욱선사의 제자로 출가하였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심등(心燈)을 이으라는 스승의 당부를 받들어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며 수행했다. 수행중 도를 구하고자 하는 학인이 모여들자 경남 창원에 봉림사를 창건하고 선풍을 크게 선양했다. 한때 경명왕의 청을 받아들여 궁궐에 들어가 설법을 했으며, 이때 왕은 심희스님에게 법응대사(法應大師)라는 존호를 내렸다.

그 뒤 스님은 봉림사로 돌아와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923년에 입적하였다. 제자로는 찬유, 경징, 융제를 비롯해 5백여명에 이르렀다.

성주사

창원지역 최대사찰

경남 창원 지역의 최대 사찰로 불모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835년(신라 흥덕왕 10년) 무염국사 창건으로 전해진다. 곰이 목재를 옮겨와 절을 지었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져 웅신사(熊神寺) 또는 '곰절'로 불리기도 한다. 대웅전 우측 벽면에 창건설화를 그린 벽화가 눈길을 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이 앞품인 대웅전(경남도 유형문화재 134호)와 전형적인 고려 때의 석탑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삼층석탑(경남도 유형문화재 25호)이 천년고찰의 향훈을 전해준다.

장유사

불교 남래설 본산지

김수로왕의 처남인 장유화상이 누이를 따라 수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로국에 불법을 전했다는 유서깊은 사찰이다.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대웅전 뒷편에 장유화상 사리탑(경남도 유형문화재 31호)과 장유화상 사적비가 있다. 주지 법성스님이 주석하면서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채 등을 지어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

봉행 남북통일기원 및 제11대 혜정 총무원장 취임법회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본 종에서는 남북통일기원법회와 함께 혜정 대종사의 제11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원로대덕 큰스님들이 참석하게 될 뜻있는 이번 법회에 전 종도들이 제2창종의 일념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 2543년 10월 29일 금요일 (음력 9월 21일) 오전 11:00

■장 소 : 대한불교 일승종 총본산 삼봉사 대웅전 문 의 : 0346-562-2751

증 명 : 법호 재린 대종사

증 사 : 혜철, 묘종, 원하, 일운, 혜최

자문위원 : 무장, 혜립, 대환, 혜인, 법운, 혜봉, 남강, 영운, 운고, 정도, 범황, 원진, 대성, 법조, 혜동, 고훤, 법황, 안한, 대석, 지장, 혜공, 일소, 도우, 혜승, 자인, 교정, 원성, 정득, 효원, 만덕, 관룡, 정수, 덕명, 연봉, 동명, 수덕, 성월, 우남, 보월, 지운, 경재, 봉래, 석천, 원심, 호정, 주연, 혜광, 혜동, 경보, 보현, 법공, 도암, 도우, 삼보, 법성, 법신, 성덕, 법운, 백운, 대우, 달마, 수경, 박담, 성불, 정배, 일혜, 영담, 해문, 백룡, 황섭, 선공, 원산, 청하, 지암, 탄허, 동초, 혜춘, 화정, 화공, 도관, 혜율, 원일, 법공, 운호, 석초, 정동, 청곡, 원표, 운공, 덕은, 한우, 치암, 율화, 성운, 종현, 동공, 원암, 법선, 표윤, 천봉, 해묵, 능인, 구암, 선연, 대일, 대허, 혜응, 명철, 대각, 금연, 지월, 법삼, 월성, 용우, 성오, 무진, 지남, 용수, 선학 (무순)

봉행위원장 : 혜덕

봉행부위원장 : 혜조, 신풍

봉행위원 : 홍섭, 덕호, 학문, 환식, 문성, 신각, 영식, 자성, 달마, 성지, 법도, 일운, 무각, 문수, 송암, 범천, 혜성, 법산, 호 청허, 월도, 삼보, 대명, 인창, 법신, 도봉, 동화, 혜일, 서계, 취송, 환남, 덕월, 청해, 도암, 법천, 은파, 원성, 화용, 화광, 창호, 마혜, 영암, 일석, 벽성, 백연, 태월, 송파, 우담, 원과, 묘명, 묘수, 혜석, 상운, 법은, 일혜, 묘생, 덕운, 표진, 성암, 묘인, 석암, 청산, 용성, 상허, 보천, 각성, 정각, 현담, 표전, 도광, 만봉, 청공, 묘욱, 법면, 법일, 선혜, 월산, 도은, 재룡, 대진, 성진, 혜수, 정심, 인용, 인철, 청화, 무공, 서혜, 철운, 묵장, 지우, 용암, 도연, 원손, 천호, 묘덕, 혜각, 도승, 영한, 혜열, 대혁, 회조, 창혜, 혜상, 혜붕, 죽산, 봉승, 혜환, 마연, 소설, 일장, 함허, 묘광 (무순)

집행위원장 : 혜득

집행부위원장 : 남장

집행위원 : 동암, 법운, 로광, 선재, 극우, 혜광, 혜동, 법성, 해암, 혜정, 월봉, 법승, 정천, 와룡, 상백, 인담, 광운, 경호, 제환, 부공 (무순)

기획위원장 : 혜봉

기획부위원장 : 혜선

기획위원 : 경보, 대공, 진각, 삼보, 도명, 덕화, 호완, 성공, 혜문, 대운, 대성, 동곡, 대도, 살해, 춘담, 마인, 원만, 성심, 법령, 명광, 용천, 혜능, 응산, 승도 (무순)

홍포위원장 : 혜인

홍포부위원장 : 정

홍포위원 : 운파, 혜산, 혜선, 혜도, 상각, 법공, 성오, 법기, 법인, 효광, 치산, 정타, 법광, 석근, 강산, 희정, 장산, 설봉, 지상, 무경 (무순)

총무분과위원장 : 길상

총무분과부위원장 동화

총무분과위원 : 법상, 지공, 대봉, 법륜, 도성, 자광, 일경, 혜월, 보현, 보연, 만해, 득만, 경공, 선화, 상화, 월현, 도행, 진성, 경덕 (무순)

포교분과위원장 : 등인

포교분과부위원장 정수

포교분과위원 : 석연, 성해, 대명, 대종, 유선, 혜철, 혜철, 장화, 법운, 성도, 일파, 현도, 현신, 해원, 명륜, 현인, 운파, 도일 (무순)

사회분과위원장 : 문공

사회분과부위원장 : 정암

사회분과위원 : 성오, 혜진, 성덕, 보광, 법현, 무송, 지허, 일성, 해인, 도암, 인홍, 도우, 성복, 석단, 갈평, 백송, 경덕, 경문 (무순)

규정분과위원장 : 혜신

규정분과부위원장 : 대성

규정분과위원 : 상운, 덕암, 청송, 자원, 법성, 운성, 신우, 법교, 봉진, 성현, 종민, 재암, 서봉, 정일, 종주, 호산, 혜당, 청인, 성암 (무순)

교육분과위원장 : 법조

교육분과부위원장 : 지용

교육분과위원 : 득산, 혜천, 홍해, 노암, 인규, 월하, 혜관, 일각, 현규, 성우, 도근, 묘청, 진덕, 계성, 도학, 정화, 일여, 은하 (무순)

종책분과위원장 : 장대

종책분과부위원장 : 성하

종책분과위원 : 명도, 청람, 운봉, 상진, 철운, 수경, 덕조, 경석, 용법, 시운, 성제, 구오, 함허, 인혜, 송일, 조향, 상진, 혜문, 일송 (무순)

재무분과위원장 : 법륜

재무분과부위원장 : 극우

재무분과위원 : 성재, 혜성, 법운, 경보, 용호, 인덕, 청암, 자수, 혜정, 혜원, 백암, 혜종, 장행, 수덕, 재원, 해수, 향자, 반야, 초운, 원형, 만월 (무순)

진행분과위원장 : 정도

진행분과부위원장 : 홍섭

진행분과위원 : 경덕, 법공, 탄공, 운산, 법수, 범황, 남산, 혜신, 성곡, 대산, 석환, 청허, 혜환, 청법, 견봉, 삼봉, 곡송, 우만, 운학 (무순)

비구니회장 : 청화

비구니총무 : 지성

비구니봉행위원 : 도심, 명화, 문정, 일조, 원정, 혜월, 법운, 현경, 보연, 도암, 정령, 성우, 정선, 자운, 보월, 운화, 보현, 여래, 연화, 법연, 모현, 묘정, 법향, 보선, 무혜, 덕화, 정심, 정은, 지은, 지현, 진여성, 차연, 청심, 혜연, 청화, 지성, 법연화, 정수, 덕명, 혜성, 연봉, 성월, 지운, 혜정, 도명, 대현화, 실상화, 현심, 호정, 대환심, 영지, 효광, 지현, 청심, 자아, 소현, 지은, 자광, 태원, 계봉, 석연, 대명, 유선, 보광화, 묘연, 덕행심, 백연인, 극락화, 영불심, 대자행, 원각심, 표암 (무순)

전국신도회장 : 하종우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